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1. 9. 29.(수) 12:00	 통계청
	배포일시	2021. 9. 29.(수) 08:30	
	담당부서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담 당 자	과 장: 강유경 (042-481-2233) 사 무 관: 장수안 (042-481-2240)	

2021 고령자 통계

일 러 두 기

-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2021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6.5%, 2025년 20.3%, 2060년 43.9%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사회는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에 통계청에서는 2003년부터 매년 「노인의 날(10. 2.)」에 맞추어 고령자 관련 통계를 수집·정리한 「고령자 통계」를 작성해 오고 있습니다.
- 고령자 통계는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자 하였으나, 인용된 각 통계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연령이 다른 통계 자료출처 및 대상 연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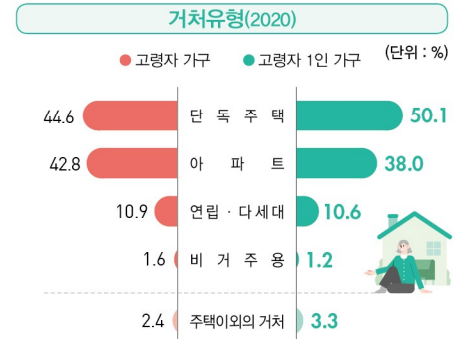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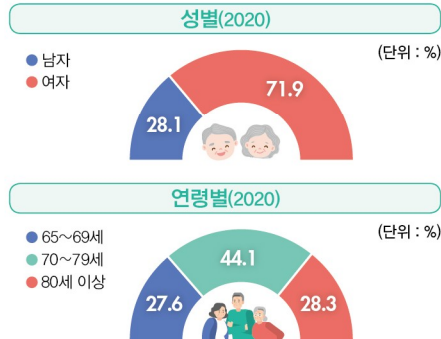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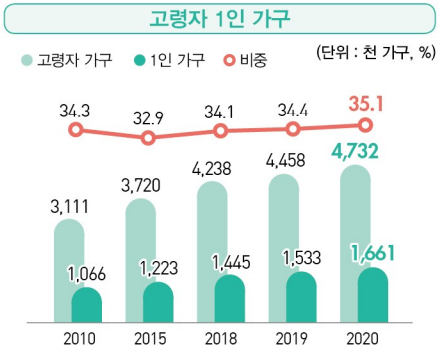
-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
-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은퇴연령층)」: 66세 이상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실태조사」: 60세 이상
-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60세 이상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55~79세
-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상대적 빈곤율)」: 66세 이상

- 금년에는 특별기획으로 **‘혼자 사는 고령자의 삶’**에 대한 분석을 추가하였습니다.
- 보도자료에 수록된 숫자는 반올림한 것으로 각 항목의 합계 또는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보도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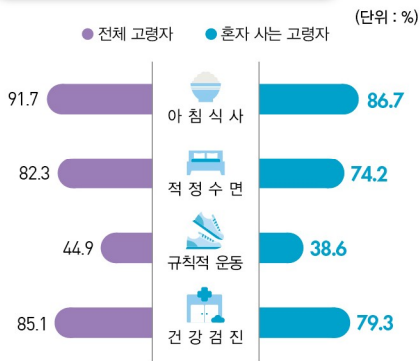
2021 고령자 통계

혼자 사는 고령자의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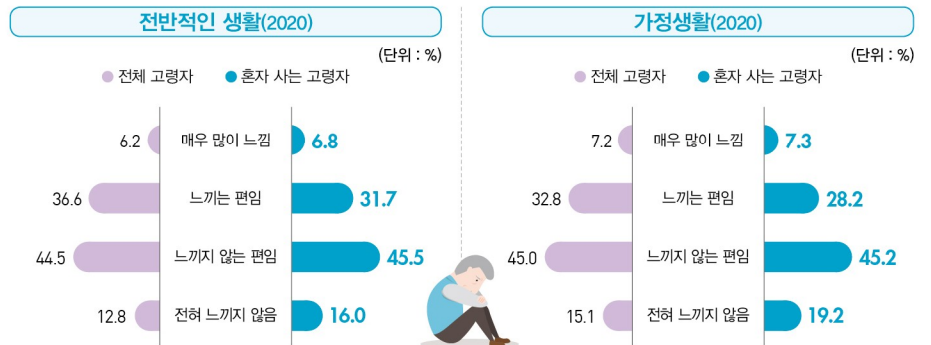
고령자 1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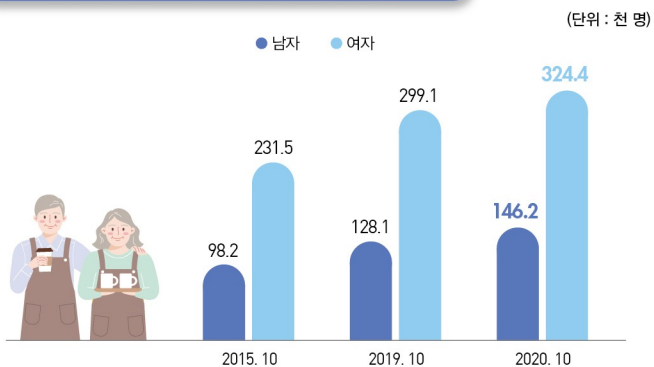
건강관리(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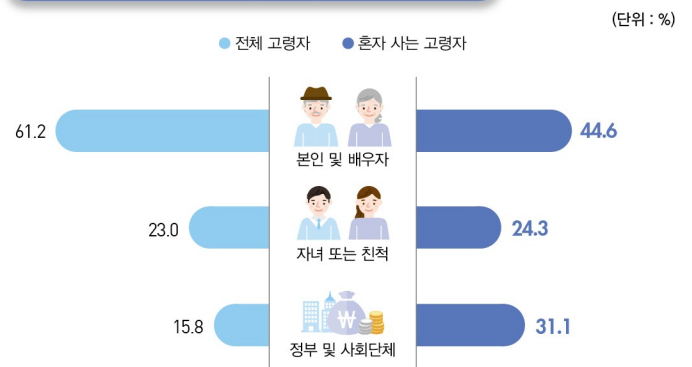
스트레스(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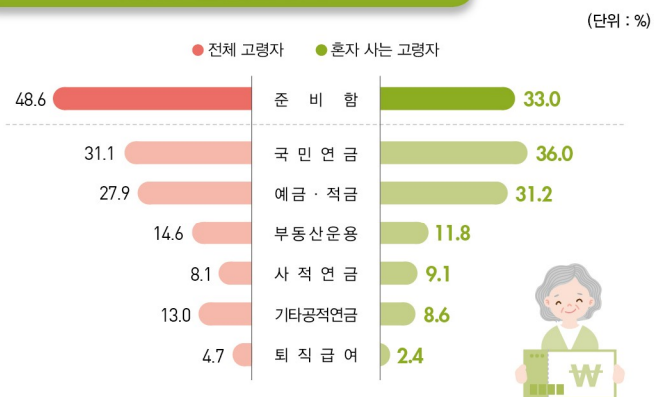
혼자 사는 고령자 취업자수



생활비 마련 방법(2019)



노후 준비(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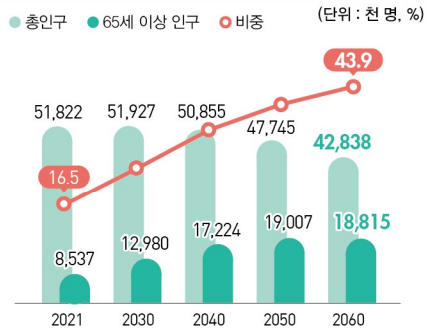
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 요인(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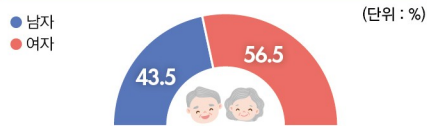
2021 고령자 통계

고령인구(65세 이상)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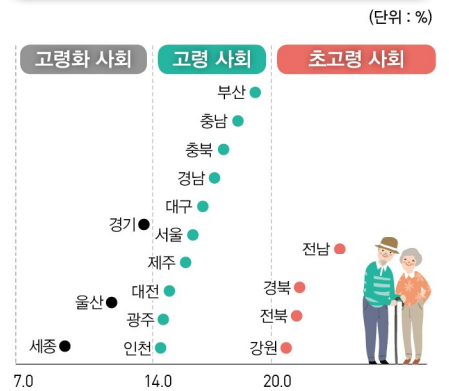
성별(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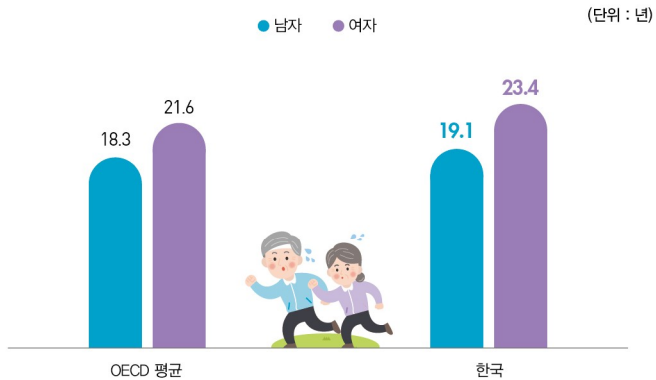
연령별(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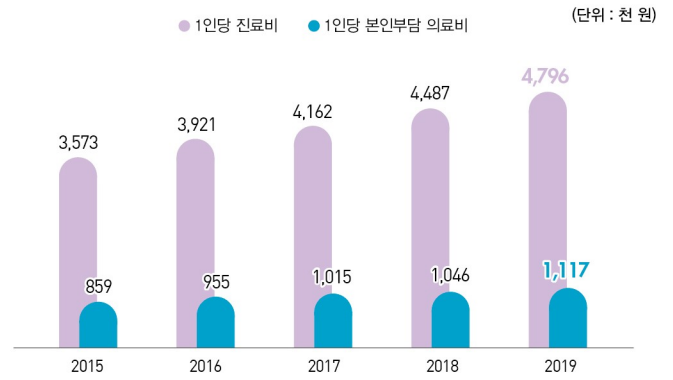
지역별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2021)



65세 생존자 기대여명(2019)



고령자 진료비 및 본인부담 의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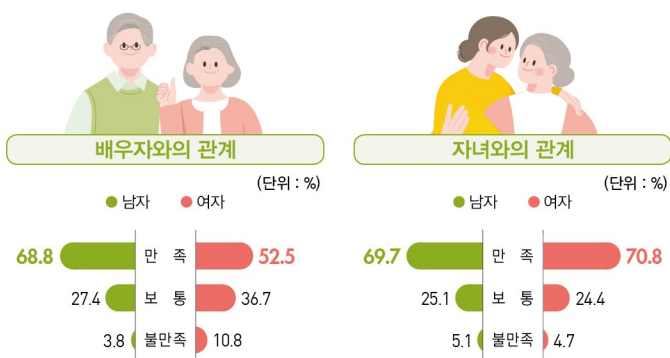
은퇴연령층(66세 이상)의 노인 빈곤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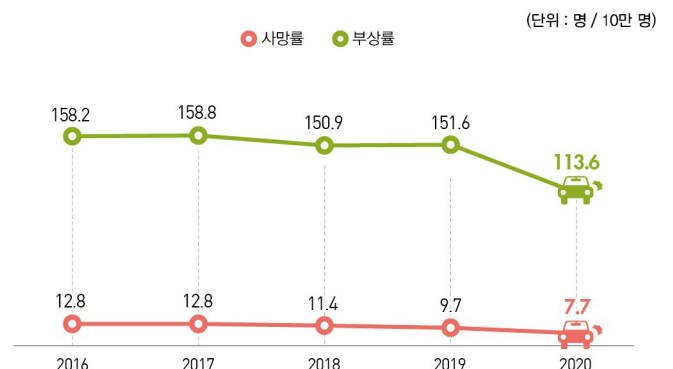
고령자 고용률 및 실업률



고령자 가족관계 만족도(2020)



고령자 보행교통사고 사망률·부상률



목 차

□ 요 약	1
-------------	---

□ 2021 고령자 통계	5
---------------------	---

<특별기획> 혼자 사는 고령자의 삶	6
---------------------------	---

I. 인구·가구

1. 인구 추이	16
2. 지역별 고령인구	18
3. 고령자 가구	19
4. 이혼 및 재혼	20
5. 주택 소유율	21

II. 건강

6. 기대여명	22
7. 사망원인별 사망률	23
8. 운동 실천율	24
9. 본인부담 의료비	25
10. 노인 복지시설	26
11. 주관적 건강평가	27
12. 건강검진 수검률	28
13. 장기요양인정자 비중	29

III. 소득보장

14. 자산 소유액 및 구성	30
15. 은퇴연령층 빈곤율	31
16. 고용률	32
17. 공적연금 수급률	34
18. 취업 의사 및 취업을 원하는 이유	35

IV. 사회참여·관계

19. 평생교육 참여율	36
20. 노인차별	37
21. 세대갈등	38
22. 가족관계 만족도	39
23. 주관적 노인연령	40
24. 연명의료 반대율	41

V. 생활환경

25.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중	42
26. 주거만족도	43
27. 보행안전성	44
28. 고령자 학대피해 경험률	45
29. 운전자 비율	46

VI. 통계표	47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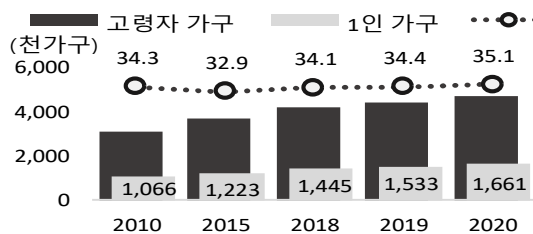
2021 고령자 통계 [요약]

특별기획 | 혼자 사는 고령자의 삶

2020년 혼자 사는 고령자 가구는 166만 1천 가구로 전체 고령자 가구의 3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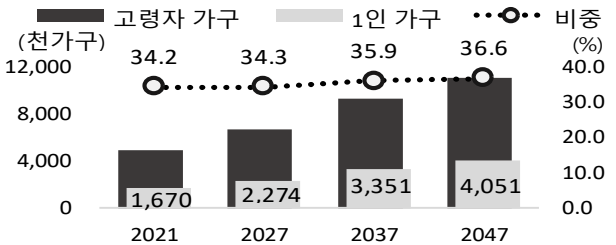
- '20년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473만 2천 가구로, 이 중 35.1%인 166만 1천 가구가 혼자 사는 고령자 1인 가구임
 - 연령대별로는 70대 비중이 44.1%로 가장 높고, 성별로는 여자가 71.9%임
- 혼자 사는 고령자 가구는 계속 증가하여 '37년에는 현재('21년)의 2배 수준인 335만 1천 가구, '47년에는 405만 1천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고령자 1인 가구 비중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고령자 1인 가구 추계 비중 >



자료: 통계청, 「장래가구특별추계: 2017~2047」

건강관리 실천율은 전체 고령자 대비 낮은 편, 스트레스 인식도도 낮은 경향

- '20년 혼자 사는 고령자의 17.1%만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하여 전체 고령자 (24.3%)에 비해 주관적 건강평가는 부정적인 경향
- '20년 혼자 사는 고령자의 건강관리 실천율은 아침 식사하기 86.7%, 정기 건강 검진 79.3%, 적정 수면 74.2% 순이고, 전체 고령자보다 5%p 이상 낮음
- '20년 혼자 사는 고령자의 전반적인 생활 및 가정생활 스트레스 인식도는 각각 38.5%, 35.5%로 전체 고령자보다 4%p 이상 낮음

혼자 사는 고령자 중 47만여 명은 취업 44.6%는 생활비 스스로 마련 33.0%는 노후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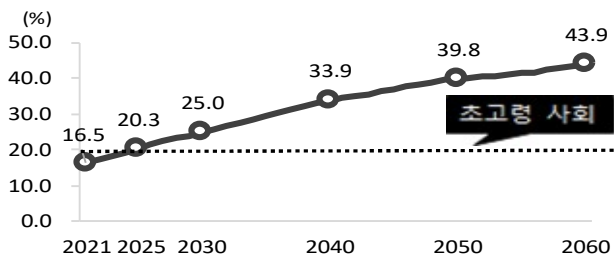
- '20년 10월 혼자 사는 고령자 중 취업자는 47만 6백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 3천여 명 증가하였고, '15년 이후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음
- '19년 혼자 사는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순위는 스스로 마련하는 비중이 44.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정부 및 사회단체(31.1%), 자녀 및 친척(24.3%) 순임
 - 정부 및 사회단체의 지원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은 전체 고령자의 2배 수준임
- '19년 혼자 사는 고령자 3명 중 1명(33.0%)이 노후 준비를 하는 반면, 전체 고령자는 2명 중 1명이 노후 준비를 하고 있음

I 인구·가구

2021년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6.5%,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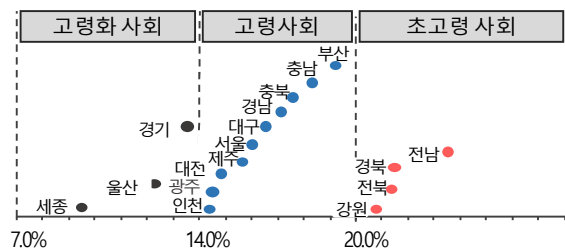
- '21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6.5%로, 향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25년에는 20.3%에 이르러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 '21년 고령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인 지역은 전남(23.8%), 경북(21.5%), 전북(21.4%), 강원(20.9%) 4곳임
- '21년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전체 가구의 23.7%이며, '47년에는 전체 가구의 약 절반(49.6%)이 고령자 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됨

<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

< 지역별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202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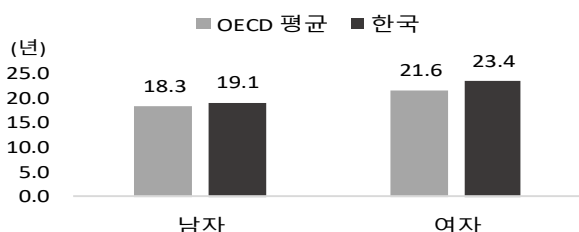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시도): 2017~2047」

II 건강

2019년 65세 생존자의 기대여명은 21.3년, 75세 생존자의 기대여명은 13.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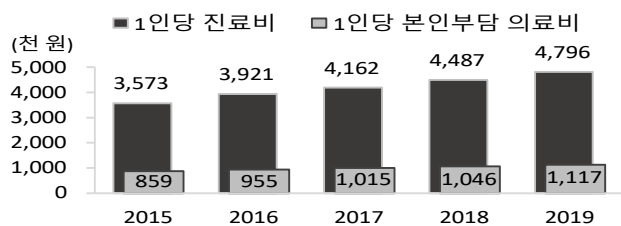
- '19년 65세 생존자의 기대여명은 21.3년(남자 19.1년, 여자 23.4년)으로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남자는 0.8년, 여자는 1.8년 더 높은 수준임
- '20년 65세 이상 고령자 10만 명당 사망원인은 암(733.3명), 심장질환(331.9명), 폐렴(257.5명), 뇌혈관질환(225.3명), 알츠하이머병(91.4명) 순임
 -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사망은 '20년 처음으로 고령자 사망원인 5위로 나타남
- '19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건강보험 상 1인당 진료비는 479만 6천 원, 본인부담 의료비는 111만 7천 원으로 각각 전년보다 30만 9천 원, 7만 1천 원 증가함

< 기대여명(65세, 2019) >



자료: OECD, 「Health Status」 (2021.7.30. 기준)

< 고령자(65세 이상)의 진료비 및 본인부담 의료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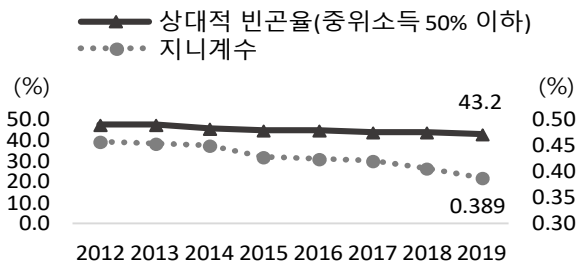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

III 소득보장

2020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34.1%, 실업률은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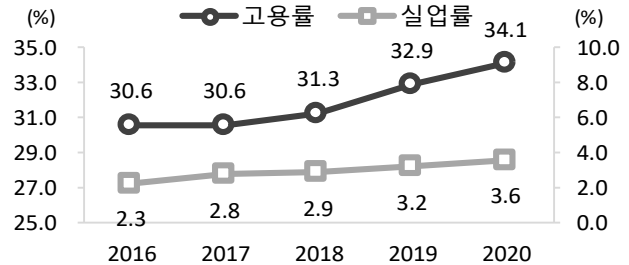
- '20년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순자산액은 3억 4,95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천 383만 원 증가함
- '19년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소득 분배지표는 상대적 빈곤율 43.2%, 지니계수 0.389, 소득 5분위 배율 7.21배로 '16년 이후 소득분배 정도가 개선되고 있음
- '20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34.1% 실업률은 3.6%로 전년보다 각각 1.2%p, 0.4%p 상승함

< 은퇴연령층(66세 이상)의 노인 빈곤율 >



자료: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 고령자(65세 이상)의 고용률 및 실업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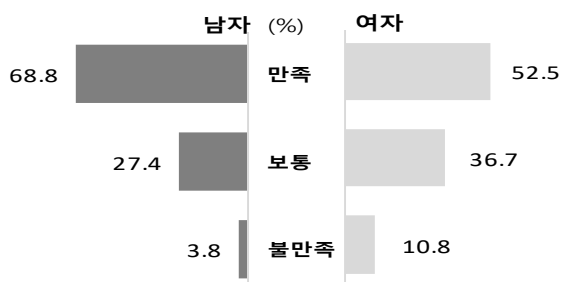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IV 사회참여·관계

2020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61.9%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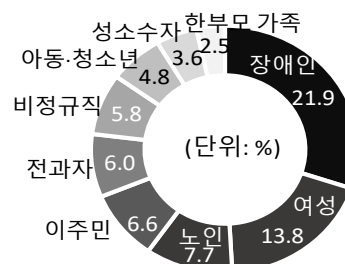
- '20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61.9%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만족하며, 부인보다 남편의 만족도가 16.3%p 높게 나타남
- '20년 19세 이상 성인 중 인권침해나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이 「노인」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7.7%로, 「장애인」, 「여성」 다음으로 높은 순위임
- '20년 65세 이상 고령자 중 85.6%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반대하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음

<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2020)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 인권침해·차별을 많이 받는 집단(20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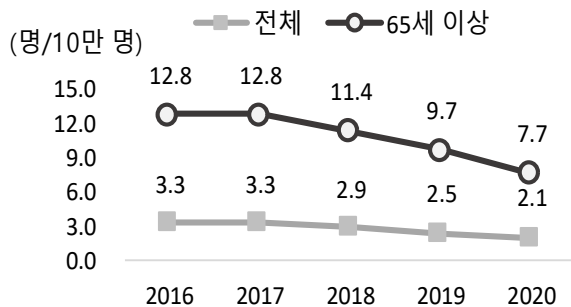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실태조사」

2020년 고령자의 보행교통사고 사망률은 전체 인구의 3.7배, 부상률은 1.6배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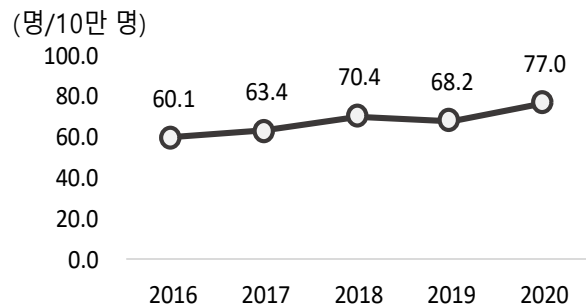
- '20년 65세 이상 고령자 10만 명당 보행교통사고 사망률은 7.7명으로 전년 대비 2.0명, 보행교통사고 부상률은 113.6명으로 38.0명 감소함
 - 고령자의 보행교통사고 사망률은 전체 인구의 3.7배, 부상률은 1.6배 수준으로 고령자의 보행안전성은 취약한 상태임
- '20년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비중은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3.4%로, '17년 이후 감소세를 보임
- '19년 65세 이상 고령자 10만 명 중 77명은 학대피해 경험이 있으며, 여자의 피해 경험률이 102.1명으로 남자(44.1명)보다 2.3배 이상 높은 수준임
- '20년 65세 이상 고령자 5명 중 1명(21.9%)은 자동차 운전을 하고 있고, 자동차 운전을 그만둔 평균 나이는 65.8세임

< 보행사고 사망률 >



자료: 경찰청, 「경찰접수교통사고 현황」

< 학대피해 경험률(65세이상) >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학대현황」

2021 고령자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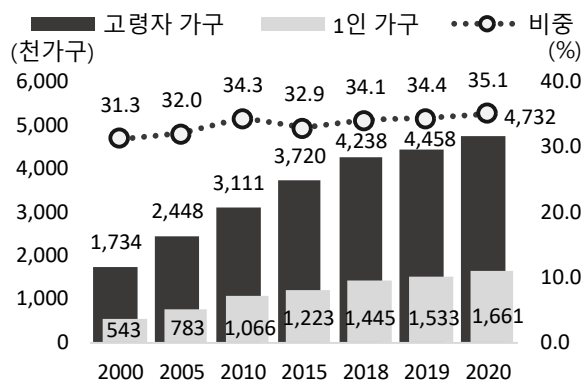
〈특별기획〉 혼자 사는 고령자의 삶

1. 1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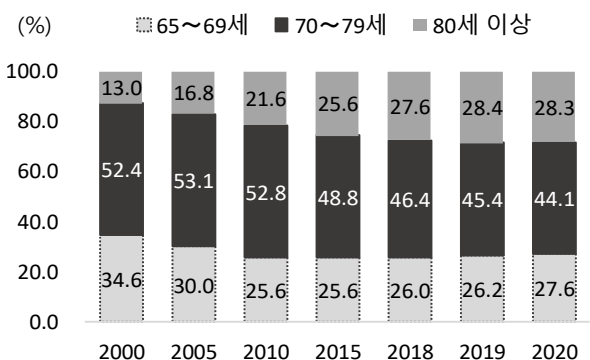
2020년 전체 고령자 가구의 35.1%가 혼자 사는 고령자 가구임

- '20년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473만 2천 가구로, 이 중 35.1%인 166만 1천 가구가 혼자 사는 고령자 1인 가구임
- 고령자 가구 및 고령자 1인 가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고령자 가구 중 고령자 1인 가구의 비중도 '15년 이후 증가 추세임
- 고령자 1인 가구의 성별 비중은 '00년 여자가 85.3%로 남자의 5.8배 수준으로 높았으나 점차 낮아져 '20년에는 남자의 2.6배 수준인 71.9%에 이름
- 고령자 1인 가구 중 70대 비중이 44.1%로 여전히 가장 높으나 감소 추세이며, 80세 이상의 비중은 28.3%로 증가 추세임

< 고령자 1인 가구 비중 >



< 연령대별 고령자 1인 가구 비중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고령자 가구 >

(단위: 천가구, %)

	고령자 가구	고령자 1인 가구	비중	성별		연령대별		
				남자	여자	65~69세	70~79세	80세 이상
2000	1,734	543	31.3	14.7	85.3	34.6	52.4	13.0
2005	2,448	783	32.0	17.0	83.0	30.0	53.1	16.8
2010	3,111	1,066	34.3	20.3	79.7	25.6	52.8	21.6
2015 ¹⁾	3,720	1,223	32.9	24.4	75.6	25.6	48.8	25.6
2018	4,238	1,445	34.1	26.6	73.4	26.0	46.4	27.6
2019	4,458	1,533	34.4	27.4	72.6	26.2	45.4	28.4
2020	4,732	1,661	35.1	28.1	71.9	27.6	44.1	2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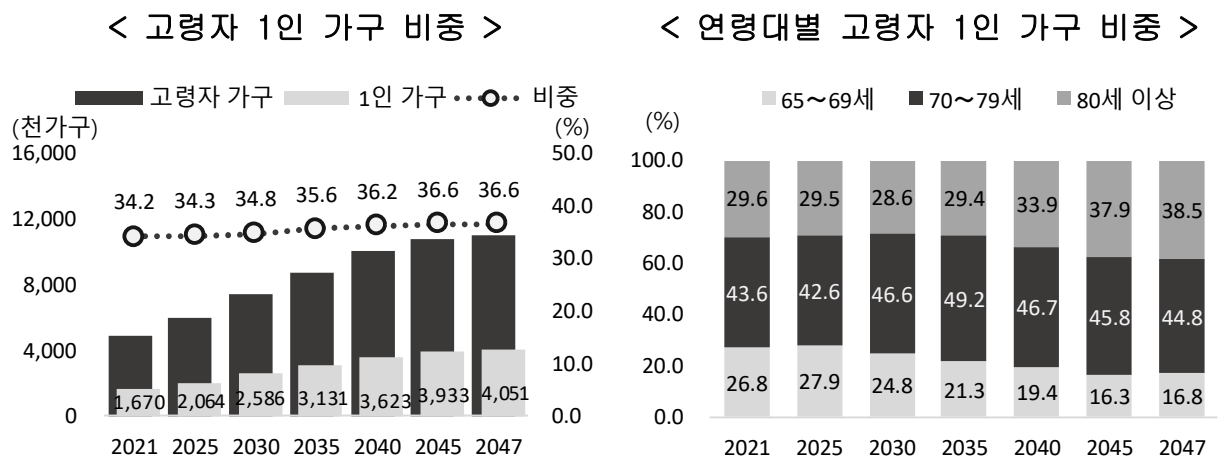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주: 1) 2015년 이후는 등록센서스 방식 결과임

2. 1인 가구 추계

고령자 1인 가구는 계속 증가하여 2037년에는 현재의 2배 규모가 될 전망

- 고령자 1인 가구는 계속 증가하여 '37년에는 현재의 2배 수준인 335만 1천 가구, '47년에는 405만 1천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고령자 1인 가구 중 남자의 비중은 '21년 28.3%에서 '47년에는 35.9%로 증가하는 반면, 여자는 71.7%에서 64.1%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연령대별로 보면, 65~69세 고령자 1인 가구의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80세 이상의 고령자 1인 가구의 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 통계청, 「장래가구특별추계: 2017~2047」

< 고령자 가구 추계 >

(단위: 천가구, %)

	고령자 가구	고령자 1인 가구	비중	성별		연령대별		
				남자	여자	65~69세	70~79세	80세 이상
2021	4,880	1,670	34.2	28.3	71.7	26.8	43.6	29.6
2025	6,011	2,064	34.3	30.6	69.4	27.9	42.6	29.5
2030	7,438	2,586	34.8	32.8	67.2	24.8	46.6	28.6
2035	8,788	3,131	35.6	34.1	65.9	21.3	49.2	29.4
2040	10,012	3,623	36.2	35.0	65.0	19.4	46.7	33.9
2045	10,747	3,933	36.6	35.5	64.5	16.3	45.8	37.9
2047	11,058	4,051	36.6	35.9	64.1	16.8	44.8	3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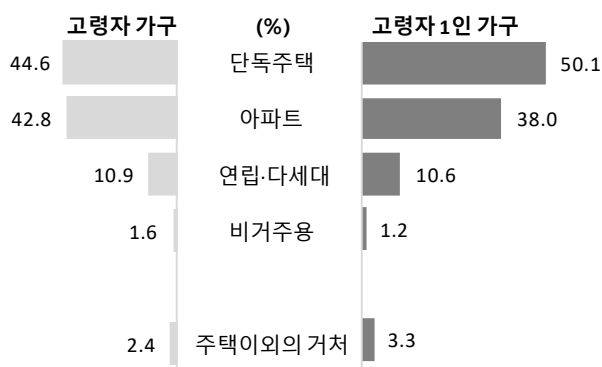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장래가구특별추계: 2017~2047」

3. 거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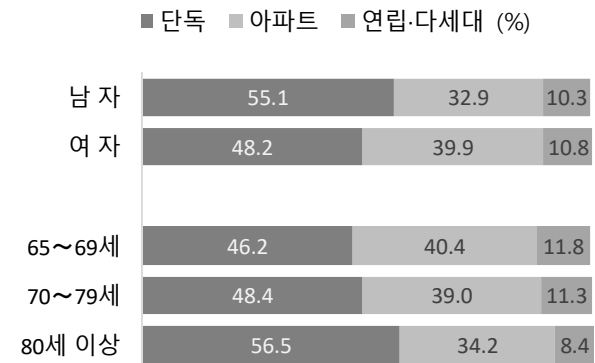
2020년 고령자 1인 가구 50.1%는 단독주택에서 거주함

- '20년 고령자 1인 가구 2가구 중 1가구(50.1%)는 단독주택에서 거주함
 - 단독주택 거주 비중은 남자(55.1%)가 여자(48.2%)보다 높고, 아파트 거주 비중은 여자(39.9%)가 남자(32.9%)보다 높음
 - 나이가 많을수록 단독주택 거주 비중이 높고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 거주 비중이 낮음
 - 고령자 1인 가구는 단독주택 거주 비중과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비중이 전체 고령자 가구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

< 고령자 가구.vs. 고령자 1인 가구 거처 유형(2020) >



< 성별·연령대별 거처유형(2020)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고령자 1인 가구의 거처 유형(2020) >

(단위: 천명, 천가구, %)

	전체	소 계	주택	소계	단 독	아파트	연립·다세대	비 거주용	주 택 이외의 거 처
고령자 1인 가구	1,661	100.0	96.7	100.0	50.1	38.0	10.6	1.2	3.3
남 자	466	100.0	94.1	100.0	55.1	32.9	10.3	1.7	5.9
여 자	1,194	100.0	97.7	100.0	48.2	39.9	10.8	1.1	2.3
65~69세	458	100.0	95.0	100.0	46.2	40.4	11.8	1.7	5.0
70~79세	733	100.0	97.0	100.0	48.4	39.0	11.3	1.2	3.0
80세 이상	470	100.0	97.8	100.0	56.5	34.2	8.4	0.9	2.2
고령자 가구	4,732	100.0	97.6	100.0	44.6	42.8	10.9	1.6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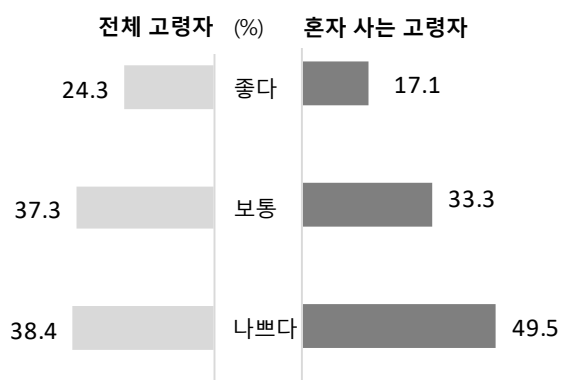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20

4. 건강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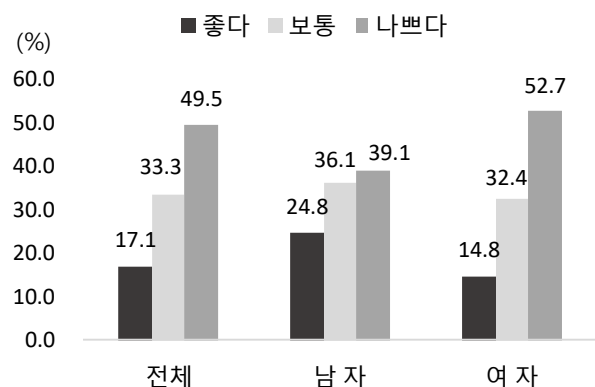
2020년 주관적 건강평가는 혼자 사는 고령자가 전체 고령자에 비해 부정적 경향

- '20년 혼자 사는 고령자 중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년 전과 동일한 17.1%임
- 혼자 사는 고령자의 주관적 건강평가는 남자가 여자보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긍정적인 경향을 보임
- 혼자 사는 고령자의 주관적 건강평가는 전체 고령자에 비해 부정적 경향을 보임
 - 전체 고령자 10명 중 4명(38.4%)이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반면, 혼자 사는 고령자는 10명 중 5명(49.5%)이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고 생각함

< 전체 고령자 .vs. 혼자사는 고령자 건강평가 (2020) >



< 성별 건강 평가(2020)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 혼자 사는 고령자의 건강 평가 >

(단위: %)

		좋다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보통 이다	나쁘다	나쁜 편이다	매우 나쁘다
혼자 사는 고령자	2016	16.9	2.0	14.8	28.1	55.0	44.1	10.9
	2018	17.1	1.9	15.1	28.4	54.5	42.7	11.8
	2020	17.1	2.1	15.0	33.3	49.5	42.5	7.0
	남 자	24.8	2.5	22.3	36.1	39.1	34.7	4.4
	여 자	14.8	2.0	12.8	32.4	52.7	45.0	7.7
	65~69세	23.5	1.7	21.8	44.5	32.0	28.0	4.0
	70~79세	19.1	2.7	16.4	33.5	47.4	41.6	5.8
	80세 이상	10.1	1.6	8.5	25.4	64.4	53.8	10.6
전체 고령자(2020)		24.3	3.0	21.3	37.3	38.4	33.2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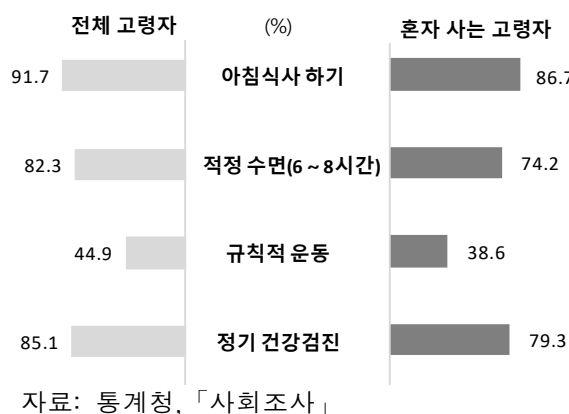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5. 건강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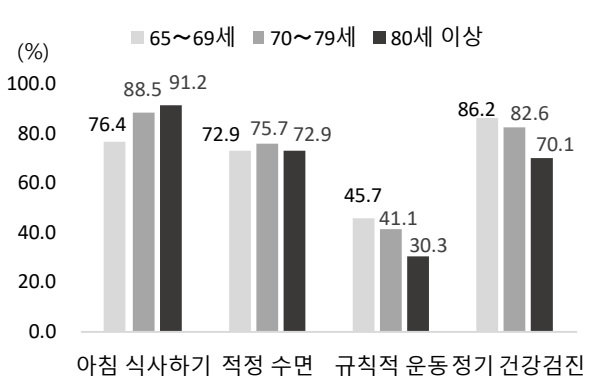
2020년 전반적인 건강 관리 실천율은 혼자 사는 고령자가 전체 고령자보다 낮음

- '20년 혼자 사는 고령자의 건강관리 실천율은 아침 식사하기 86.7%, 정기 건강검진 79.3%, 적정 수면 74.2%, 규칙적 운동 38.6% 순임
- 정기 건강검진, 적정 수면, 규칙적 운동 실천율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고, 아침 식사하기 실천율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음
- 나이가 많을수록 아침 식사하기 실천율이 높은 반면, 규칙적 운동과 정기 건강검진 실천율은 낮음
- 혼자 사는 고령자의 건강관리 실천율은 전체 고령자에 비해 모든 부문에서 5%p 이상 낮음

< 전체 고령자 .vs. 혼자사는 고령자 건강 관리(2020) >



< 연령대별 건강 관리(2020) >



< 혼자 사는 고령자의 건강 관리 >

(단위: %)

		아침 식사하기		적정 수면(6~8시간)		규칙적 운동		정기 건강검진	
		실천함	실천 안함	실천함	실천 안함	실천함	실천 안함	실천함	실천 안함
혼자 사는 고령자	2016	86.6	13.4	73.5	26.5	41.4	58.6	73.0	27.0
	2018	85.5	14.5	74.5	25.5	35.7	64.3	79.2	20.8
	2020	86.7	13.3	74.2	25.8	38.6	61.4	79.3	20.7
	남 자	81.6	18.4	77.4	22.6	45.5	54.5	85.4	14.6
	여 자	88.3	11.7	73.2	26.8	36.4	63.6	77.4	22.6
	65~69세	76.4	23.6	72.9	27.1	45.7	54.3	86.2	13.8
	70~79세	88.5	11.5	75.7	24.3	41.1	58.9	82.6	17.4
	80세 이상	91.2	8.8	72.9	27.1	30.3	69.7	70.1	29.9
전체 고령자(2020)		91.7	8.3	82.3	17.7	44.9	55.1	85.1	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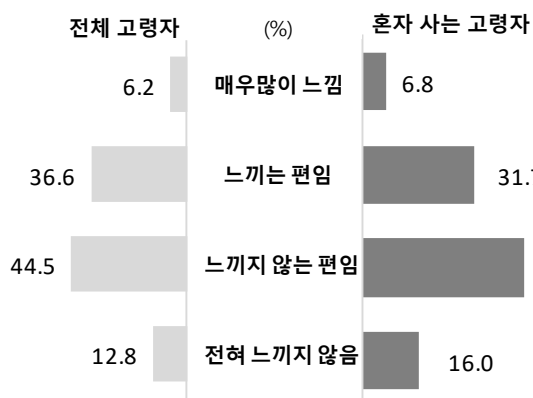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6. 스트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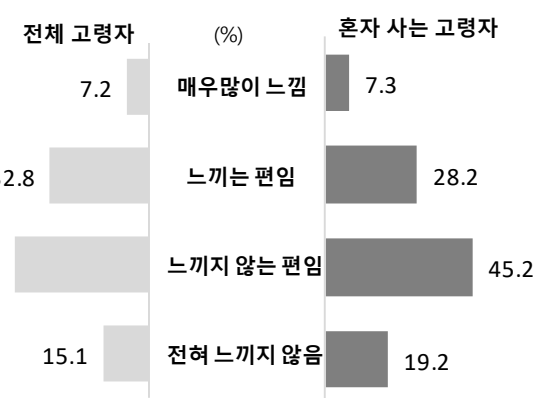
2020년 혼자 사는 고령자가 전체 고령자에 비해 스트레스 인식도가 낮은 경향

- '20년 전반적인 생활 및 가정생활에서의 스트레스 인식정도는 혼자 사는 고령자가 전체 고령자에 비해 4%p 이상 낮음
- 남자가 여자보다 스트레스 인식정도가 높은 경향이 있음
- 전체 고령자와 비교하면 스트레스 인식도가 낮은 경향이 있으나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느끼는 비중은 오히려 혼자 사는 고령자가 높음

< 스트레스(전반적인 생활, 2020) >



< 스트레스(가정 생활, 2020)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 혼자 사는 고령자의 스트레스 인식 정도(2020) >

(단위: %)

		계	느낌	매우 많이 느낌	느끼는 편임	느끼지 않음	느끼지 않는 편임	전혀 느끼지 않음
전반 적인 생활	혼자 사는 고령자	100.0	38.5	6.8	31.7	61.5	45.5	16.0
	남 자	100.0	44.6	8.2	36.4	55.4	40.3	15.1
	여 자	100.0	36.5	6.3	30.2	63.5	47.2	16.3
	65~69세	100.0	43.3	8.3	35.0	56.8	46.1	10.7
	70~79세	100.0	37.3	7.3	30.0	62.7	43.9	18.8
	80세 이상	100.0	36.9	5.0	31.9	63.1	47.4	15.7
	전체 고령자	100.0	42.7	6.2	36.6	57.3	44.5	12.8
가정 생활	혼자 사는 고령자	100.0	35.5	7.3	28.2	64.4	45.2	19.2
	남 자	100.0	38.9	9.0	29.9	61.1	42.2	18.9
	여 자	100.0	34.5	6.8	27.7	65.5	46.2	19.3
	65~69세	100.0	39.3	10.2	29.1	60.7	46.4	14.3
	70~79세	100.0	34.2	7.2	27.0	65.8	42.8	23.0
	80세 이상	100.0	36.9	5.5	29.4	65.1	47.8	17.3
	전체 고령자	100.0	39.9	7.2	32.8	60.1	45.0	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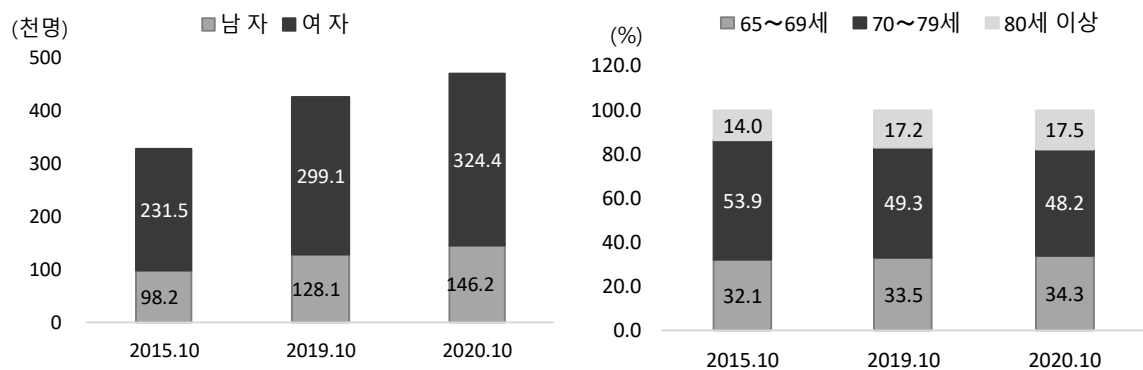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20

7. 취업 현황

2020년 10월 혼자 사는 고령자 중 취업자는 47만 6백 명임

- '20년 10월 혼자 사는 고령자 중 취업자는 47만 6백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 3천여 명 증가함
- 취업자 성별 비중은 여자가 68.9%로 남자의 2.2배 수준임
- 혼자 사는 고령자 중 취업자의 연령대별 비중은 70대가 48.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65~69세(34.3%), 80세 이상(17.5%) 순임
- 혼자 사는 고령자 중 취업자 수는 '15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음

<성별 취업자 수(혼자 사는 고령자)> <연령대별 취업자 비중(혼자 사는 고령자)>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 혼자 사는 고령자 중 취업자 >

(단위: 천명, %, %p)

	2015		2019		2020			
	취업자	비중	취업자	비중	취업자	증감	비중	증감
혼자 사는 고령자	329.7	100.0	427.2	100.0	470.6	43.4	100.0	-
남 자	98.2	29.8	128.1	30.0	146.2	18.1	31.1	1.1
여 자	231.5	70.2	299.1	70.0	324.4	25.3	68.9	-1.1
65~69세	105.9	32.1	143.0	33.5	161.6	18.6	34.3	0.8
70~79세	177.6	53.9	210.8	49.3	226.7	15.9	48.2	-1.1
80세 이상	46.2	14.0	73.4	17.2	82.3	8.9	17.5	0.3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년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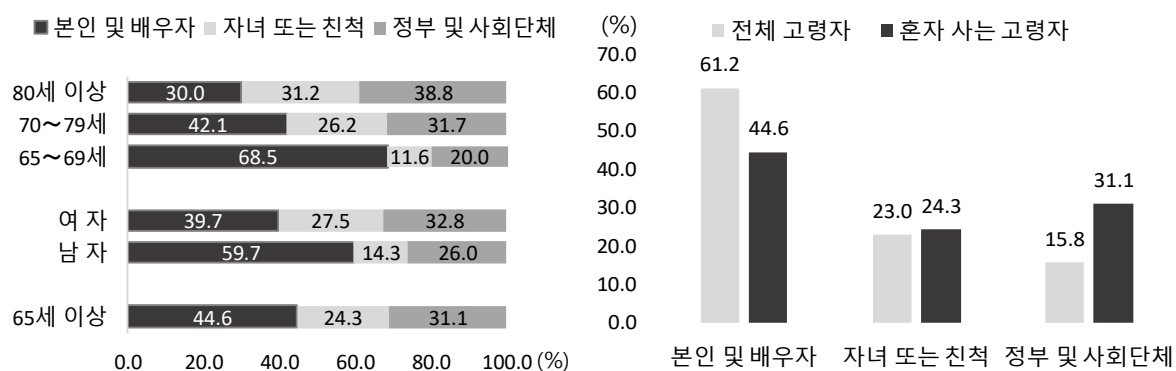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65세 이상 1인 가구를 혼자 사는 고령자로 해석함

8. 생활비 마련 방법

2019년 혼자 사는 고령자 중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사람은 44.6%임

- '19년 혼자 사는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순위는 스스로 마련하는 비중이 44.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정부 및 사회단체(31.1%), 자녀 및 친척(24.3%) 순임
- 본인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은 남자가 여자보다 20%p 이상 높음
- 65~69세의 경우 68.5%가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반면, 80세 이상은 그 비중이 30.0%로 떨어짐
- 혼자 사는 고령자의 경우 정부 및 사회단체의 지원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이 전체 고령자의 2배 수준으로 높음

< 혼자 사는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방법(2019) > < 전체 고령자 .vs. 혼자 사는 고령자(2019)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 혼자 사는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 >

(단위: %)

		계	본인 및 배우자 부담	소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소득	연금, 퇴직 급여	예금	자녀 또는 친척 지원	정부 및 사회단체
혼자 사는 고령자	2015	100.0	41.6	100.0	39.5	12.2	40.2	8.1	31.8	26.6
	2017	100.0	42.8	100.0	41.8	11.1	36.4	10.7	32.6	24.6
	2019	100.0	44.6	100.0	47.4	9.9	32.2	10.5	24.3	31.1
	남 자	100.0	59.7	100.0	50.6	8.7	31.5	9.2	14.3	26.0
	여 자	100.0	39.7	100.0	45.8	10.5	32.5	11.2	27.5	32.8
	65~69세	100.0	68.5	100.0	56.7	5.7	25.3	12.3	11.6	20.0
	70~79세	100.0	42.1	100.0	48.7	12.3	30.8	8.3	26.2	31.7
	80세 이상	100.0	30.0	100.0	28.0	12.1	47.4	12.5	31.2	38.8
전체 고령자(2019)		100.0	61.2	100.0	47.4	12.8	32.1	7.7	23.0	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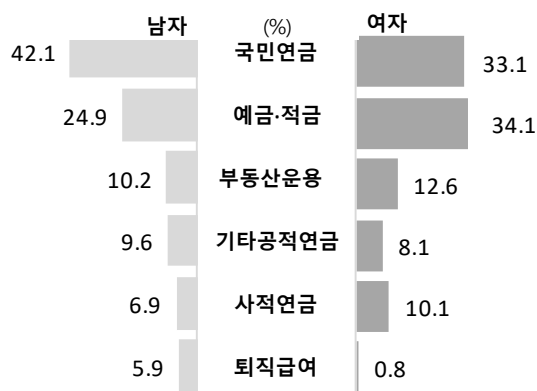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9. 노후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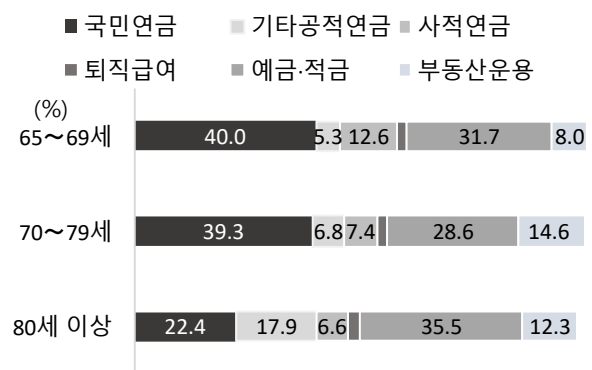
2019년 혼자 사는 고령자 3명 중 1명은 노후 준비를 함

- '19년 혼자 사는 고령자의 33.0%는 노후를 준비하고 있고, 67.0%는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혼자 사는 고령자 중 남자의 43.8%, 여자의 29.6%가 노후 준비를 한다고 응답하여 남자가 여자보다 14.2%p 높음
- 노후 준비 방법은 국민연금이 36.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예금·적금(31.2%), 부동산 운용(11.8%) 순임
- 혼자 사는 고령자는 3명 중 1명이 노후 준비를 하는 반면, 전체 고령자는 2명 중 1명이 노후 준비를 하고 있음

< 성별 노후 준비 여부(2019) >



< 연령별 노후 준비 방법(2019)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 혼자 사는 고령자의 노후 준비 방법 >

(단위: %)

		계	준비 함	소계	국민 연금	기타 ¹⁾ 공적 연금	사적 연금	퇴직 급여	예금 적금	부동산 운용	기타 ²⁾	준비 안함
혼자 사는 고령자	2015	100.0	32.5	100.0	34.3	10.9	8.5	4.1	24.3	15.6	2.3*	67.5
	2017	100.0	32.7	100.0	34.4	11.0	9.0	4.2	29.5	11.9	0.0	67.3
	2019	100.0	33.0	100.0	36.0	8.6	9.1	2.4	31.2	11.8	0.9	67.0
	남	100.0	43.8	100.0	42.1	9.6	6.9	5.9	24.9	10.2	0.3	56.2
	자	100.0	29.6	100.0	33.1	8.1	10.1	0.8	34.1	12.6	1.2	70.4
	여	100.0	50.7	100.0	40.0	5.3	12.6	2.3	31.7	8.0	0.2	49.3
	65~69세	100.0	30.3	100.0	39.3	6.8	7.4	2.3	28.6	14.6	0.8	69.7
	70~79세	100.0	23.6	100.0	22.4	17.9	6.6	3.0	35.5	12.3	2.3	76.4
	80세 이상	100.0	48.6	100.0	31.1	13.0	8.1	4.7	27.9	14.6	0.6*	51.4
전체 고령자(2019)		100.0	48.6	100.0	31.1	13.0	8.1	4.7	27.9	14.6	0.6*	51.4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주: 상대표준오차(RSE) 과대로 '*' 표시함

1)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

2) '주식, 채권 등' 포함

10.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2020년 혼자 사는 고령자 10명 중 3명은 사회 안전에 대해 불안하다고 느낌

- '20년 혼자 사는 고령자의 29.4%는 사회의 전반적인 안전에 대하여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전체 고령자가 느끼는 불안보다 약간 높은 수치임
- 여자가 남자보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사회 안전에 대하여 불안하다고 인식함

< 혼자 사는 고령자의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

(단위: %)

		계	안 전	보 통	불 안
혼자 사는 고령자	2016	100.0	14.2	42.7	43.1
	2018	100.0	16.7	47.4	35.9
	2020	100.0	24.3	46.3	29.4
	남 자	100.0	29.5	43.0	27.5
	여 자	100.0	22.7	47.4	30.0
	65~69세	100.0	24.8	42.6	32.6
	70~79세	100.0	23.3	46.6	30.1
	80세 이상	100.0	25.4	48.4	26.2
전체 고령자(2020)		100.0	23.8	47.4	28.9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 '20년 혼자 사는 고령자가 느끼는 사회의 주된 불안 요인으로는 신종질병이 50.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국가안보(11.7%), 경제적 위험(11.0%) 순임
- 나이가 많을수록 신종질병과 범죄 발생을 사회의 불안 요인으로 인식함
- 신종질병에 대한 불안도는 혼자 사는 고령자가 전체 고령자에 비하여 8.7%p 높음

< 혼자 사는 고령자의 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 요인 >

(단위: %)

		국가 안보	자연 재해	환경 오염	인재	경제적 위험	도덕성 부	신종 질병	범죄 발생	빈부격차로 인한 계층갈등
혼자 사는 고령자	2016	24.7	5.4	4.1	8.9	9.4	5.8	6.9	29.0	4.9
	2018	23.4	11.7	8.4	11.9	8.9	6.1	4.9	19.5	4.9
	2020	11.7	4.2	3.6	6.3	11.0	2.8	50.3	7.6	2.5
	남 자	16.5	3.0	5.8	5.2	16.0	3.8	39.4	6.2	3.9
	여 자	10.2	4.5	2.9	6.6	9.4	2.5	53.7	8.1	2.1
	65~69세	13.6	4.8	5.0	6.4	16.3	3.3	41.4	6.9	2.3
	70~79세	11.6	3.6	3.2	5.9	10.4	2.6	51.9	7.8	3.1
	80세 이상	10.6	4.6	3.1	6.7	8.4	2.8	54.0	8.0	1.9
전체 고령자(2020)		16.6	4.4	5.7	5.3	11.2	4.0	41.6	8.1	3.1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I. 인구 ·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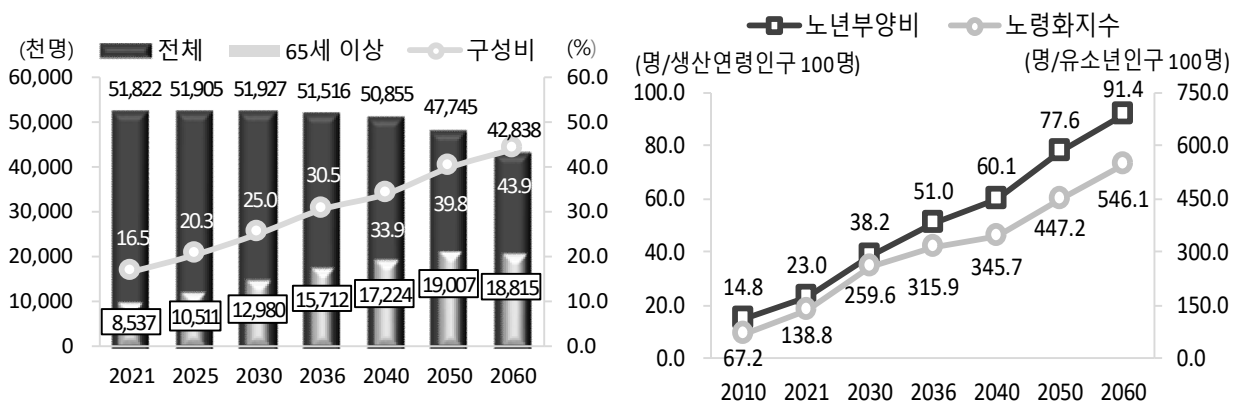
1. 인구 추이

2021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6.5%,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

- '21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6.5%인 853만 7천 명임
 - 고령인구 비중은 계속 증가하여 '25년에는 20.3%로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36년에는 30.5%, '60년에는 43.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고령인구를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21년 23.0명, '36년에는 51명, '60년에는 91.4명으로 전망됨

< 고령인구(65세 이상) 및 구성비 >

<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

< 인구 추이 >

(단위: 천 명, %, 명/생산연령인구 100명, 명/유소년인구 100명)

	총 인구	65세 이상	구성비 ¹⁾	노년부양비 ²⁾	노령화지수 ³⁾
2000	47,008	3,395	7.2	10.1	34.3
2010	49,554	5,366	10.8	14.8	67.2
2019	51,709	7,685	14.9	20.4	119.4
2020	51,781	8,125	15.7	21.7	129.0
2021	51,822	8,537	16.5	23.0	138.8
2025	51,905	10,511	20.3	29.3	189.7
2030	51,927	12,980	25.0	38.2	259.6
2036	51,516	15,712	30.5	51.0	315.9
2040	50,855	17,224	33.9	60.1	345.7
2050	47,745	19,007	39.8	77.6	447.2
2060	42,838	18,815	43.9	91.4	546.1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

주: 1) 구성비 = (고령인구(65세 이상) ÷ 총 인구) × 100

2) 노년부양비 = 고령인구(65세 이상) ÷ 생산연령인구(15~64세) × 100

3) 노령화지수 = 고령인구(65세 이상) ÷ 유소년인구(0~14세) × 100

2021년 고령화 정도는 여자 18.7%, 남자 14.3%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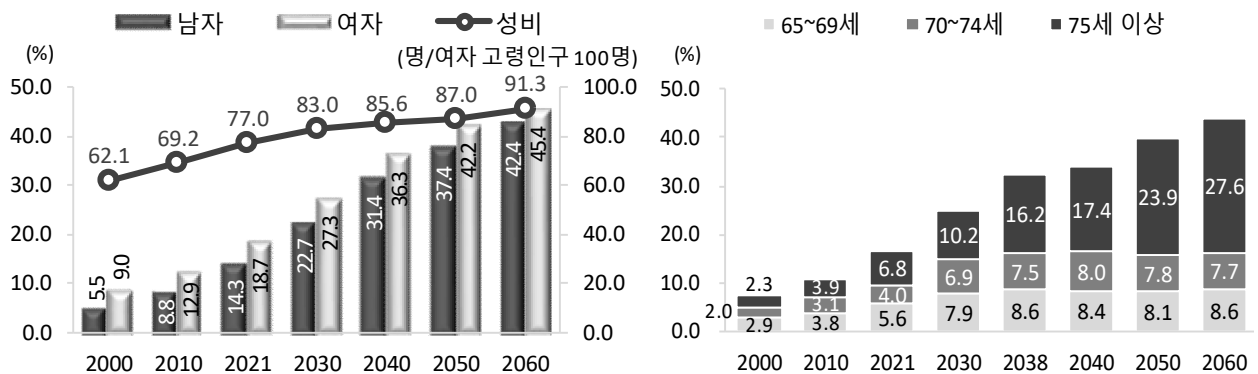
□ 고령화 정도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가 18.7%, 남자가 14.3%로 여자의 고령인구 비중이 남자보다 4.4%p 높음

○ 65세 이상 여자 고령인구 100명당 남자 고령인구는 '21년 77.0명에서 계속 증가하여 '60년 91.3명이 될 것으로 보임

□ 전체 인구의 16.5%인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연령대별 구성비를 보면, 65~69세 5.6%, 70~74세 4.0%, 75세 이상이 6.8%임

○ '21년 65~74세 인구는 499만 1천 명으로 75세 이상 인구보다 144만 5천 명 더 많으나, '38년부터는 75세 이상 인구가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됨

< 성별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 > < 연령대별 고령인구(65세 이상) 구성비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

< 성 및 연령대별 고령인구(65세 이상) >

(단위: 천 명, %, 명/여자 고령인구 100명)

	65세 이상	성별					연령별					
		남자	고령 비중 ¹⁾	여자	고령 비중 ¹⁾	성비 ²⁾	65~69세	구성비 ³⁾	70~74세	구성비 ³⁾	75세 이상	구성비 ³⁾
2000	3,395	1,300	5.5	2,095	9.0	62.1	1,381	2.9	922	2.0	1,091	2.3
2010	5,366	2,194	8.8	3,172	12.9	69.2	1,878	3.8	1,540	3.1	1,948	3.9
2019	7,685	3,300	12.7	4,385	17.0	75.3	2,450	4.7	1,888	3.7	3,346	6.5
2020	8,125	3,513	13.5	4,613	17.9	76.2	2,660	5.1	1,991	3.8	3,475	6.7
2021	8,537	3,713	14.3	4,824	18.7	77.0	2,898	5.6	2,093	4.0	3,546	6.8
2030	12,980	5,889	22.7	7,091	27.3	83.0	4,094	7.9	3,566	6.9	5,319	10.2
2038	16,549	7,620	29.9	8,929	34.7	85.3	4,419	8.6	3,846	7.5	8,283	16.2
2040	17,224	7,942	31.4	9,282	36.3	85.6	4,284	8.4	4,074	8.0	8,866	17.4
2050	19,007	8,841	37.4	10,166	42.2	87.0	3,848	8.1	3,744	7.8	11,415	23.9
2060	18,815	8,980	42.4	9,835	45.4	91.3	3,698	8.6	3,278	7.7	11,838	27.6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

주: 1) 성별 고령비중 = 성별 고령인구(65세 이상) ÷ 성별 인구 × 100

2) 성비 = 남자 고령인구(65세 이상) ÷ 여자 고령인구(65세 이상) × 100

3) 연령별 구성비 = 고령 연령대별 인구 ÷ 총 인구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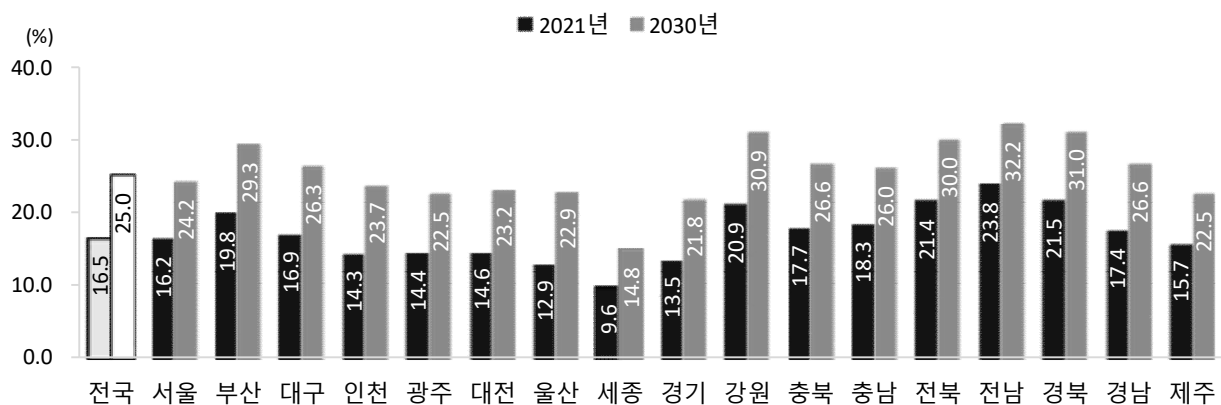
2. 지역별 고령인구

2021년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23.8%),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9.6%)임

□ '21년 고령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인 지역은 전남(23.8%), 경북(21.5%), 전북(21.4%), 강원(20.9%) 4곳임

○ '28년에는 세종(13.6%)을 제외한 우리나라 모든 지역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지역별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시도): 2017~2047」

< 지역별 고령인구(65세 이상) >

(단위: 천 명, %, 위)

	2021	고령인구 비중	순위	2030	고령인구 비중	순위	2040	고령인구 비중	순위	2047	고령인구 비중	순위
전국	8,537	16.5	-	12,980	25.0	-	17,224	33.9	-	18,787	38.4	-
서울	1,549	16.2	10	2,219	24.2	10	2,827	32.4	12	3,048	36.6	12
부산	655	19.8	5	911	29.3	5	1,071	37.1	5	1,099	41.0	6
대구	407	16.9	9	601	26.3	8	759	35.5	8	794	39.7	9
인천	422	14.3	14	718	23.7	11	999	33.0	10	1,113	37.8	10
광주	213	14.4	13	320	22.5	14	427	31.9	14	462	36.6	14
대전	217	14.6	12	334	23.2	12	443	32.0	13	482	36.4	15
울산	147	12.9	16	252	22.9	13	337	32.6	11	358	37.0	11
세종	35	9.6	17	72	14.8	17	126	22.4	17	165	27.8	17
경기	1,823	13.5	15	3,109	21.8	16	4,409	30.6	16	4,937	35.3	16
강원	316	20.9	4	470	30.9	3	614	40.5	3	663	45.0	3
충북	290	17.7	7	445	26.6	7	603	35.9	7	663	40.6	7
충남	406	18.3	6	603	26.0	9	824	34.9	9	927	40.0	8
전북	381	21.4	3	516	30.0	4	652	39.4	4	695	43.9	4
전남	417	23.8	1	552	32.2	1	701	42.0	1	754	46.8	1
경북	570	21.5	2	804	31.0	2	1,019	40.8	2	1,082	45.4	2
경남	582	17.4	8	885	26.6	6	1,167	36.5	6	1,256	41.4	5
제주	106	15.7	11	169	22.5	15	248	31.5	15	287	36.6	13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시도): 2017~20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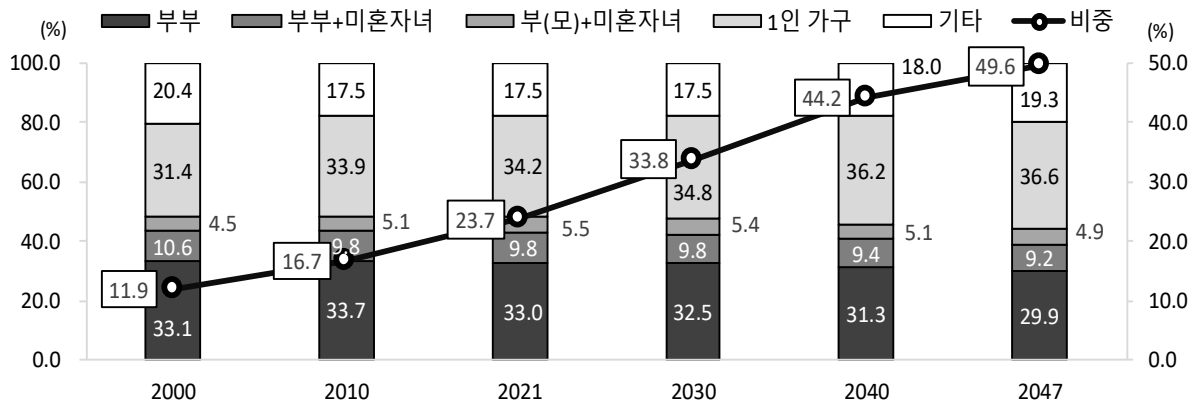
3. 고령자 가구

2021년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3.7%임

□ '21년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488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3.7%임

-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비중은 계속 증가하여 '47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절반(49.6%)이 고령자 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됨
- 가구 유형별로 보면, 1인 가구(34.2%), 부부(33.0%), 부부+미혼자녀(9.8%) 부(모)+미혼자녀(5.5%) 순임

< 고령자 가구 비중 및 가구 유형별 구성비 >



자료: 통계청, 「장래가구특별추계: 2017~2047」

< 고령자 가구 >

(단위: 천 가구, %)

				고령자 가구 유형 및 구성비									
	총가구	고령자 가구 ¹⁾	비중	부부	구성비	부부+미혼자녀	구성비	부(모)+미혼자녀	구성비	1인 가구	구성비	기타	구성비
2000	14,507	1,734	11.9	573	33.1	184	10.6	79	4.5	544	31.4	354	20.4
2005	16,039	2,350	14.7	796	33.9	243	10.3	116	4.9	746	31.7	450	19.1
2010	17,495	2,923	16.7	985	33.7	286	9.8	149	5.1	991	33.9	512	17.5
2015	19,013	3,664	19.3	1,215	33.2	367	10.0	206	5.6	1,203	32.8	674	18.4
2021	20,573	4,880	23.7	1,612	33.0	478	9.8	268	5.5	1,670	34.2	853	17.5
2025	21,342	6,011	28.2	1,967	32.7	594	9.9	328	5.5	2,064	34.3	1,058	17.6
2030	22,036	7,438	33.8	2,420	32.5	729	9.8	400	5.4	2,586	34.8	1,302	17.5
2035	22,497	8,788	39.1	2,821	32.1	842	9.6	459	5.2	3,131	35.6	1,533	17.5
2040	22,651	10,012	44.2	3,136	31.3	943	9.4	510	5.1	3,623	36.2	1,799	18.0
2045	22,456	10,747	47.9	3,251	30.2	990	9.2	533	5.0	3,933	36.6	2,041	19.0
2047	22,303	11,058	49.6	3,302	29.9	1,019	9.2	547	4.9	4,051	36.6	2,139	19.3

자료: 통계청, 「장래가구특별추계: 2017~20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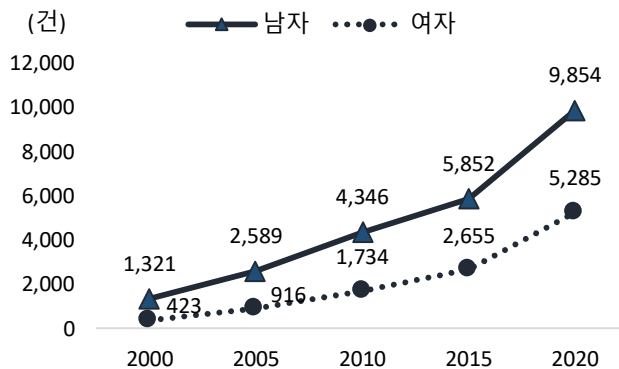
주: 1)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

4. 이혼 및 재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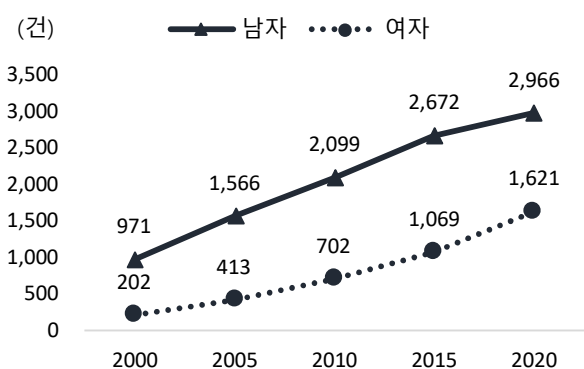
2020년 전체 이혼과 재혼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65세 이상 이혼과 재혼은 증가

- '20년 전체 이혼 건수는 전년 대비 3.9% 감소하였으나 65세 남자와 여자의 이혼은 각각 11.1%, 13.7% 증가함
- 전체 이혼 건수에서 65세 이상 남녀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9.3%, 5.0%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20년 전체 재혼 건수는 남녀 각각 전년 대비 15.7%, 14.5%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65세 이상 남녀의 재혼은 각각 1.4%, 8.5% 증가함

< 이혼(65세 이상) >



< 재혼(65세 이상) >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 이혼편)」

< 이혼 및 재혼 >

(단위: 건, %)

	이혼					재혼			
	전체	65세 이상				남자		여자	
		남자	구성비	여자	구성비	전체	65세 이상	전체	65세 이상
2000	119,455	1,321	1.1	423	0.4	43,370	971	48,132	202
2005	128,035	2,589	2.0	916	0.7	59,662	1,566	66,587	413
2010	116,858	4,346	3.7	1,734	1.5	53,043	2,099	57,451	702
2015	109,153	5,852	5.4	2,655	2.4	46,388	2,672	52,747	1,069
2018	108,684	8,032	7.4	4,148	3.8	41,115	2,759	46,747	1,347
2019	110,831	8,867	8.0	4,647	4.2	39,443	2,926	44,500	1,494
2020	106,500	9,854	9.3	5,285	5.0	33,261	2,966	38,064	1,621
증감률	-3.9	11.1	-	13.7	-	-15.7	1.4	-14.5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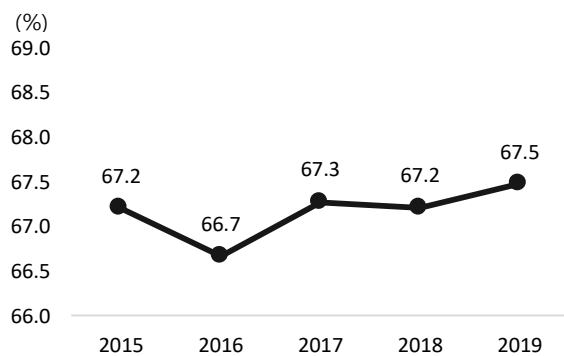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 이혼편)」 각년도

5. 주택소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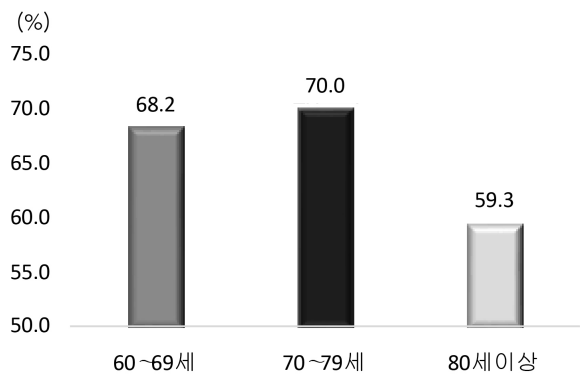
2019년 60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67.5%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 '19년 60세 이상의 가구주 가구 중 67.5%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전년 대비 0.3%p 증가한 수치임
- 70대 가구주 가구의 주택소유율이 70.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60대 (68.2%), 80세 이상(59.3%) 순임
- 60대 가구주 가구의 주택소유율이 '16년까지 70대, 80세 이상 가구주 가구에 비하여 높았으나 '17년 이후 70대 가구주 가구의 주택소유율이 가장 높음

< 주택 소유율 >



< 연령별 주택 소유율(2019) >



자료: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 주택 소유율 >

(단위: %)

	60세 이상	연령별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2015	67.2	69.9	67.8	54.4
2016	66.7	68.9	67.8	54.9
2017	67.3	68.7	69.1	57.2
2018	67.2	68.2	69.4	58.1
2019	67.5	68.2	70.0	59.3

자료: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 주: 1) 주택 소유율 = (주택소유가구 수 ÷ 일반가구 수) × 100. 일반가구 수는 「인구총조사」 자료
 2)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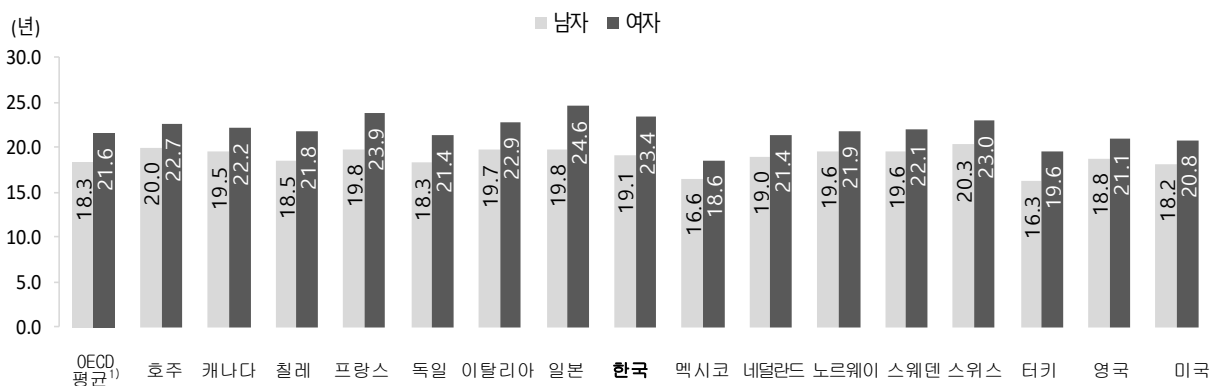
II. 건강

6. 기대여명

2019년 65세 생존자의 기대여명은 21.3년, 75세 생존자의 기대여명은 13.2년임

- '19년 65세 생존자의 기대여명은 21.3년, 75세 생존자의 기대여명은 13.2년으로 전년 대비 각각 0.5년 늘어남
 - 65세 여자의 기대여명은 23.4년으로 남자보다 4.3년, 75세 여자의 기대여명은 14.6년으로 남자보다 3.1년 더 길었음
- '19년 우리나라 65세 생존자의 기대여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임
 - 성별로 보면, 65세 여자의 기대여명은 OECD 평균보다 1.8년 높으며, 남자는 0.8년 더 높음

< OECD 주요 국가의 성별 기대여명(65세, 2019) >



자료: OECD, 「Health Status」 (2021.7.30. 기준)

주: 1) 2019년 자료가 공표된 OECD 36개국의 산술평균임

< 연령별 기대여명^{1) 2)} >

(단위: 년)

	65세				75세			
	전체	남자(A)	여자(B)	차이(B-A)	전체	남자(A)	여자(B)	차이(B-A)
2000	16.4	14.3	18.2	3.9	9.8	8.5	10.7	2.2
2005	17.7	15.5	19.6	4.0	10.6	9.2	11.6	2.4
2010	19.1	16.8	21.2	4.4	11.6	10.0	12.9	2.9
2015	20.3	18.2	22.4	4.2	12.4	10.8	13.7	2.9
2017	20.8	18.6	22.7	4.1	12.7	11.1	14.0	2.9
2018	20.8	18.7	22.8	4.2	12.7	11.1	14.1	2.9
2019	21.3	19.1	23.4	4.3	13.2	11.5	14.6	3.1

자료: 통계청, 「생명표」

주: 1) 연령별 총 생존년수를 연령별 생존자 수로 나누어 산출

2) 16.12.2. 생명표 작성 방법 개선으로 '70~'14년 생명표 수치가 갱신됨

7. 사망원인별 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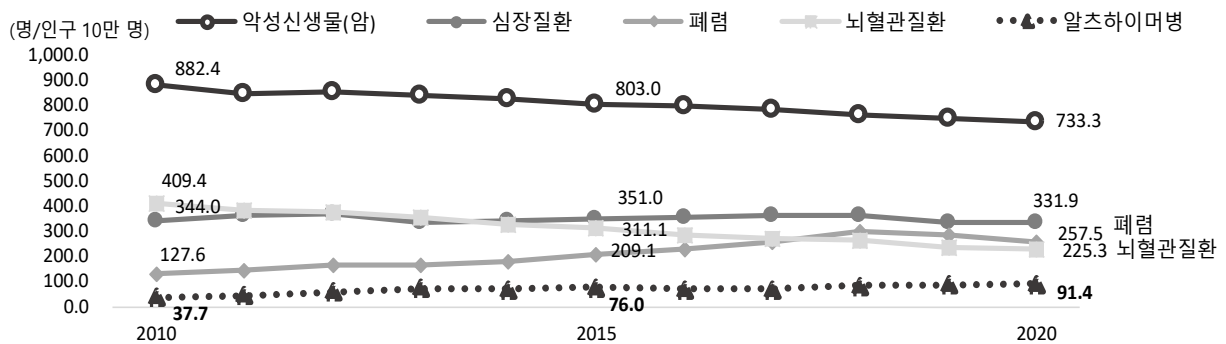
2020년 고령자의 사망원인은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질환, 알츠하이머병 순임

□ '20년 65세 이상 고령자 10만 명당 사망원인은 악성신생물(암)(733.3명), 심장질환(331.9명), 폐렴(257.5명), 뇌혈관질환(225.3명) 순임

○ 악성신생물(암),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사망은 계속 증가하여, '20년 처음으로 고령자 사망원인 5위로 나타남

○ 고령자의 사망률은 전체 인구 사망률과 비교하여 악성신생물(암) 4.6배, 심장질환 5.3배, 폐렴 5.9배, 뇌혈관질환 5.3배, 알츠하이머병 6.2배 수준임

< 고령자(65세 이상) 사망률 >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 사망원인별 사망률¹⁾²⁾ >

(단위: 명/인구 10만 명)

		2000	2010	2015	2019	2020
전체인구	1순위	악성신생물(암) (122.4)	악성신생물(암) (144.4)	악성신생물(암) (150.8)	악성신생물(암) (158.2)	악성신생물(암) (160.1)
	2순위	뇌혈관질환 (73.6)	뇌혈관질환 (53.2)	심장질환 (55.6)	심장질환 (60.4)	심장질환 (63.0)
	3순위	심장질환 (38.7)	심장질환 (46.9)	뇌혈관질환 (48.0)	폐렴 (45.1)	폐렴 (43.3)
	4순위	간질환 (23.0)	고의적 자해(자살) (31.2)	폐렴 (28.9)	뇌혈관질환 (42.0)	뇌혈관질환 (42.6)
	5순위	당뇨병 (22.7)	당뇨병 (20.7)	고의적 자해(자살) (26.5)	고의적 자해(자살) (26.9)	고의적 자해(자살) (25.7)
고령인구 (65세 이상)	1순위	악성신생물(암) (937.3)	악성신생물(암) (882.4)	악성신생물(암) (803.0)	악성신생물(암) (750.5)	악성신생물(암) (733.3)
	2순위	뇌혈관질환 (789.9)	뇌혈관질환 (409.4)	심장질환 (351.0)	심장질환 (335.7)	심장질환 (331.9)
	3순위	심장질환 (363.5)	심장질환 (344.0)	뇌혈관질환 (311.1)	폐렴 (283.1)	폐렴 (257.5)
	4순위	당뇨병 (220.0)	당뇨병 (153.1)	폐렴 (209.1)	뇌혈관질환 (232.0)	뇌혈관질환 (225.3)
	5순위	만성하기도질환 (210.3)	폐렴 (127.6)	당뇨병 (133.2)	당뇨병 (87.1)	알츠하이머병 (91.4)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주: 1) 심장질환은 허혈성 심장질환과 기타 심장질환을 포함

2) 만성하기도 질환은 기관지염, 천식, 폐기종 등 만성적으로 호흡에 장애를 주는 폐질환의 총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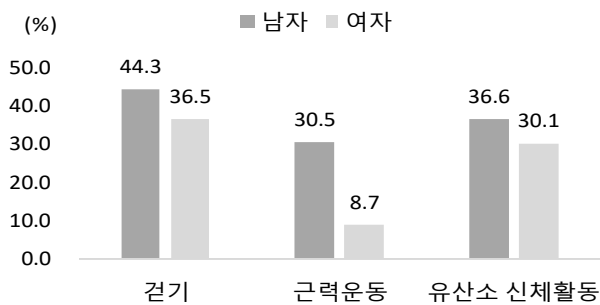
8. 운동 실천율

2019년 고령자 운동별 실천율은 걷기 39.9%, 유산소 신체활동 33.0%, 근력운동 18.3% 순

□ '19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운동별 실천율은 걷기(39.9%), 유산소 신체활동(33.0%), 근력운동(18.3%) 순이고, 유산소 신체활동과 걷기 실천율은 전년 대비 각각 4.9%p, 2.6%p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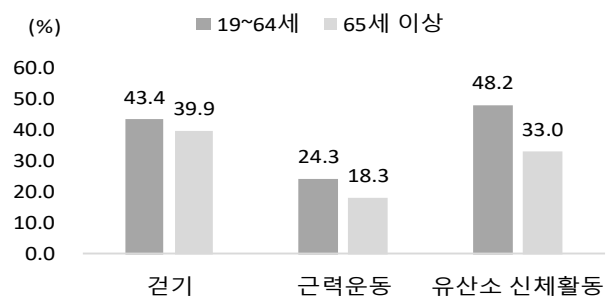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자의 운동 실천율이 여자보다 모든 항목에서 높았으며, 근력운동(21.8%p) > 걷기(7.8%p) > 유산소 신체활동(6.5%p) 순으로 격차가 큼
- 65세 이상 고령자는 저 연령층(19~64세) 대비 운동 실천율이 낮았으며, 유산소 신체활동(15.2%p) > 근력운동(6.0%p) > 걷기(3.5%p) 순의 격차를 보임

< 성별 운동 실천율(2019) >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 연령대별 운동 실천율(2019) >



< 고령자(65세 이상) 운동 실천율 >

(단위: %)

	걷기 실천율 ¹⁾			근력운동 실천율 ²⁾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³⁾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2005	54.6	60.0	51.0	6.1	12.6	1.8	-	-	-
2008	49.9	60.2	42.8	9.9	19.7	3.3	-	-	-
2010	39.8	44.2	36.6	11.9	20.6	5.8	-	-	-
2016	35.4	39.0	32.7	15.2	24.7	8.4	34.4	43.4	27.9
2017	35.7	42.2	30.8	17.5	28.8	9.0	29.4	32.6	26.9
2018	37.3	46.1	30.8	18.3	30.3	9.5	28.1	33.4	24.3
2019	39.9	44.3	36.5	18.3	30.5	8.7	33.0	36.6	30.1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주: 1) 최근 1주일 동안 걷기를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2) 최근 1주일 동안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아령, 역기, 철봉 등의 근력운동을 2일 이상 실천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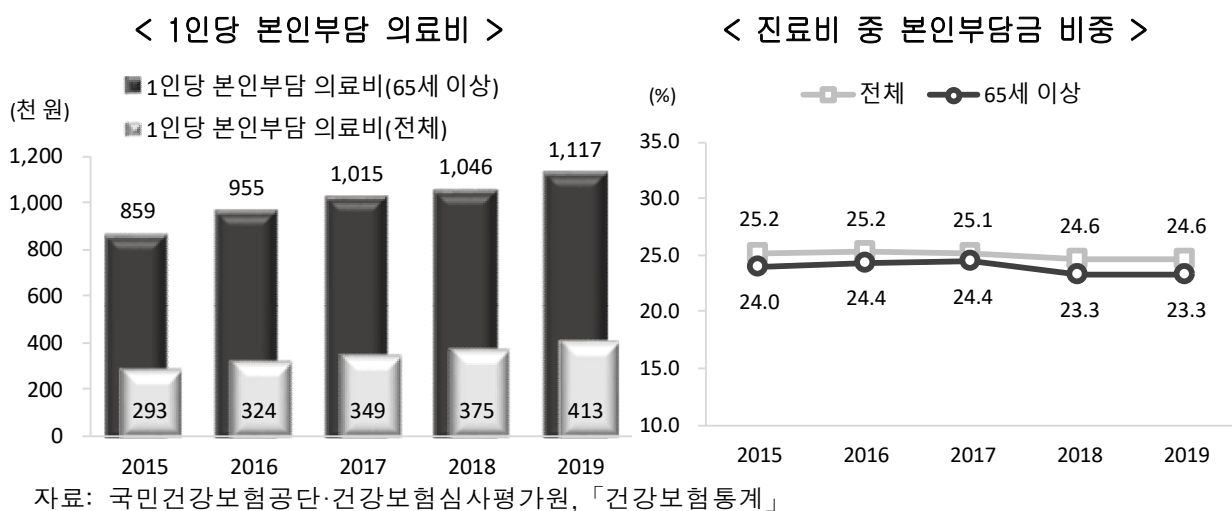
3) 일주일에 중강도 신체활동을 2시간 3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1시간 15분 이상 또는 중강도와 고강도 신체활동을 섞어서(고강도 1분은 중강도 2분) 각 활동에 상당하는 시간을 실천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 고강도 신체활동: 격렬한 신체활동으로 숨이 많이 차거나 심장이 매우 빠르게 뛰는 활동
- 중강도 신체활동: 중간 정도의 신체활동으로 숨이 약간 차거나 심장이 약간 빠르게 뛰는 활동

9. 본인부담 의료비

2019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진료비는 479만 6천 원, 1인당 본인부담 의료비는 111만 7천 원임

- '19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건강보험 상 1인당 진료비는 479만 6천 원, 본인부담 의료비는 111만 7천 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30만 9천 원, 7만 1천 원 증가함
- 고령자의 1인당 진료비 및 본인부담 의료비는 전체 인구와 비교했을 때, 각각 2.9배, 2.7배 수준임
- '19년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중은 전년과 동일하며, 고령자(23.3%)가 전체 인구(24.6%)보다 1.3%p 낮았음



< 1인당 진료비 및 본인부담 의료비 >

(단위: 억 원, 천 원, %)

	전체					65세 이상				
	진료비 ¹⁾ (A)	1인당 진료비 ²⁾	본인 부담금 (B)	1인당 본인 부담금 ³⁾	본인 부담금 비중 ⁴⁾	진료비 ¹⁾ (A)	1인당 진료비 ²⁾	본인 부담금 (B)	1인당 본인 부담금 ³⁾	본인 부담금 비중 ⁴⁾
2011	462,379	938	116,727	237	25.2	153,893	2,968	35,805	691	23.3
2012	478,392	963	121,246	244	25.3	164,494	3,008	38,553	705	23.4
2013	509,262	1,019	128,458	257	25.2	180,852	3,151	42,578	742	23.5
2014	549,639	1,092	137,534	273	25.0	199,687	3,326	47,074	784	23.6
2015	587,869	1,164	148,147	293	25.2	222,361	3,573	53,426	859	24.0
2016	651,844	1,284	164,532	324	25.2	252,692	3,921	61,583	955	24.4
2017	707,525	1,389	177,772	349	25.1	283,247	4,162	69,074	1,015	24.4
2018	779,104	1,526	191,614	375	24.6	318,235	4,487	74,183	1,046	23.3
2019	861,110	1,676	212,228	413	24.6	357,925	4,796	83,351	1,117	23.3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

주: 1)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환자 진료에 소요된 비용으로 공단부담금 및 환자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임

2) 1인당 진료비 = 진료비 ÷ 건강보험 적용인구(연도 말 기준)

3) 1인당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적용인구(연도 말 기준)

4) 본인부담금 비중 = 본인부담금(B) ÷ 진료비(A)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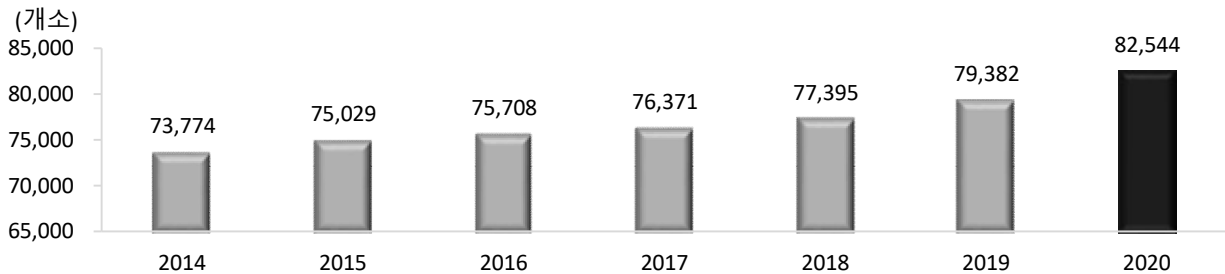
10. 노인 복지시설

2020년 노인 복지시설은 8만 2,544개소로 전년 대비 4.0% 증가함

□ '20년 노인 복지시설 수는 8만 2,544개소로 전년 대비 4.0% 증가함

- 노인 복지시설 수는 인구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재가노인 복지시설은 전년 대비 2,391개소(49.6%) 증가한 반면, 노인주거 복지시설은 30개소(7.9%) 감소함
- 노인주거복지시설은 계속 감소추세이나, 다른 노인 복지시설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증가세가 가장 큼

< 노인 복지시설 수 >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 복지시설 현황」

< 노인 복지시설 수 >

(단위: 개소)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총계		73,774	75,029	75,708	76,371	77,395	79,382	82,544
노인 주거 복지시설	소계	443	427	425	404	390	382	352
	양로시설	272	265	265	252	238	232	209
	노인공동생활가정	142	131	128	119	117	115	107
	노인복지주택	29	31	32	33	35	35	36
노인 의료 복지시설	소계	4,841	5,063	5,163	5,242	5,287	5,529	5,725
	노인요양시설	2,707	2,933	3,136	3,261	3,390	3,595	3,84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134	2,130	2,027	1,981	1,897	1,934	1,881
노인 여가 복지시설	소계	65,665	66,292	66,787	67,324	68,013	68,413	69,005
	노인복지관	344	347	350	364	385	391	398
	경로당	63,960	64,568	65,044	65,604	66,286	66,737	67,316
	노인교실	1,361	1,377	1,393	1,356	1,342	1,285	1,291
재가노인 복지시설 ¹⁾	소계	2,797	3,089	3,168	3,216	3,494	4,821	7,212
	방문요양서비스	992	1,021	1,009	1,001	1,051	1,513	2,656
	주야간보호서비스	913	1,007	1,086	1,174	1,312	1,816	2,321
	단기보호서비스	96	112	95	80	73	78	73
	방문목욕서비스	588	617	588	609	650	942	1,596
	방문간호서비스 ²⁾	-	-	-	10	21	60	95
	복지옹구지원서비스 ³⁾	-	-	-	-	-	0	86
	재가노인지원서비스	208	332	390	342	387	412	385
노인보호전문기관		28	29	29	32	33	34	35
노인일자리지원기관 ⁴⁾		0	129	136	153	160	184	196
학대피해노인쉼터 ⁵⁾		-	-	-	-	18	19	19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 복지시설 현황」

주: 1) 두 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병행하는 시설은 각 서비스마다 1개소로 집계함

2)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신설('16.7.1.)

3)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신설('19.12.12.)

4)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신설('13.1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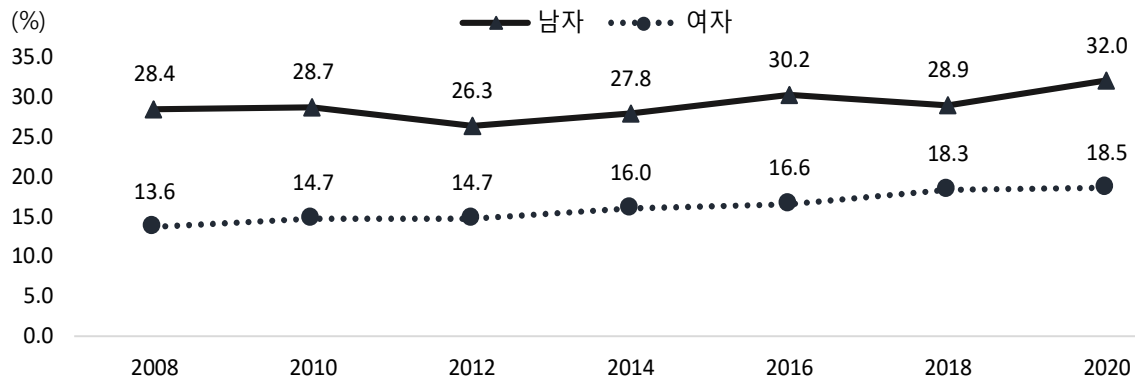
5)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신설('19.2.7.)

11. 주관적 건강평가

2020년 65세 이상 고령자 중 건강이 좋다는 응답한 비중은 24.3%임

- '20년 65세 이상 고령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좋다고 응답한 비중은 24.3%이고, 2년 전에 비해 1.5%p 증가함
- 건강이 좋다고 응답한 남자는 32.0%, 여자는 18.5%로 남자가 여자보다 13.5%p 더 높았음
 - 건강이 좋다고 응답한 비중은 10년 전에 비해 남자는 3.3%p, 여자는 3.8%p 더 높음

< 주관적 건강상태 “ 좋음 ” (65세이상)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 주관적 건강평가(65세 이상)¹⁾ >

(단위: %)

	계	좋다	매우좋다	좋은 편이다	보통이다	나쁘다	나쁜 편이다	매우 나쁘다
2012	100.0	19.5	3.2	16.3	31.1	49.4	38.4	11.0
2014	100.0	20.9	2.7	18.2	31.4	47.7	38.4	9.4
2016	100.0	22.3	3.1	19.2	34.2	43.5	35.5	7.9
2018	100.0	22.8	2.5	20.3	33.6	43.5	35.1	8.4
2020	100.0	24.3	3.0	21.3	37.3	38.4	33.2	5.2
남자	100.0	32.0	4.0	28.0	36.8	31.2	27.5	3.7
여자	100.0	18.5	2.3	16.2	37.6	43.9	37.6	6.3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주: 1)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좋은 편이다' 또는 '매우 좋다'는 응답자의 비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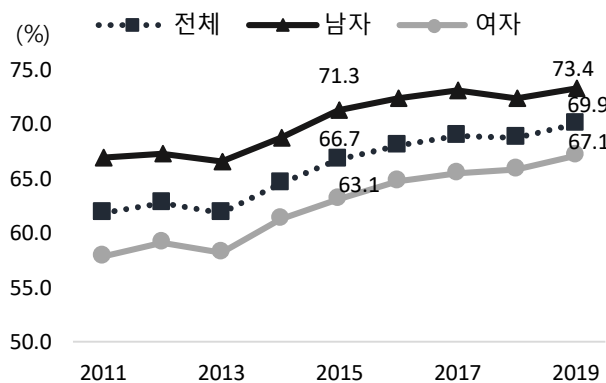
12. 건강검진 수검률

2019년 65세 이상 건강검진 수검률은 69.9%로 2013년 이후 계속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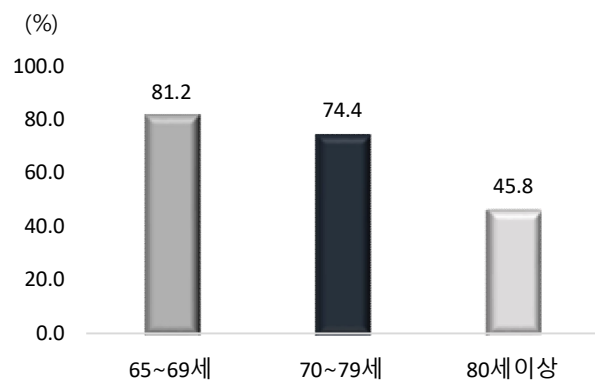
□ '19년 65세 이상 건강검진 수검률은 69.9%로 '13년 이후 계속 증가함

- 남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73.4%로 여자(67.1%)보다 6.3%p 높았음
- 연령별 건강검진 수검률은 65~69세가 81.2%로 가장 높았고, 70~79세 74.4%, 80세 이상 45.8% 순임

< 건강검진 수검률 >



< 연령별 건강검진 수검률(2019)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

< 건강검진 수검률¹⁾ >

(단위: %)

	65세이상			65~69세			70~79세			80세이상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2010	58.0	63.4	53.9	73.3	74.2	72.4	60.5	64.0	57.8	30.7	39.0	26.8
2011	61.8	67.0	57.8	77.2	78.3	76.0	65.0	67.8	62.9	35.4	44.0	31.4
2012	62.7	67.3	59.2	76.2	76.3	76.0	66.5	69.0	64.6	37.3	45.8	33.3
2013	61.9	66.6	58.3	76.5	76.7	76.3	66.0	68.3	64.2	37.3	45.3	33.5
2014	64.6	68.8	61.3	78.3	78.4	78.1	68.7	70.5	67.3	40.8	48.4	37.1
2015	66.7	71.3	63.1	80.3	80.6	80.0	70.9	73.1	69.1	42.7	50.9	38.6
2016	68.1	72.3	64.7	81.8	81.8	81.8	72.6	74.2	71.2	44.5	52.7	40.2
2017	68.9	73.2	65.4	83.0	83.1	82.9	73.6	75.3	72.1	45.5	53.7	41.0
2018	68.8	72.4	65.8	80.2	79.6	80.8	72.4	74.1	71.0	43.5	52.0	38.9
2019	69.9	73.4	67.1	81.2	80.6	81.8	74.4	75.6	73.4	45.8	54.1	41.1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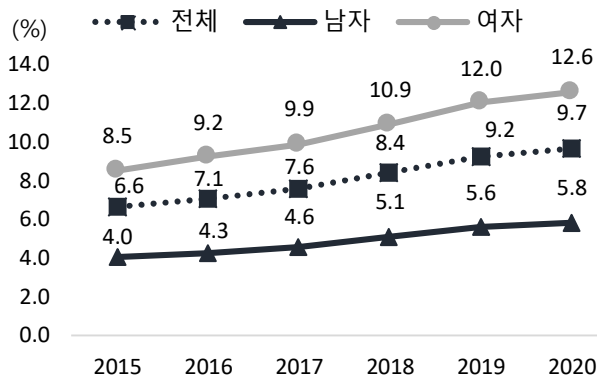
주: 1) 건강검진수검률 = (1차검진 수검인원 ÷ 1차검진 대상인원) × 100

13. 장기요양인정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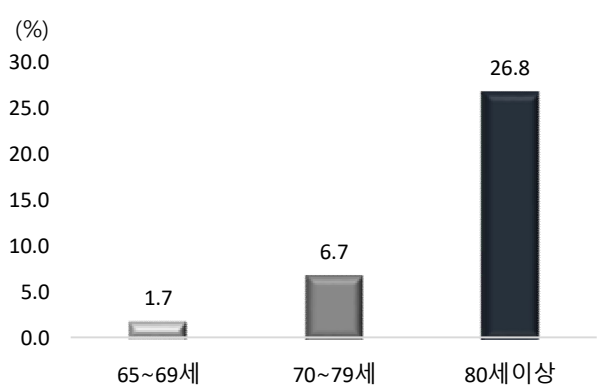
2020년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자 비중은 9.7%로 전년 대비 0.5%p 증가함

- '20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장기요양인정자 비중은 9.7%로 전년 대비 0.5%p 증가함
-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자 비중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계속 증가하여 있음
- 성별 장기요양인정자 비중은 여자가 12.6%로 남자(5.8%)의 2.2배 수준임
- 장기요양인정자 비중은 나이가 많을수록 높아져 80세 이상은 26.8%임

< 장기요양인정자 비중 >



< 연령별 장기요양인정자 비중(2020)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 장기요양인정자 비중¹⁾²⁾³⁾ >

(단위: %)

	65세이상			65~69세			70~79세			80세이상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2015	6.6	4.0	8.5	1.3	1.3	1.3	5.0	3.7	5.9	18.7	11.5	21.8
2016	7.1	4.3	9.2	1.4	1.4	1.4	5.1	3.8	6.2	20.0	12.2	23.5
2017	7.6	4.6	9.9	1.4	1.5	1.4	5.3	3.9	6.4	21.6	13.2	25.5
2018	8.4	5.1	10.9	1.5	1.6	1.5	5.7	4.3	6.9	23.6	14.6	27.9
2019	9.2	5.6	12.0	1.7	1.7	1.6	6.3	4.7	7.7	25.4	15.8	30.1
2020	9.7	5.8	12.6	1.7	1.8	1.6	6.7	4.9	8.2	26.8	16.7	31.9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주: 1) 장기요양인정자 비중 =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자 수 ÷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인구) × 100

2) 장기요양인정자는 장기요양등급 판정 대상자 중 1~5등급 판정자와 인지지원등급 판정자임

3) 인지지원등급은 2018년에 신설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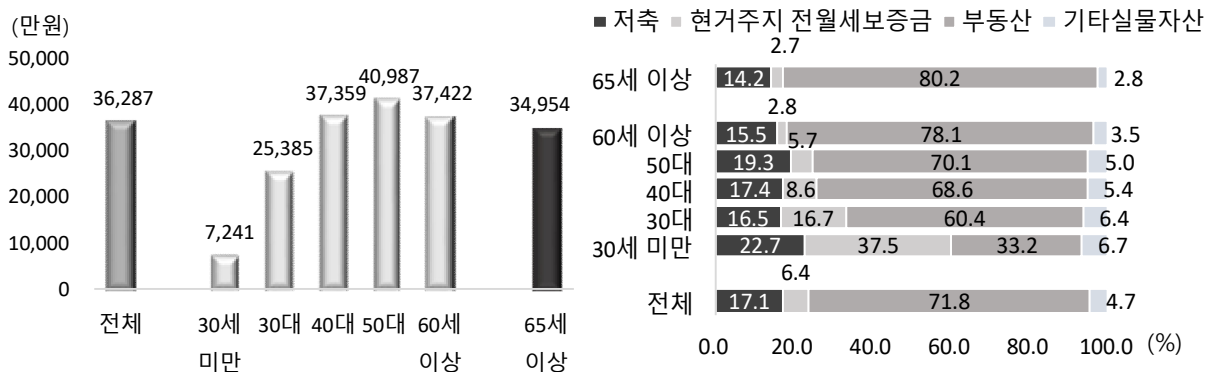
III. 소득보장

14. 자산 소유액 및 구성

2020년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순자산액은 전년 대비 1천 383만 원 증가한 3억 4,954만 원임

- '20년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순자산액은 3억 4,95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천 383만 원 증가함
-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순자산액은 전체 가구의 96.3% 수준이며, 순자산액이 가장 높은 50대의 85.3% 수준임
-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경우 부동산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2%로 가장 높으며, 저축의 비중은 14.2%로 타 연령대에 비하여 낮은 편임

<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 순자산(2020) > <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 자산 구성비(2020) >



자료: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 고령자(65세 이상) 가구 자산 소유액 및 구성¹⁾ >

(단위: 만 원)

	순자산 ²⁾	자산	금융자산	저축액	현거주지 전월세 보증금	실물자산	부동산	기타 실물자산	부채	금융부채	임대 보증금
2013	25,769	28,951	4,337	3,519	818	24,614	23,812	803	3,182	1,659	1,523
2014	26,365	29,720	4,422	3,664	758	25,298	24,175	1,123	3,355	1,705	1,650
2015	27,961	31,732	4,864	4,030	833	26,868	25,959	909	3,771	1,990	1,781
2016	29,636	33,627	5,176	4,335	841	28,451	27,441	1,010	3,991	2,064	1,928
2017	30,767	34,946	5,671	4,766	905	29,274	28,241	1,034	4,179	2,236	1,943
2018	33,676	37,787	6,207	5,318	889	31,580	30,236	1,344	4,111	2,232	1,879
2019	33,571	37,830	6,191	5,250	941	31,638	30,384	1,255	4,259	2,312	1,947
2020	34,954	39,426	6,688	5,618	1,070	32,738	31,632	1,106	4,472	2,388	2,084

자료: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주: 1) 조사년도 3월 31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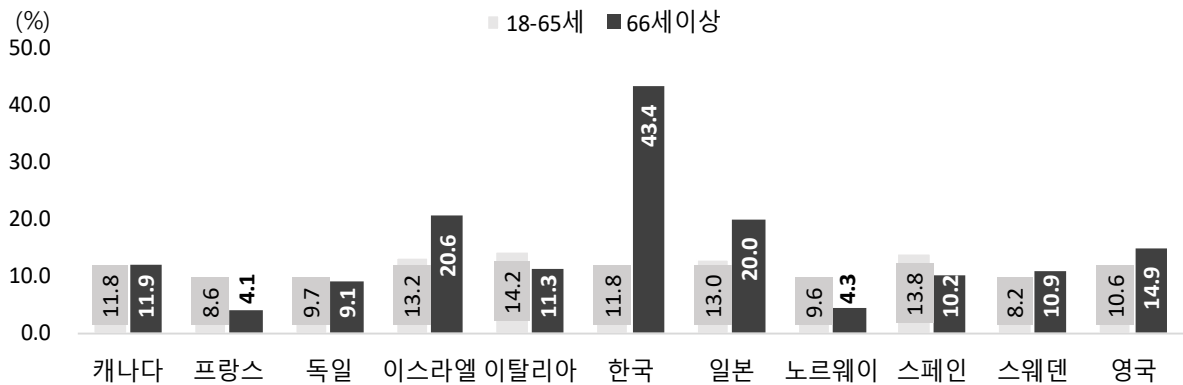
2) 순자산 = 자산 - 부채

15. 은퇴연령층 빈곤율

2019년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소득 분배지표는 2016년 이후 개선되고 있음

- '19년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소득 분배지표는 상대적 빈곤율 43.2%, 지니계수 0.389, 소득 5분위 배율 7.21배로 '16년 이후 모든 지표에서 소득 분배 정도가 개선되고 있으나,
- '18년 기준 우리나라 은퇴연령층(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은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OECD 주요 국가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 2018) >



자료: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2021.8.3.)

주: OECD 주요 국가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8년 기준임

< 노인빈곤율¹⁾ >

(단위: %, 배)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 ²⁾		지니계수 ³⁾		소득 5분위 배율 ⁴⁾	
	18~65세 (근로연령인구)	66세 이상 (은퇴연령인구)	18~65세 (근로연령인구)	66세 이상 (은퇴연령인구)	18~65세 (근로연령인구)	66세 이상 (은퇴연령인구)
2012	13.9	47.0	0.369	0.458	7.13	11.48
2013	13.8	47.7	0.357	0.453	6.74	11.23
2014	13.7	46.0	0.348	0.450	6.49	10.73
2015	12.9	44.3	0.337	0.427	6.09	9.27
2016	12.9	45.0	0.338	0.425	6.12	9.05
2017	12.6	44.0	0.337	0.419	6.09	8.82
2018	11.8	43.4	0.325	0.406	5.67	7.94
2019	11.1	43.2	0.317	0.389	5.40	7.21

자료: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주: 1)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 처분가능소득(시장소득 + 공적 이전소득* - 공적 이전지출**)을 균등화한 소득

* 공적 이전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등

** 공적 이전지출: 세금, 공적연금 기여금·사회보험료 등

2) 중위소득 50%(빈곤선) 이하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3)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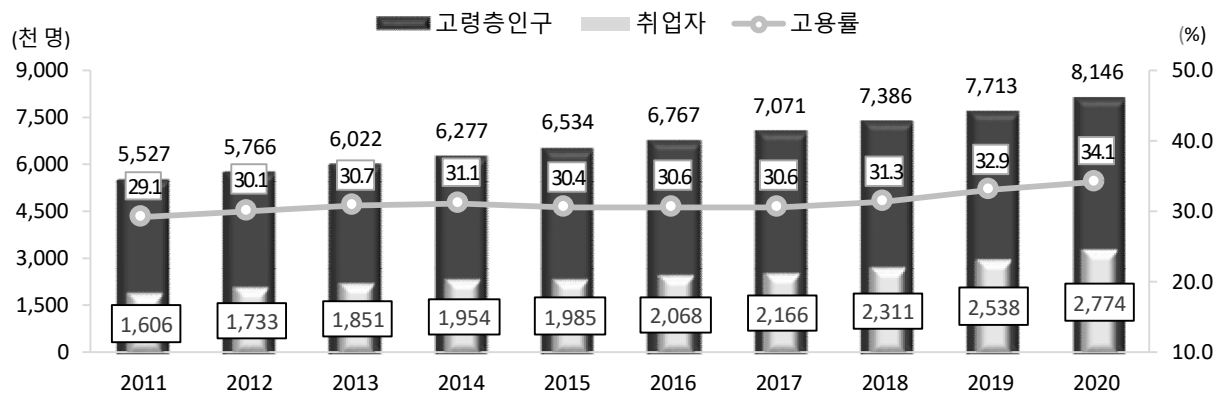
4) 소득 상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을 소득 하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

16. 고용률

2020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34.1%, 실업률은 3.6%임

- '20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34.1%로 전년(32.9%) 대비 1.2%p 상승함
 - 고령자의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전체 고용률(60.1%)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15년 이후 상승 추세에 있음
 - 고령자의 실업률은 '18년까지 3% 미만을 유지하였으나, '20년에는 전년 대비 0.4%p 상승한 3.6%임

< 고령자(65세 이상)의 취업 현황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고령자(65세 이상)의 경제활동 현황 >

(단위: 천 명, %)

	고령총인구	경제활동인구		고용률 ¹⁾	실업률 ²⁾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2011	5,527	1,642	1,606	29.1	2.2
2012	5,766	1,770	1,733	30.1	2.1
2013	6,022	1,879	1,851	30.7	1.5
2014	6,277	1,995	1,954	31.1	2.1
2015	6,534	2,034	1,985	30.4	2.4
2016	6,767	2,116	2,068	30.6	2.3
2017	7,071	2,228	2,166	30.6	2.8
2018	7,386	2,381	2,311	31.3	2.9
2019	7,713	2,622	2,538	32.9	3.2
2020	8,146	2,879	2,774	34.1	3.6
전체 ³⁾ (2020년)	44,785	28,012	26,904	60.1	4.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1) 고용률 = 고령자(65세 이상) 취업자 수 ÷ 고령자(65세 이상) 인구 × 100

2) 실업률 = 고령자(65세 이상) 실업자 수 ÷ 고령자(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 100

3) 15세 이상 인구임

- **(산업별 취업자)** '20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산업별 취업자 비중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43.2%), 농림어업(25.1%), 도소매·음식숙박업(14.1%) 순임
- 전체 취업자보다 고령층의 종사 비중이 높은 산업은 농림어업, 사업·개인·공공 서비스 및 기타임

< 고령자(65세 이상)의 산업별¹⁾ 취업자 분포 >

(단위: 천 명, %)

	취업자	소계	농림어업	광·제조업	제조업	사회 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 숙박업	사업·개인· 공공 서비스 및 기타	전기·운수· 통신· 금융업
2016	2,068	100.0	28.4	6.2	6.2	65.4	3.3	16.6	38.4	7.1
2017	2,166	100.0	27.4	6.8	6.6	65.8	3.3	16.1	39.7	6.7
2018	2,311	100.0	27.4	6.7	6.6	65.9	3.6	15.4	39.9	7.1
2019	2,538	100.0	25.6	6.4	6.3	68.0	3.7	14.6	42.8	7.0
2020	2,774	100.0	25.1	6.1	6.0	68.9	3.9	14.1	43.2	7.7
전체 ²⁾ (2020년)	26,094	100.0	5.4	16.3	16.3	78.3	7.5	21.0	38.0	11.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1)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2017년) 기준임

2) 15세 이상 전체 취업자 대상임

- **(직업별 취업자)** '20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직업별 취업자 비중은 단순노무 종사자(36.0%), 농림어업 숙련종사자(24.2%), 서비스·판매 종사자(17.5%), 기능·기계조작 종사자(13.5%) 순임

- 전체 취업자와 비교하면, 단순노무 종사자와 농림어업 숙련종사자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관리자·전문가 및 사무 종사자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음

< 고령자(65세 이상)의 직업별¹⁾ 취업자 분포 >

(단위: 천 명, %)

	취업자	소계	관리자 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기능· 기계조작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2016	2,068	100.0	4.5	2.6	16.8	26.8	12.8	36.5
2017	2,166	100.0	4.8	2.5	17.0	25.9	12.7	37.0
2018	2,311	100.0	5.1	3.0	17.0	26.0	13.2	35.7
2019	2,538	100.0	5.5	3.0	17.7	24.6	13.5	35.8
2020	2,774	100.0	5.3	3.4	17.5	24.2	13.5	36.0
전체 ²⁾ (2020년)	26,094	100.0	21.8	17.4	22.1	5.1	19.7	13.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1) 한국표준직업분류 7차 개정(2018년)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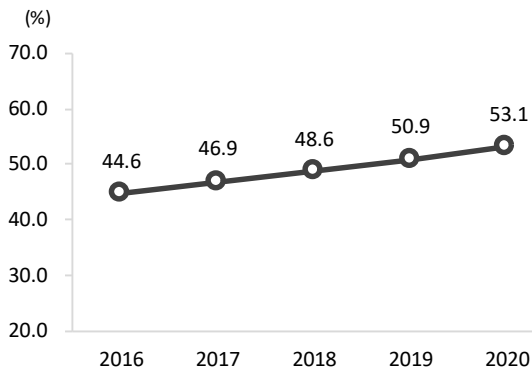
2) 15세 이상 전체 취업자 대상임

17. 공적연금 수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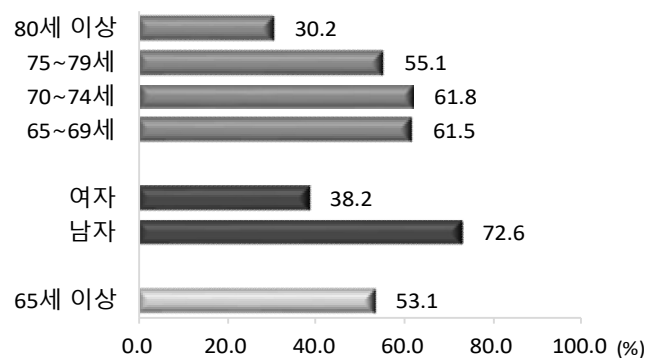
2020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53.1%는 공적연금을 받고 있음

- 65세 이상 고령자의 공적연금 수급률은 매년 증가하여, '20년에는 전체 고령자의 53.1%가 공적연금을 받고 있음
- 여자의 공적연금 수급률은 남자(72.6%)의 약 53% 수준임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74세의 연금 수급률이 61.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65~69세(61.5%), 75~79세(55.1%), 80세 이상(30.2%) 순임

< 공적연금 수급률 >



< 성 및 연령별 공적연금 수급률(2020) >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통계집」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 국방부, 「군인연금통계연보」

< 공적연금 수급률(65세 이상) >

(단위: %, 명)

	공적연금 수급률 ¹⁾	공적연금 수급자 수 ²⁾	국민연금	구성비	공무원연금	구성비	사학연금	구성비	군인연금	구성비
2016	44.6	3,015,710	2,664,358	88.3	256,695	8.5	41,736	1.4	52,921	1.8
2017	46.9	3,313,618	2,936,683	88.6	279,524	8.4	42,508	1.3	54,903	1.7
2018	48.6	3,584,900	3,180,045	88.7	300,037	8.4	47,084	1.3	57,734	1.6
2019	50.9	3,914,457	3,478,558	88.9	323,430	8.3	52,326	1.3	60,143	1.5
2020	53.1	4,315,019	3,842,189	89.0	351,922	8.2	58,749	1.4	62,159	1.4
남자	72.6	2,550,846	2,212,516	86.7	252,006	9.9	43,786	1.7	42,538	1.7
여자	38.2	1,764,173	1,629,673	92.4	99,916	5.7	14,963	0.8	19,621	1.1
65~69세	61.5	1,636,608	1,475,061	90.1	122,097	7.5	23,846	1.5	15,604	1.0
70~74세	61.8	1,229,798	1,112,513	90.5	91,567	7.4	14,619	1.2	11,099	0.9
75~79세	55.1	881,907	794,671	90.1	65,338	7.4	10,375	1.2	11,523	1.3
80세 이상	30.2	566,706	459,944	81.2	72,920	12.9	9,909	1.7	23,933	4.2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통계집」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 국방부, 「군인연금통계연보」

주: 1) 공적연금 수급률 = 공적연금 수급자 수(65세 이상) ÷ 고령 인구(65세 이상) × 100
 고령 인구는 2017년 기준 추계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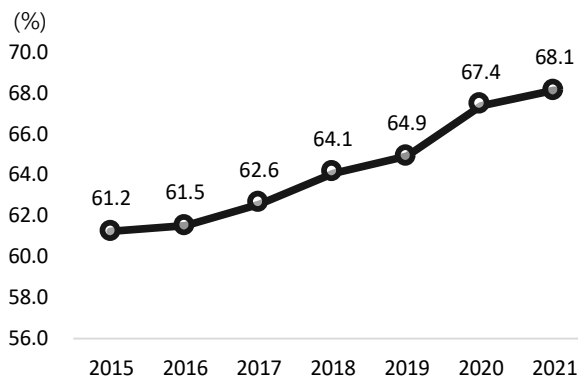
2) 각 연금별 노령(퇴직, 퇴역)연금 및 장애(장해, 상이)연금, 유족(퇴직 유족)연금 수급자 수의 합계임

18. 취업 의사 및 취업을 원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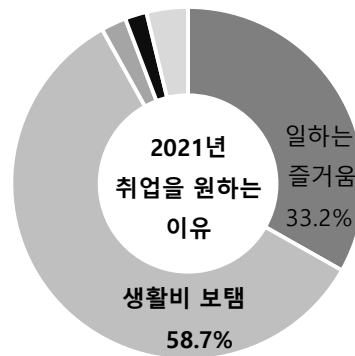
2021년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55~79세 고령자는 68.1%이고, 근로 희망 사유는 생활비 보탬이 가장 많았음

- '21년 55~79세 고령자 중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비중은 68.1%로 전년 대비 0.7%p 증가함
- 근로 희망 사유로는 「생활비 보탬」이 58.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일하는 즐거움」 33.2%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자(77.4%)가 여자(59.6%)보다 장래에 일하기를 희망하고, 근로 희망 사유는 남녀 모두 「생활비 보탬」, 「일하는 즐거움」 순임

< 장래 근로 원함(55세~79세) >



< 취업을 원하는 이유(55세~79세, 2021)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 취업 의사 및 취업을 원하는 이유(55~79세) >

(단위: %)

	장래 근로 원함	소계	일하는 즐거움	생활비 보탬	사회가 필요로 함	건강 유지	무료 해서	기타
2015	61.2	100.0	35.9	57.1	1.8	1.6	3.6	0.1
2016	61.5	100.0	34.8	58.1	2.2	1.5	3.3	0.0
2017	62.6	100.0	34.4	58.3	2.3	1.6	3.3	0.1
2018	64.1	100.0	33.9	59.0	2.2	1.5	3.3	0.0
2019	64.9	100.0	32.8	60.2	2.0	1.7	3.2	0.0
2020	67.4	100.0	33.8	58.8	2.3	1.7	3.3	0.0
2021	68.1	100.0	33.2	58.7	2.3	2.0	3.8	0.0
남 자	77.4	100.0	35.2	56.5	3.2	2.0	3.1	0.0
여 자	59.6	100.0	30.7	61.4	1.1	2.0	4.7	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각년도 5월

IV. 사회참여 ·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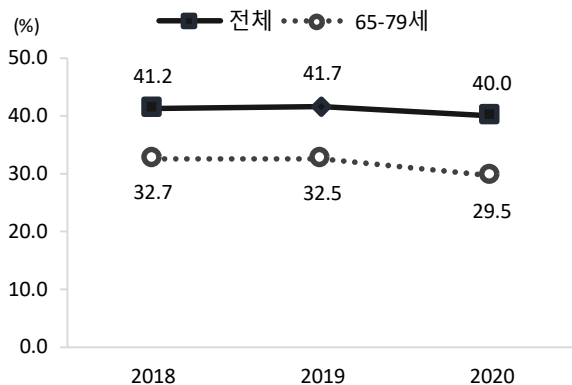
19. 평생교육 참여율

2020년 평생교육에 참여한 65~79세 고령층은 29.5%로 전년 대비 3.0%p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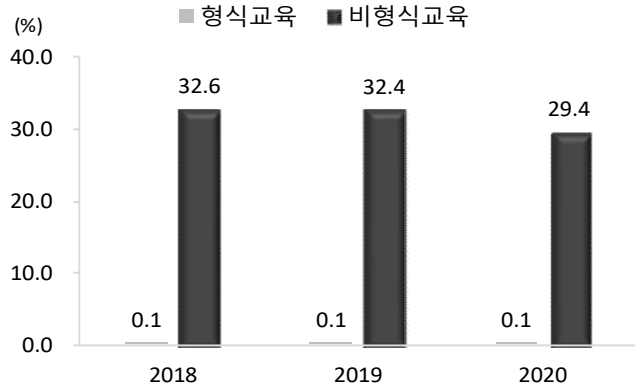
□ '20년 평생교육에 참여한 65~79세 고령층은 29.5%로 전년 대비 3.0%p 감소함

- 고령층의 유형별 평생교육 참여 현황을 보면, 형식교육 참여 비중은 0.1%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고, 비형식교육 참여 비중은 29.4%로 전년 대비 3.0%p 감소함
- 직업과 관련된 목적의 비형식 교육을 받은 고령층 인원은 6.0%로 전년 대비 1.1%p 증가함

< 평생교육 참여율 >



< 고령층(65~79세)의 유형별 평생교육 참여율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평생 학습개인실태조사」

< 평생교육 참여율¹⁾ >

(단위: %)

	전체				65~79세			
	참여율 ²⁾	형식교육 ³⁾	비형식교육 ⁴⁾	직업관련 목적 ⁵⁾	참여율 ²⁾	형식교육 ³⁾	비형식교육 ⁴⁾	직업관련 목적 ⁵⁾
2018	41.2	2.3	40.4	18.8	32.7	0.1	32.6	5.5
2019	41.7	1.5	40.9	18.7	32.5	0.1	32.4	4.9
2020	40.0	1.4	39.3	20.1	29.5	0.1	29.4	6.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평생 학습개인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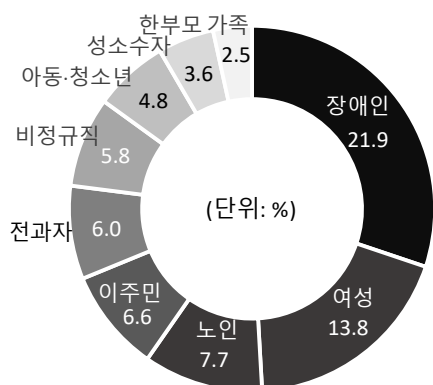
- 주: 1) 지난 1년간, 25~79세 한국 성인 중 형식교육 또는 비형식교육에 참여한 한국 성인의 비중
 2)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 동시 학습 인원 포함
 3) 초, 중, 고등학교나 대학과 같이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졸업장이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
 4) 학교 교육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구조화된 학습활동
 5) 「취업, 이직, 창업에 도움」, 「일하는데 필요한 기능 습득」, 「성과급·연봉 등 소득 증대」, 「고용안정」 등 직업과 관련된 목적을 가진 비형식교육 참여자에 대한 현황임

20. 노인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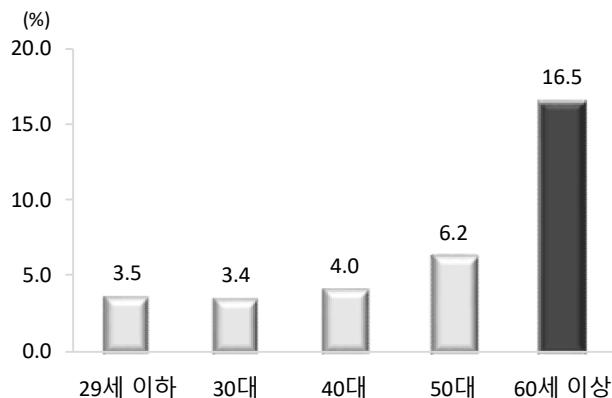
2020년 성인의 7.7%는 노인이 인권침해·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이라고 생각함

- '20년 19세 이상 성인 중 인권침해나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7.7%, 「장애인」, 「여성」 다음으로 높은 순위임
-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남, 여의 비중은 모두 7.7%로 성별 차이는 없었음
 - 노인차별에 대한 인식은 60세 이상과 타 연령대 간 10%p 이상 큰 차이가 있음

< 인권침해·차별을 많이 받는 집단(2020) >



< 연령대별 인권침해·차별을 많이 받는 집단(2020, 노인)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실태조사」

< 인권침해·차별을 많이 받는 집단(2020)¹⁾²⁾ >

(단위: %)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이주민	전과자	성소수자	비정규직
전체		13.8	4.8	7.7	21.9	2.5	6.6	6.0	3.6	5.8
성별	남자	8.9	4.8	7.7	22.5	2.1	6.7	5.9	3.6	6.8
	여자	18.6	4.8	7.7	21.3	3.0	6.4	6.0	3.7	4.8
연령 대별	29세 이하	14.5	4.7	3.5	23.8	1.7	6.3	4.4	6.4	5.8
	30대	12.8	6.2	3.4	28.4	2.0	5.8	4.0	4.4	5.0
	40대	14.7	5.5	4.0	23.2	2.4	7.5	5.5	4.0	6.2
	50대	15.4	4.8	6.2	17.8	3.3	7.9	7.4	3.3	6.7
	60세 이상	12.2	3.6	16.5	18.8	2.9	5.7	7.4	1.3	5.4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실태조사」

주: 1)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함

2) 각 집단 중 인권침해 또는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이라고 1순위로 응답한 비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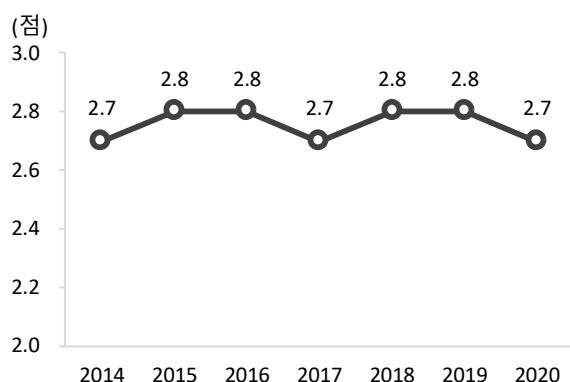
21. 세대갈등

2020년 고령층과 젊은층 간 세대갈등에 대한 인식 정도는 2.7점으로 전년 대비 0.1점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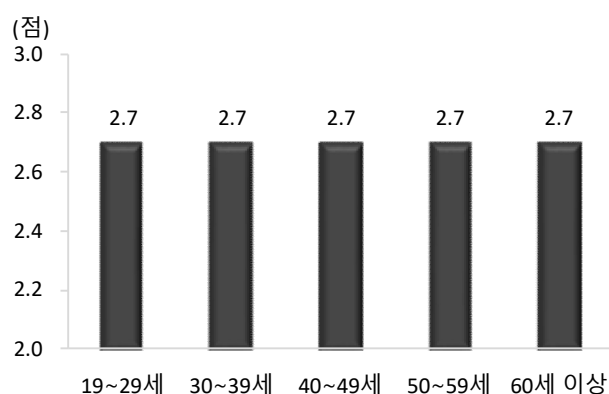
□ '20년 우리나라 국민의 고령층과 젊은층 간 세대갈등에 대한 인식 정도는 2.7점으로 전년 대비 0.1점 감소함

○ 고령층과 젊은층 간 세대갈등은 모든 연령층에서 비슷하게 인식함

< 세대갈등 인식 >



< 연령별 세대갈등 인식(2020)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 세대갈등¹⁾ 인식²⁾ >

(단위: 점, %)

	평균 ³⁾	전혀 심하지 않다(1점)	별로 심하지 않다(2점)	약간 심하다(3점)	매우 심하다(4점)
2014	2.7	2.3	35.4	47.9	14.4
2015	2.8	2.8	32.1	49.9	15.2
2016	2.8	2.7	33.4	49.3	14.5
2017	2.7	2.7	35.0	48.6	13.7
2018	2.8	3.3	32.2	49.7	14.7
2019	2.8	2.5	33.5	49.7	14.4
2020	2.7	2.9	36.2	49.8	11.1
19~29세	2.7	2.1	35.8	49.1	13.0
30~39세	2.7	2.7	37.3	47.7	12.4
40~49세	2.7	2.1	37.4	50.5	10.0
50~59세	2.7	4.3	34.3	49.8	11.6
60세 이상	2.7	3.2	36.2	50.8	9.8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주: 1) 노인층과 젊은층 간의 갈등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자의 비율임

2)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2020년부터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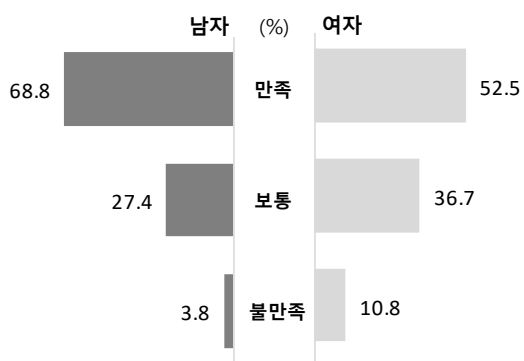
3) 4점 척도(1점: 전혀 심하지 않다 ~ 4점: 매우 심하다)에 대한 평균값임

22. 가족관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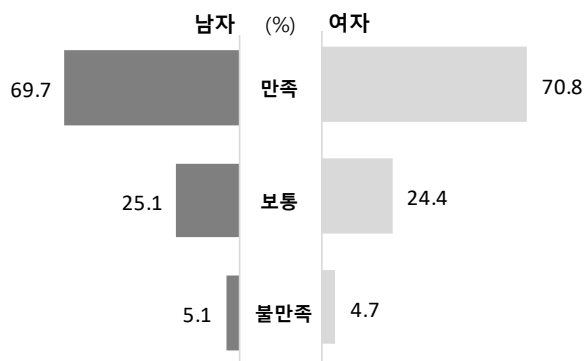
2020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61.9%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만족함

- '20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61.9%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68.8%, 여자는 52.5%가 만족하여, 부인보다 남편의 만족도가 16.3%p 높게 나타남
- 고령자의 70.4%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며, 이는 2년 전보다 2.3%p 증가한 수치임
 -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69.7%, 여자는 70.8%가 만족하여, 남자보다 여자의 만족도가 1.1%p 높게 나타남

<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2020) >



<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2020)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 가족 관계 만족도¹⁾ >

(단위: %)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만족 ²⁾	보통	불만족 ³⁾	만족 ²⁾	보통	불만족 ³⁾
2018	60.8	32.2	7.0	68.1	26.3	5.6
2020	61.9	31.3	6.8	70.4	24.7	4.9
남 자	68.8	27.4	3.8	69.7	25.1	5.1
여 자	52.5	36.7	10.8	70.8	24.4	4.7
65~69세	62.3	32.1	5.6	69.6	26.1	4.3
70~79세	61.3	30.9	7.9	70.6	24.4	5.1
80세 이상	62.8	30.9	6.3	71.1	23.5	5.4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주: 1)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을 합한 수치임

3) '약간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을 합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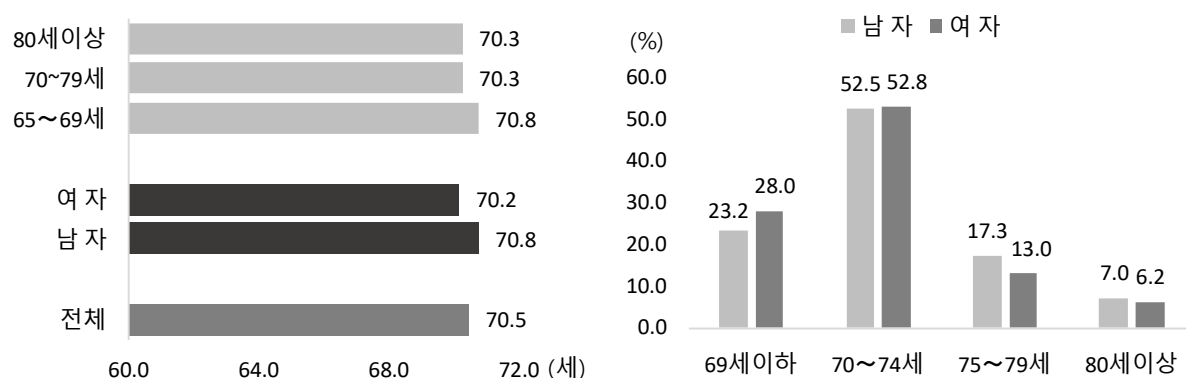
23. 주관적 노인연령

2020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74.1%가 노인을 70세 이상으로 인식함

□ '20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74.1%가 노인을 70세 이상으로 생각함

- 노인의 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생각하는 비중은 남자가 76.8%로 여자의 72.0%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65~69세가 76.0%로 타 연령대에 비하여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65세 이상 고령자가 인식하는 노인의 주관적 노인 연령은 70.5세이며, 이 중 남자가 인식하는 노인 연령은 70.8세로 여자의 70.2세보다 높게 나타남

< 성별·연령별 주관적 노인 연령(2020) > < 성별 주관적 노인 연령 비중(2020) >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 주관적 노인연령(2020)¹⁾ >

(단위: %)

	69세이하	70세이상	70~74세	75~79세	80세이상	주관적 노인 연령(세)
전체	25.9	74.1	52.7	14.9	6.5	70.5
남 자	23.2	76.8	52.5	17.3	7.0	70.8
여 자	28.0	72.0	52.8	13.0	6.2	70.2
65~69세	24.0	76.0	52.3	16.1	7.6	70.8
70~79세	27.1	72.9	52.6	14.8	5.5	70.3
80세이상	26.4	73.6	53.4	13.1	7.1	70.3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주: 1)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4. 연명의료 반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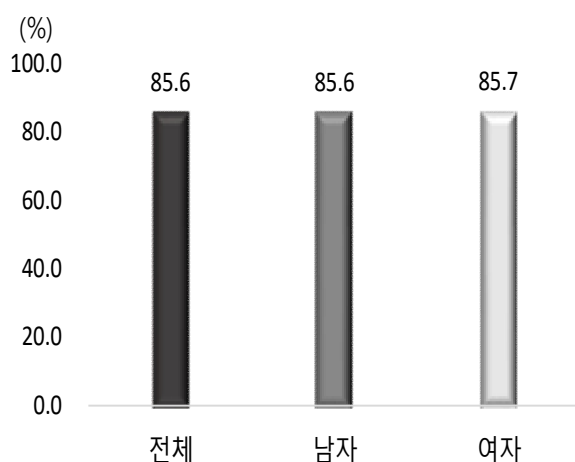
2020년 65세 이상 고령자 중 85.6%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반대함

□ '20년 65세 이상 노인의 85.6%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반대한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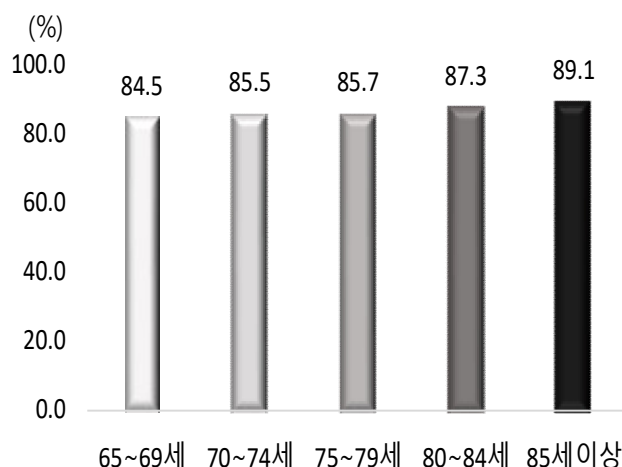
* 연명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 등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반대하는 비중은 남녀 각각 85.6%, 85.7%로 성별 간 큰 차이는 없음
- 연명의료를 반대하는 비중은 85세 이상에서 89.1%로 가장 높았고, 65세~69세에서 84.5%로 가장 낮았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연명의료를 반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성별 연명의료 반대율(2020) >



< 연령별 연명의료 반대율(2020) >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 연명의료 반대율¹⁾ >

(단위: %)

	전체	성별		연령대별				
		남자	여자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이상
2020	85.6	85.6	85.7	84.5	85.5	85.7	87.3	89.1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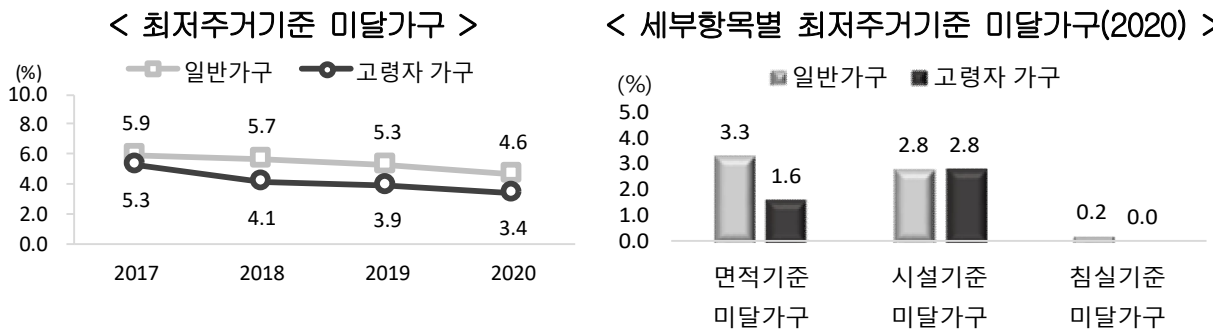
주: 1)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V. 생활환경

25.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2020년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중은 3.4%임

- '20년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가구의 비중은 전년 대비 0.5%p 감소한 3.4%로, '17년 이후 감소세를 보임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중은 고령자 가구가 일반 가구보다 1.2%p 낮았음
- 면적 기준 미달가구 비중은 고령자 가구가 일반 가구보다 1.7%p 낮은 반면, 시설기준 미달가구 비중은 고령자 가구와 일반 가구가 동일함
- 수도권 거주 고령자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중은 3.0%로 비수도권 거주 가구(3.8%)보다 0.8%p 낮음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 최저주거기준¹⁾ 미달가구 >

(단위: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면적기준 미달가구 ²⁾	시설기준 미달가구 ³⁾	침실기준 미달가구 ⁴⁾
일반가구	2017	5.9	4.1	3.3	0.3
	2018	5.7	4.0	3.1	0.4
	2019	5.3	3.8	3.0	0.3
	2020	4.6	3.3	2.8	0.2
	수도권 ⁶⁾	5.6	4.6	3.0	0.2
	비수도권	3.6	2.1	2.6	0.2
고령자 가구 ⁵⁾	2017	5.3	1.7	4.3	0.1
	2018	4.1	1.4	3.4	0.1
	2019	3.9	1.5	3.1	0.0
	2020	3.4	1.6	2.8	0.0
	수도권 ⁶⁾	3.0	2.2	2.0	-
	비수도권	3.8	1.2	3.4	0.0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주: 1)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490호('11.5.27)에 따른 기준임

2) 가구원 수별 주거면적이 1인-14㎡, 2인-26㎡, 3인-36㎡, 4인-43㎡, 5인-46㎡, 6인-55㎡ 미만인 가구

3)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 시설 중 1개라도 없는 경우

4) 가구원 수별 방수가 1인-1개, 2인-1개, 3인-2개, 4인-3개, 5인-3개, 6인-4개 미만인 가구

5)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

6) 서울, 인천, 경기

26. 주거만족도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주택 만족도는 2.92점, 주거환경 만족도는 2.93점임

- '20년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주택 만족도는 2.92점으로 전년과 동일 수준이고,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2.93점으로 전년 대비 0.06점 상승함
- 일반가구에 비해 고령자 가구의 주택 만족도 0.08점, 주거환경 만족도는 0.04점 낮았음
 - 주거환경에 대한 세부 항목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소음문제, 대기오염, 지역유대 항목에서는 고령자 가구의 만족도가 높았으나, 이외 11개 항목에서는 일반가구의 만족도가 더 높았음

<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 >

(단위: 점)

	일반가구			고령자 가구 ³⁾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주택 만족도 ¹⁾	2.98	3.00	3.00	2.89	2.92	2.92
주거환경 만족도 ²⁾	2.94	2.94	2.97	2.89	2.87	2.93
편의시설	2.94	2.91	2.93	2.78	2.75	2.78
의료·복지시설	2.91	2.89	2.91	2.74	2.72	2.75
공공시설	2.92	2.94	2.95	2.78	2.79	2.82
문화시설	2.74	2.71	2.65	2.59	2.55	2.51
공원·녹지	2.92	2.98	3.01	2.81	2.89	2.94
대중교통	2.93	2.97	2.99	2.81	2.85	2.89
주차시설	2.77	2.84	2.85	2.76	2.82	2.83
보행 안전	2.99	3.03	3.05	2.95	2.98	3.02
교육환경	2.93	2.95	2.95	2.82	2.83	2.85
치안문제	3.00	3.05	3.07	2.95	2.99	3.02
소음문제	2.87	2.91	2.91	2.86	2.92	2.94
주변청결	3.01	3.07	3.08	2.98	3.04	3.05
대기오염	2.96	3.00	3.05	2.98	3.03	3.08
지역유대	3.06	3.07	3.06	3.09	3.13	3.14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주: 1)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로 4점 척도(1점: 매우 불만족 ~ 4점: 매우 만족)에 대한 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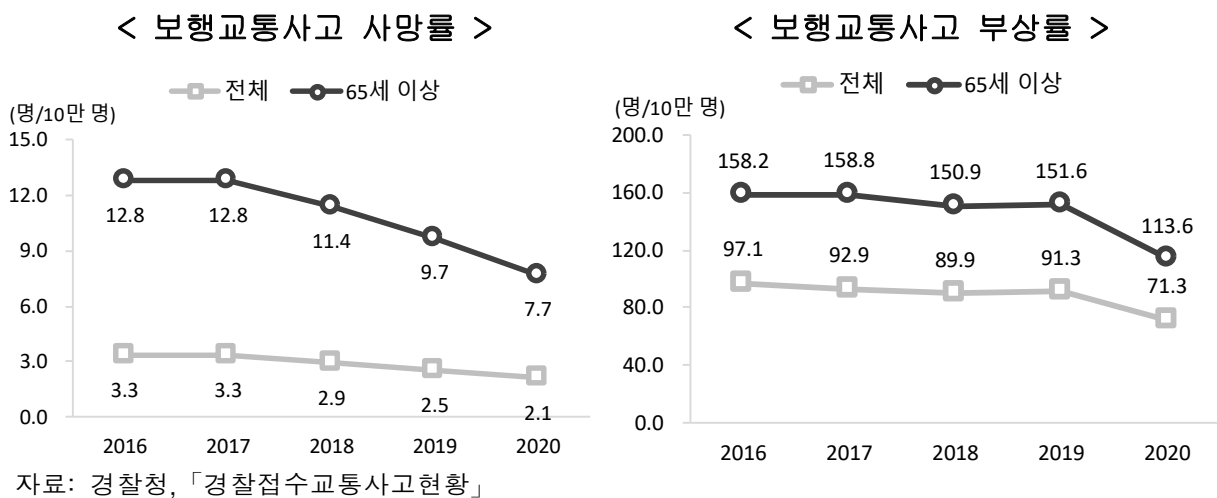
2)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로 4점 척도(1점: 매우 불만족 ~ 4점: 매우 만족)에 대한 평균값임

3)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

27. 보행안전성

2020년 65세 이상 고령자 10만 명당 보행교통사고 사망률은 7.7명, 부상률은 113.6명임

- '20년 65세 이상 고령자 10만 명당 보행교통사고 사망률은 7.7명으로 전년 대비 2.0명, 보행교통사고 부상률은 113.6명으로 38.0명 감소함
- 고령자의 보행교통사고 사망률은 전체 인구의 3.7배, 부상률은 1.6배 수준으로, 고령자의 보행안전성은 전체 인구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행교통사고 사상자 현황 >

(단위: 명, 명/10만 명)

		사망자 수	사망률 ¹⁾	부상자 수	부상률 ²⁾
전체	2016	1,714	3.3	49,723	97.1
	2017	1,675	3.3	47,707	92.9
	2018	1,487	2.9	46,400	89.9
	2019	1,302	2.5	47,200	91.3
	2020	1,093	2.1	36,939	71.3
65세 이상	2016	866	12.8	10,693	158.2
	2017	906	12.8	11,224	158.8
	2018	842	11.4	11,124	150.9
	2019	743	9.7	11,653	151.6
	2020	628	7.7	9,233	113.6

자료: 경찰청,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주: 1) 보행교통사고 사망률 = 해당 연령대 보행교통사고 사망자 수 ÷ 해당 연령대 인구 × 100,000.
인구는 2017년 기준 추계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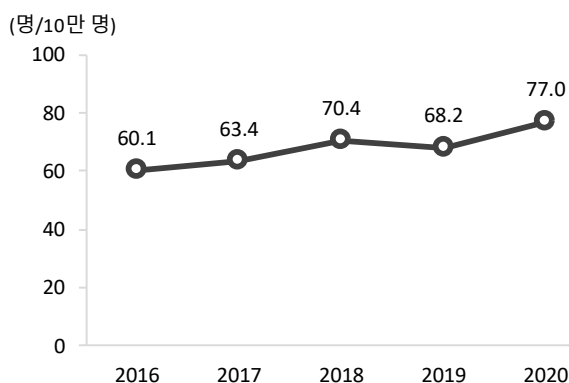
2) 보행교통사고 부상률 = 해당 연령대 보행교통사고 부상자 수 ÷ 해당 연령대 인구 × 100,000.
인구는 2017년 기준 추계인구

28. 고령자 학대피해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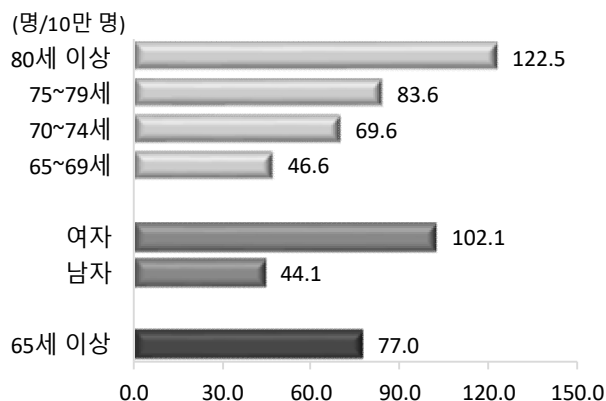
2020년 65세 이상 고령자 10만 명당 77명은 학대피해를 경험함

- '20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학대피해 경험률은 고령자 10만 명당 77.0명으로 전년 대비 8.8명 증가함
- 여자의 학대피해 경험률은 102.1명으로 남자의 경험률인 44.1명 대비 2.3배 이상 높은 수준임
- 학대피해 경험률은 나이가 많을수록 높아지고, 80세 이상의 학대피해 경험률은 122.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학대피해 경험률(65세 이상) >



< 성 및 연령대별 학대피해 경험률(2020, 65세 이상) >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학대현황」

< 고령자(65세 이상) 학대피해¹⁾²⁾ 경험률 >

(단위: 명/10만 명)

	학대피해 경험률 ³⁾	성별 ⁴⁾		연령별 ⁵⁾			
		남자	여자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2016	60.1	39.1	75.5	26.7	49.3	69.8	115.9
2017	63.4	37.4	82.5	32.4	55.2	71.7	111.0
2018	70.4	43.0	90.8	34.7	66.4	79.1	117.6
2019	68.2	38.5	90.6	37.5	63.0	72.9	112.5
2020	77.0	44.1	102.1	46.6	69.6	83.6	122.5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학대현황」

주: 1)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 방임, 유기로 구분

2)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사례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경우를 의미함

3) 학대피해 경험률 = 학대피해노인 수 ÷ 고령 인구(65세 이상) × 100,000. 고령 인구는 2017년 기준 추계인구

4) 성별 학대피해 경험률 = 성별 학대피해노인 수 ÷ 성별 고령 인구(65세 이상) × 100,000. 성별 고령 인구는 2017년 기준 추계인구

5) 연령대별 학대피해 경험률 = 연령대별 학대피해노인 수 ÷ 연령대별 고령 인구(65세 이상) × 100,000. 연령대별 고령 인구는 2017년 기준 추계인구

29. 운전자 비율

2020년 65세 이상 고령자 5명 중 1명은 자동차 운전을 하고 있음

- '20년 65세 이상 고령자 중 21.9%는 자동차 운전을 하고 있고, '17년 대비 3.1%p 증가함
 - 65세 이상 고령자 자동차 운전 비중은 '11년(12.2%)보다 9.7%p 증가함
 - '20년 자동차 운전을 그만둔 평균나이는 65.8세로 3년 전보다 3.7세 높아짐
- '20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자동차 운전사고 중 65~69세의 사고율이 48.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70~74세(28.7%), 75~79세(15.8%) 순임

< 운전자 비율¹⁾ >

(단위: %, 세)

	현재하고 있음	전에는 했으나 현재는 하고 있지 않음		평생 한 적 없음
			그만둔 평균 나이	
2011	12.2	8.4	57.7	79.4
2014	16.1	8.9	59.7	75.0
2017	18.8	10.5	62.1	70.7
2020	21.9	17.8	65.8	60.4
남자	41.5	33.0	66.7	25.5
여자	7.1	6.3	62.2	86.7
65~69세	39.2	11.5	61.2	49.2
70~74세	23.5	20.2	65.5	56.3
75~79세	11.9	24.1	67.2	64.0
80~84세	4.2	20.2	69.3	75.6
85세이상	1.7	13.2	67.0	85.1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주: 1)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 고령 운전자 사고 비율(2020)¹⁾ >

(단위: 건, 명, %)

	사고건수		사망자수	구성비	치사율	부상자수	
		구성비					구성비
합계	31,072	100.0	720	100.0	2.3	44,269	100.0
65~69세	14,916	48.0	256	35.6	1.7	21,669	48.9
70~74세	8,911	28.7	200	27.8	2.2	12,747	28.8
75~79세	4,894	15.8	141	19.6	2.9	6,810	15.4
80~84세	1,830	5.9	92	12.8	5.0	2,393	5.4
85세 이상	521	1.7	31	4.3	6.0	650	1.5

자료: 경찰청,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주: 1) 가해자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 사고로 사망자와 부상자는 해당사고에서 발생한 모든 사망자와 부상자임

VI. 통계표

I. 인구·가구

1. 인구추이

1-1. 인구추이	49
-----------------	----

1-2. 성, 연령별 고령인구	50
------------------------	----

2. 지역별 고령인구	52
-------------------	----

3. 고령자 가구	54
-----------------	----

4. 이혼 및 재혼	55
------------------	----

5. 주택 소유율	56
-----------------	----

II. 건강

6. 기대여명	57
---------------	----

7. 사망원인별 사망률	58
--------------------	----

8. 운동 실천율	60
-----------------	----

9. 본인부담 의료비	61
-------------------	----

10. 노인 복지시설	62
-------------------	----

11. 주관적 건강평가	63
--------------------	----

12. 건강검진 수검률	64
--------------------	----

13. 장기요양인정자 비중	65
----------------------	----

Ⅲ. 소득보장

14. 자산 소유액 및 구성	66
15. 은퇴연령층 빈곤율	67
16. 고용률	
16-1. 고용률	68
16-2. 산업별 취업자 분포	69
16-3. 직업별 취업자 분포	70
17. 공적연금 수급률	71
18. 취업 의사 및 취업을 원하는 이유	72

Ⅳ. 사회참여·관계

19. 평생교육 참여율	73
20. 노인차별	73
21. 세대갈등	74
22. 가족관계 만족도	75
23. 주관적 노인연령	76
24. 연명의료 반대율	76

Ⅴ. 생활환경

25.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중	77
26. 주거만족도	78
27. 보행안전성	79
28. 고령자 학대피해 경험률	80
29. 운전자 비율	
29-1. 운전자 비율	81
29-2. 고령 운전자 사고 비율	81

1-1. 인구 추이

(단위: 명, %, 명/생산연령인구 100명, 명/유소년인구 100명)

	총 인구	65세 이상	구성비 ¹⁾	노년부양비 ²⁾	노령화지수 ³⁾
2000	47,008,111	3,394,896	7.2	10.1	34.3
2005	48,184,561	4,320,787	9.0	12.5	46.8
2010	49,554,112	5,366,109	10.8	14.8	67.2
2011	49,936,638	5,515,179	11.0	15.0	71.0
2012	50,199,853	5,766,729	11.5	15.6	76.1
2013	50,428,893	6,022,659	11.9	16.3	81.5
2014	50,746,659	6,277,126	12.4	16.8	87.0
2015	51,014,947	6,541,168	12.8	17.5	93.0
2016	51,217,803	6,757,083	13.2	18.0	98.4
2017	51,361,911	7,066,060	13.8	18.8	105.1
2018	51,606,633	7,372,160	14.3	19.6	111.9
2019	51,709,098	7,684,919	14.9	20.4	119.4
2020	51,780,579	8,125,432	15.7	21.7	129.0
2021	51,821,669	8,537,023	16.5	23.0	138.8
2022	51,846,339	8,974,643	17.3	24.3	150.0
2023	51,868,100	9,447,274	18.2	25.8	162.9
2024	51,887,623	9,944,702	19.2	27.4	175.7
2025	51,905,126	10,511,160	20.3	29.3	189.7
2026	51,920,462	11,114,363	21.4	31.4	206.0
2027	51,933,215	11,589,115	22.3	33.0	220.0
2028	51,941,946	12,117,527	23.3	35.0	234.8
2029	51,940,598	12,517,340	24.1	36.5	246.2
2030	51,926,953	12,979,573	25.0	38.2	259.6
2035	51,629,895	15,237,275	29.5	48.4	308.5
2040	50,855,376	17,223,537	33.9	60.1	345.7
2045	49,574,038	18,329,352	37.0	69.0	392.8
2050	47,744,500	19,007,129	39.8	77.6	447.2
2055	45,405,902	18,814,803	41.4	82.6	492.3
2060	42,837,900	18,814,555	43.9	91.4	546.1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

주: 1) 구성비 = 고령인구(65세 이상) ÷ 총 인구 × 100

2) 노년부양비 = 고령인구(65세 이상) ÷ 생산연령인구(15~64세) × 100

3) 노령화지수 = 고령인구(65세 이상) ÷ 유소년인구(0~14세) × 100

1-2. 성, 연령별 고령 인구

(단위: 천 명, %, 명/여자 고령인구 100명)

	65세 이상	성별				
		남자	고령 비중 ¹⁾	여자	고령 비중 ¹⁾	성비 ²⁾
2000	3,395	1,300	5.5	2,095	9.0	62.0
2005	4,321	1,721	7.1	2,600	10.9	66.2
2010	5,366	2,194	8.8	3,172	12.9	69.2
2011	5,515	2,264	9.0	3,251	13.1	69.7
2012	5,767	2,382	9.5	3,385	13.5	70.4
2013	6,023	2,504	9.9	3,519	14.0	71.1
2014	6,277	2,624	10.3	3,654	14.4	71.8
2015	6,541	2,749	10.7	3,793	14.9	72.5
2016	6,757	2,852	11.1	3,905	15.3	73.0
2017	7,066	3,002	11.7	4,064	15.9	73.9
2018	7,372	3,150	12.2	4,223	16.4	74.6
2019	7,685	3,300	12.7	4,385	17.0	75.3
2020	8,125	3,513	13.5	4,613	17.9	76.2
2021	8,537	3,713	14.3	4,824	18.7	77.0
2022	8,975	3,927	15.1	5,048	19.5	77.8
2023	9,447	4,161	16.0	5,286	20.4	78.7
2024	9,945	4,403	17.0	5,541	21.4	79.5
2025	10,511	4,675	18.0	5,836	22.5	80.1
2026	11,114	4,966	19.1	6,148	23.7	80.8
2027	11,589	5,200	20.0	6,389	24.6	81.4
2028	12,118	5,466	21.0	6,652	25.6	82.2
2029	12,517	5,663	21.8	6,854	26.4	82.6
2030	12,980	5,889	22.7	7,091	27.3	83.0
2035	15,237	6,981	27.1	8,256	31.9	84.5
2040	17,224	7,942	31.4	9,282	36.3	85.6
2045	18,329	8,475	34.5	9,855	39.4	86.0
2050	19,007	8,841	37.4	10,166	42.2	87.0
2055	18,815	8,833	39.3	9,982	43.5	88.5
2060	18,815	8,980	42.4	9,835	45.4	91.3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

주: 1) 성별 고령비중 = 성별 고령인구(65세 이상) ÷ 성별 인구 × 100

2) 성비 = 남자 고령인구(65세 이상) ÷ 여자 고령인구(65세 이상) × 100

3) 연령별 구성비 = 고령 연령대별 인구 ÷ 총 인구 × 100

(단위: 천 명, %, 명/여자 고령인구 100명)

	연령별					
	65~69세	구성비 ³⁾	70~74세	구성비 ³⁾	75세 이상	구성비 ³⁾
2000	1,381	2.9	922	2.0	1,091	2.3
2005	1,690	3.5	1,215	2.5	1,416	2.9
2010	1,878	3.8	1,540	3.1	1,948	3.9
2011	1,846	3.7	1,587	3.2	2,082	4.2
2012	1,875	3.7	1,674	3.3	2,218	4.4
2013	1,915	3.8	1,754	3.5	2,354	4.7
2014	2,006	4.0	1,764	3.5	2,508	4.9
2015	2,106	4.1	1,780	3.5	2,656	5.2
2016	2,210	4.3	1,729	3.4	2,818	5.5
2017	2,287	4.5	1,757	3.4	3,023	5.9
2018	2,358	4.6	1,796	3.5	3,217	6.2
2019	2,450	4.7	1,888	3.7	3,346	6.5
2020	2,660	5.1	1,991	3.8	3,475	6.7
2021	2,898	5.6	2,093	4.0	3,546	6.8
2022	3,075	5.9	2,170	4.2	3,730	7.2
2023	3,294	6.4	2,242	4.3	3,911	7.5
2024	3,530	6.8	2,334	4.5	4,081	7.9
2025	3,714	7.2	2,538	4.9	4,259	8.2
2026	3,962	7.6	2,769	5.3	4,383	8.4
2027	4,058	7.8	2,942	5.7	4,590	8.8
2028	4,173	8.0	3,155	6.1	4,790	9.2
2029	4,136	8.0	3,385	6.5	4,996	9.6
2030	4,094	7.9	3,566	6.9	5,319	10.2
2035	4,199	8.1	3,951	7.7	7,088	13.7
2040	4,284	8.4	4,074	8.0	8,866	17.4
2045	3,829	7.7	4,172	8.4	10,329	20.8
2050	3,848	8.1	3,744	7.8	11,415	23.9
2055	3,332	7.3	3,774	8.3	11,709	25.8
2060	3,698	8.6	3,278	7.7	11,838	27.6

2. 지역별 고령인구

(단위: 천 명, %)

65세 이상	2005	고령인구 비중	2010	고령인구 비중	2015	고령인구 비중	2020	고령인구 비중	2021	고령인구 비중
전국	4,321	9.0	5,366	10.8	6,541	12.8	8,125	15.7	8,537	16.5
서울	706	7.0	928	9.2	1,209	12.2	1,480	15.4	1,549	16.2
부산	301	8.4	391	11.2	495	14.3	625	18.7	655	19.8
대구	195	7.8	247	10.0	308	12.5	388	16.0	407	16.9
인천	177	6.9	230	8.4	303	10.5	397	13.4	422	14.3
광주	100	6.9	130	8.7	164	10.9	204	13.7	213	14.4
대전	100	6.8	128	8.5	162	10.5	206	13.7	217	14.6
울산	56	5.2	74	6.7	99	8.5	137	12.0	147	12.9
세종	—	—	—	—	20	10.8	32	9.3	35	9.6
경기	745	7.0	990	8.5	1,281	10.3	1,709	12.7	1,823	13.5
강원	186	12.5	223	15.0	253	16.7	302	20.0	316	20.9
충북	174	11.7	204	13.4	229	14.4	277	17.0	290	17.7
충남	264	13.8	309	14.9	330	15.7	389	17.7	406	18.3
전북	250	13.7	284	15.8	321	17.5	369	20.6	381	21.4
전남	317	17.1	349	19.7	370	20.6	408	23.1	417	23.8
경북	370	14.0	424	16.1	466	17.4	549	20.7	570	21.5
경남	326	10.5	386	12.0	450	13.5	554	16.5	582	17.4
제주	55	10.1	68	12.3	82	13.7	101	15.1	106	15.7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시도): 2017~2047」

(단위: 천 명, %)										
65세 이상	2025	고령인구 비중	2030	고령인구 비중	2035	고령인구 비중	2040	고령인구 비중	2047	고령인구 비중
전국	10,511	20.3	12,980	25.0	15,237	29.5	17,224	33.9	18,787	38.4
서울	1,862	19.9	2,219	24.2	2,540	28.4	2,827	32.4	3,048	36.6
부산	784	24.4	911	29.3	1,004	33.4	1,071	37.1	1,099	41.0
대구	494	21.1	601	26.3	691	31.2	759	35.5	794	39.7
인천	550	18.4	718	23.7	867	28.4	999	33.0	1,113	37.8
광주	261	18.0	320	22.5	377	27.3	427	31.9	462	36.6
대전	270	18.4	334	23.2	392	27.7	443	32.0	482	36.4
울산	193	17.3	252	22.9	302	28.2	337	32.6	358	37.0
세종	49	11.6	72	14.8	97	18.3	126	22.4	165	27.8
경기	2,379	17.0	3,109	21.8	3,792	26.2	4,409	30.6	4,937	35.3
강원	387	25.6	470	30.9	546	35.9	614	40.5	663	45.0
충북	357	21.6	445	26.6	529	31.4	603	35.9	663	40.6
충남	488	21.5	603	26.0	714	30.4	824	34.9	927	40.0
전북	441	25.2	516	30.0	587	34.7	652	39.4	695	43.9
전남	475	27.4	552	32.2	630	37.1	701	42.0	754	46.8
경북	673	25.7	804	31.0	922	36.1	1,019	40.8	1,082	45.4
경남	716	21.4	885	26.6	1,039	31.7	1,167	36.5	1,256	41.4
제주	132	18.5	169	22.5	208	26.9	248	31.5	287	36.6

3. 고령자 가구

(단위: 천 가구, %)

				고령자 가구 유형 및 구성비									
	총가구	고령자 가구 ¹⁾	비중	부부	구성비	부부+ 미혼 자녀	구성비	부(모)+ 미혼 자녀	구성비	1인 가구	구성비	기타	구성비
2000	14,507	1,734	11.9	573	33.1	184	10.6	79	4.5	544	31.4	354	20.4
2005	16,039	2,350	14.7	796	33.9	243	10.3	116	4.9	746	31.7	450	19.1
2010	17,495	2,923	16.7	985	33.7	286	9.8	149	5.1	991	33.9	512	17.5
2011	17,879	3,022	16.9	1,015	33.6	296	9.8	157	5.2	1,018	33.7	535	17.7
2012	18,119	3,170	17.5	1,062	33.5	312	9.8	169	5.3	1,060	33.5	568	17.9
2013	18,388	3,331	18.1	1,113	33.4	329	9.9	181	5.4	1,107	33.2	602	18.1
2014	18,705	3,492	18.7	1,162	33.3	347	9.9	193	5.5	1,153	33.0	637	18.2
2015	19,013	3,664	19.3	1,215	33.2	367	10.0	206	5.6	1,203	32.8	674	18.4
2016	19,281	3,818	19.8	1,261	33.0	373	9.8	212	5.5	1,275	33.4	697	18.3
2017	19,571	3,998	20.4	1,339	33.5	391	9.8	223	5.6	1,347	33.7	699	17.5
2018	19,871	4,205	21.2	1,399	33.3	406	9.7	232	5.5	1,431	34.0	737	17.5
2019	20,116	4,388	21.8	1,455	33.2	423	9.6	241	5.5	1,500	34.2	769	17.5
2020	20,350	4,642	22.8	1,536	33.1	450	9.7	255	5.5	1,589	34.2	812	17.5
2021	20,573	4,880	23.7	1,612	33.0	478	9.8	268	5.5	1,670	34.2	853	17.5
2022	20,787	5,132	24.7	1,689	32.9	502	9.8	281	5.5	1,762	34.3	899	17.5
2023	20,986	5,405	25.8	1,773	32.8	530	9.8	295	5.5	1,857	34.4	949	17.6
2024	21,171	5,691	26.9	1,864	32.8	561	9.9	311	5.5	1,955	34.3	1,000	17.6
2025	21,342	6,011	28.2	1,967	32.7	594	9.9	328	5.5	2,064	34.3	1,058	17.6
2026	21,501	6,356	29.6	2,082	32.8	633	10.0	348	5.5	2,176	34.2	1,118	17.6
2027	21,648	6,631	30.6	2,164	32.6	658	9.9	361	5.4	2,274	34.3	1,174	17.7
2028	21,785	6,936	31.8	2,262	32.6	688	9.9	377	5.4	2,387	34.4	1,222	17.6
2029	21,915	7,167	32.7	2,336	32.6	708	9.9	388	5.4	2,478	34.6	1,258	17.5
2030	22,036	7,438	33.8	2,420	32.5	729	9.8	400	5.4	2,586	34.8	1,302	17.5
2035	22,497	8,788	39.1	2,821	32.1	842	9.6	459	5.2	3,131	35.6	1,533	17.5
2040	22,651	10,012	44.2	3,136	31.3	943	9.4	510	5.1	3,623	36.2	1,799	18.0
2045	22,456	10,747	47.9	3,251	30.2	990	9.2	533	5.0	3,933	36.6	2,041	19.0
2047	22,303	11,058	49.6	3,302	29.9	1,019	9.2	547	4.9	4,051	36.6	2,139	19.3

자료: 통계청, 「장래가구특별추계: 2017~2047」

주: 1)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

4. 이혼 및 재혼

(단위: 건)

65세 이상	이혼		재혼	
	남자	여자	남자	여자
2000	1,321	423	971	202
2001	1,502	467	999	205
2002	1,768	537	1,042	242
2003	2,332	778	1,177	277
2004	2,340	816	1,394	332
2005	2,589	916	1,566	413
2006	3,061	1,120	1,746	502
2007	3,581	1,412	1,992	606
2008	4,409	1,738	1,855	548
2009	4,370	1,739	2,065	641
2010	4,346	1,734	2,099	702
2011	4,484	1,789	2,234	799
2012	4,836	1,955	2,449	912
2013	5,464	2,317	2,515	938
2014	5,914	2,721	2,467	902
2015	5,852	2,655	2,672	1,069
2016	6,101	2,910	2,568	1,109
2017	6,883	3,427	2,684	1,202
2018	8,032	4,148	2,759	1,347
2019	8,867	4,647	2,926	1,494
2020	9,854	5,285	2,966	1,621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 이혼편)」 각년도

5. 주택 소유율

(단위: %)

	60세 이상	연령별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2015	67.2	69.9	67.8	54.4
2016	66.7	68.9	67.8	54.9
2017	67.3	68.7	69.1	57.2
2018	67.2	68.2	69.4	58.1
2019	67.5	68.2	70.0	59.3

자료: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주: 1) 주택 소유율 = (주택소유가구 수 ÷ 일반가구 수) × 100. 일반가구 수는 「인구총조사」 자료

2)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함

6. 기대여명¹⁾²⁾

(단위: 년)

	65세			75세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2000	16.4	14.3	18.2	9.8	8.5	10.7
2001	16.6	14.5	18.4	9.9	8.6	10.8
2002	16.8	14.7	18.5	10.0	8.7	10.8
2003	17.1	15.1	18.9	10.3	9.0	11.2
2004	17.4	15.3	19.2	10.4	9.1	11.4
2005	17.7	15.5	19.6	10.6	9.2	11.6
2006	17.9	15.8	19.8	10.8	9.4	11.8
2007	18.2	16.0	20.2	11.0	9.5	12.1
2008	18.6	16.3	20.7	11.3	9.7	12.5
2009	19.0	16.7	21.1	11.6	10.0	12.9
2010	19.1	16.8	21.2	11.6	10.0	12.9
2011	19.4	17.1	21.5	11.8	10.1	13.0
2012	19.5	17.2	21.5	11.8	10.1	13.1
2013	19.9	17.6	21.9	12.1	10.5	13.4
2014	20.2	17.9	22.3	12.4	10.7	13.7
2015	20.3	18.2	22.4	12.4	10.8	13.7
2016	20.6	18.4	22.6	12.6	11.0	13.9
2017	20.8	18.6	22.7	12.7	11.1	14.0
2018	20.8	18.7	22.8	12.7	11.1	14.1
2019	21.3	19.1	23.4	13.2	11.5	14.6

자료: 통계청, 「생명표」

주: 1) 연령별 총 생존년수를 연령별 생존자 수로 나누어 산출

2) 16.12.2. 생명표 작성 방법 개선으로 '70~'14년 생명표 수치가 갱신됨

7. 사망원인별 사망률¹⁾²⁾³⁾

(단위: 명/인구 10만 명)

65세 이상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2000	악성신생물(암) 937.3	뇌혈관질환 789.9	심장 질환 363.5	당뇨병 220.0	만성 하기도 질환 210.3
2001	악성신생물(암) 933.2	뇌혈관질환 776.9	심장 질환 313.8	만성 하기도 질환 232.3	당뇨병 229.0
2002	악성신생물(암) 977.0	뇌혈관질환 790.8	심장 질환 335.2	만성 하기도 질환 288.76	당뇨병 231.8
2003	악성신생물(암) 961.7	뇌혈관질환 747.3	심장 질환 311.8	당뇨병 224.8	만성 하기도 질환 217.1
2004	악성신생물(암) 937.0	뇌혈관질환 674.2	심장 질환 312.8	당뇨병 210.2	만성 하기도 질환 187.3
2005	악성신생물(암) 924.5	뇌혈관질환 589.8	심장 질환 331.6	당뇨병 200.3	만성 하기도 질환 161.6
2006	악성신생물(암) 905.6	뇌혈관질환 545.2	심장 질환 338.9	당뇨병 194.0	만성 하기도 질환 143.3
2007	악성신생물(암) 902.0	뇌혈관질환 511.5	심장 질환 349.1	당뇨병 181.8	만성 하기도 질환 146.7
2008	악성신생물(암) 885.5	뇌혈관질환 460.3	심장 질환 333.5	당뇨병 158.0	만성 하기도 질환 136.1
2009	악성신생물(암) 865.4	뇌혈관질환 410.7	심장 질환 332.6	당뇨병 146.6	만성 하기도 질환 124.4
2010	악성신생물(암) 882.4	뇌혈관질환 409.4	심장 질환 344.0	당뇨병 153.1	폐렴 127.6
2011	악성신생물(암) 847.8	뇌혈관질환 381.1	심장 질환 361.2	당뇨병 155.4	폐렴 143.2
2012	악성신생물(암) 852.9	뇌혈관질환 372.9	심장 질환 367.1	폐렴 166.4	당뇨병 163.0
2013	악성신생물(암) 836.6	뇌혈관질환 353.0	심장 질환 335.6	폐렴 166.6	당뇨병 148.5
2014	악성신생물(암) 827.4	심장 질환 339.0	뇌혈관질환 323.6	폐렴 177.5	당뇨병 136.1
2015	악성신생물(암) 803.0	심장 질환 351.0	뇌혈관질환 311.1	폐렴 209.1	당뇨병 133.2
2016	악성신생물(암) 796.2	심장 질환 357.7	뇌혈관질환 286.9	폐렴 225.1	당뇨병 119.5
2017	악성신생물(암) 784.4	심장 질환 361.3	뇌혈관질환 268.6	폐렴 257.6	당뇨병 108.2
2018	악성신생물(암) 763.0	심장 질환 360.8	폐렴 295.3	뇌혈관질환 260.1	당뇨병 98.5
2019	악성신생물(암) 750.5	심장 질환 335.7	폐렴 283.1	뇌혈관질환 232.0	당뇨병 87.1
2020	악성신생물(암) 733.3	심장 질환 331.9	폐렴 257.5	뇌혈관질환 225.3	알츠하이머병 91.4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주: 1) 사망률 = 사망자 수(65세 이상) ÷ 고령 인구(65세 이상) × 100,000

2) 심장질환은 허혈성 심장질환과 기타 심장질환을 포함

3) 만성하기도 질환은 기관지염, 천식, 폐기종 등 만성적으로 호흡에 장애를 주는 폐질환의 총칭

(단위: 명/인구 10만 명)

65세 이상	6순위	7순위	8순위	9순위	10순위
2000	고혈압성 질환 107.4	폐렴 93.2	간 질환 88.1	운수사고 73.1	호흡기 결핵 56.2
2001	고혈압성 질환 121.2	간 질환 84.4	폐렴 66.9	운수사고 62.0	호흡기 결핵 51.4
2002	고혈압성 질환 124.1	간 질환 80.0	폐렴 61.9	운수사고 61.4	고의적 자해(자살) 56.2
2003	고혈압성 질환 119.8	고의적 자해(자살) 72.7	간 질환 72.1	폐렴 63.0	운수사고 60.8
2004	고혈압성 질환 107.6	고의적 자해(자살) 79.3	폐렴 76.3	간 질환 63.1	운수사고 59.1
2005	고혈압성 질환 93.3	폐렴 87.3	고의적 자해(자살) 80.9	간 질환 58.4	운수사고 55.6
2006	폐렴 92.1	고혈압성 질환 91.9	고의적 자해(자살) 72.4	운수사고 54.0	간 질환 52.4
2007	고혈압성 질환 104.0	폐렴 87.7	고의적 자해(자살) 75.5	운수사고 52.2	간 질환 48.7
2008	폐렴 98.7	고혈압성 질환 86.1	고의적 자해(자살) 71.7	운수사고 48.2	간 질환 46.6
2009	폐렴 111.5	고혈압성 질환 83.7	고의적 자해(자살) 78.8	운수사고 47.6	간 질환 43.4
2010	만성 하기도 질환 122.8	고혈압성 질환 82.9	고의적 자해(자살) 81.9	운수사고 44.7	간 질환 43.8
2011	만성 하기도 질환 117.5	고혈압성 질환 85.0	고의적 자해(자살) 79.7	알츠하이머병 42.9	간 질환 42.2
2012	만성 하기도 질환 127.4	고혈압성 질환 85.8	고의적 자해(자살) 69.8	알츠하이머병 57.3	운수사고 41.5
2013	만성 하기도 질환 109.7	고혈압성 질환 74.4	알츠하이머병 70.8	고의적 자해(자살) 64.2	간 질환 39.9
2014	만성 하기도 질환 106.8	고혈압성 질환 76.3	알츠하이머병 69.1	고의적 자해(자살) 55.5	간 질환 38.1
2015	만성 하기도 질환 108.7	알츠하이머병 76.0	고혈압성 질환 73.7	고의적 자해(자살) 58.6	패혈증 40.4
2016	만성 하기도 질환 97.3	고혈압성 질환 75.9	알츠하이머병 70.3	고의적 자해(자살) 53.3	패혈증 46.9
2017	만성 하기도 질환 90.7	고혈압성 질환 77.7	알츠하이머병 70.2	패혈증 50.4	고의적 자해(자살) 47.7
2018	만성 하기도 질환 84.3	알츠하이머병 82.1	고혈압성 질환 78.1	패혈증 56.8	고의적 자해(자살) 48.6
2019	알츠하이머병 86.1	만성 하기도 질환 75.6	고혈압성 질환 69.7	패혈증 57.3	고의적 자해(자살) 46.6
2020	당뇨병 86.6	고혈압성 질환 71.2	패혈증 68.2	만성 하기도 질환 66.0	고의적 자해(자살) 41.7

8. 운동 실천율

(단위: %)

65세 이상	걷기 실천율 ¹⁾³⁾			근력운동 실천율 ¹⁾⁴⁾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²⁾⁵⁾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2007	46.8	50.3	44.4	11.6	19.0	6.5	-	-	-
2008	49.9	60.2	42.8	9.9	19.7	3.3	-	-	-
2009	47.1	54.6	41.9	10.7	19.0	5.1	-	-	-
2010	39.8	44.2	36.6	11.9	20.6	5.8	-	-	-
2011	35.9	45.4	29.2	13.2	24.4	5.3	-	-	-
2012	33.5	41.4	28.0	15.0	25.5	7.7	-	-	-
2013	35.3	42.2	30.4	18.7	30.7	10.2	-	-	-
2014	41.3	47.6	36.7	16.8	28.5	8.3	41.1	50.9	33.6
2015	35.8	41.1	32.0	17.7	30.7	8.3	33.7	41.7	27.9
2016	35.4	39.0	32.7	15.2	24.7	8.4	34.4	43.4	27.9
2017	35.7	42.2	30.8	17.5	28.8	9.0	29.4	32.6	26.9
2018	37.3	46.1	30.8	18.3	30.3	9.5	28.1	33.4	24.3
2019	39.9	44.3	36.5	18.3	30.5	8.7	33.0	36.6	30.1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주: 1) 2005년부터 조사, 2007년부터 조사주기 1년으로 변경

2) 2014년부터 조사

3) 최근 1주일 동안 걷기를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4) 최근 1주일 동안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아령, 역기, 철봉 등의 근력운동을 2일 이상 실천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5) 일주일에 중강도 신체활동을 2시간 3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1시간 15분 이상 또는 중강도와 고강도 신체활동을 섞어서(고강도 1분은 중강도 2분) 각 활동에 상당하는 시간을 실천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 고강도 신체활동: 격렬한 신체활동으로 숨이 많이 차거나 심장이 매우 빠르게 뛰는 활동

- 중강도 신체활동: 중간 정도의 신체활동으로 숨이 약간 차거나 심장이 약간 빠르게 뛰는 활동

9. 본인부담 의료비

(단위: 억 원, 천 원, %)

65세 이상	진료비 ¹⁾	1인당 진료비 ²⁾	본인부담금	1인당 본인부담금 ³⁾	본인부담금 비중 ⁴⁾
2005	60,731	1,549	15,155	387	25.0
2006	73,504	1,805	17,515	430	23.8
2007	91,190	2,079	21,653	494	23.7
2008	107,371	2,334	26,350	573	24.5
2009	124,236	2,574	30,286	627	24.4
2010	141,350	2,839	32,945	662	23.3
2011	153,893	2,968	35,805	691	23.3
2012	164,494	3,008	38,553	705	23.4
2013	180,852	3,151	42,578	742	23.5
2014	199,687	3,326	47,074	784	23.6
2015	222,361	3,573	53,426	859	24.0
2016	252,692	3,921	61,583	955	24.4
2017	283,247	4,162	69,074	1,015	24.4
2018	318,235	4,487	74,183	1,046	23.3
2019	357,925	4,796	83,351	1,117	23.3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

주: 1)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환자 진료에 소요된 비용으로 공단부담금 및 환자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임

2) 1인당 진료비 = 진료비 ÷ 건강보험 적용인구(연도 말 기준)

3) 1인당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적용인구(연도 말 기준)

4) 본인부담금 비중 = 본인부담금 ÷ 진료비 × 100

10. 노인 복지시설

(단위: 개소)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총계		66,854	69,237	70,643	71,873	72,860	73,774	75,029	75,708	76,371	77,395	79,382	82,544
노인 주거 복지 시설	소계	360	397	414	416	435	443	427	425	404	390	382	352
	양로시설	285	300	303	285	285	272	265	265	252	238	232	209
	노인공동생활가정	56	75	87	108	125	142	131	128	119	117	115	107
	노인복지주택	19	22	24	23	25	29	31	32	33	35	35	36
노인 의료 복지 시설	소계	2,712	3,852	4,079	4,352	4,585	4,841	5,063	5,163	5,242	5,287	5,529	5,725
	노인요양시설	1,642	2,429	2,489	2,610	2,497	2,707	2,933	3,136	3,261	3,390	3,595	3,84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009	1,346	1,590	1,742	2,088	2,134	2,130	2,027	1,981	1,897	1,934	1,881
	노인전문병원 ¹⁾	61	77	-	-	-	-	-	-	-	-	-	-
노인 여가 복지 시설	소계	61,065	62,469	63,375	64,077	64,983	65,665	66,292	66,787	67,324	68,013	68,413	69,005
	노인복지관	237	259	281	300	319	344	347	350	364	385	391	398
	경로당	59,543	60,737	61,537	62,442	63,251	63,960	64,568	65,044	65,604	66,286	66,737	67,316
	노인교실	1,280	1,464	1,557	1,335	1,413	1,361	1,377	1,393	1,356	1,342	1,285	1,291
	노인휴양소 ¹⁾	5	9	-	-	-	-	-	-	-	-	-	-
재가 노인 복지 시설 ²⁾	소계	2,696	2,496	2,750	3,003	2,832	2,797	3,089	3,168	3,216	3,494	4,821	7,212
	방문요양서비스	1,228	1,118	1,180	1,113	1,042	992	1,021	1,009	1,001	1,051	1,513	2,656
	주야간보호서비스	714	786	842	840	848	913	1,007	1,086	1,174	1,312	1,816	2,321
	단기보호서비스	288	67	95	94	110	96	112	95	80	73	78	73
	방문목욕서비스	466	525	633	633	603	588	617	588	609	650	942	1,596
	방문간호서비스 ³⁾	-	-	-	-	-	-	-	-	10	21	60	95
	복지옹구지원서비스 ⁴⁾	-	-	-	-	-	-	-	-	-	-	0	86
	재가노인지원서비스 ⁵⁾	-	-	-	323	229	208	332	390	342	387	412	385
	노인보호전문기관	21	23	25	25	25	28	29	29	32	33	34	35
노인일자리지원기관 ⁶⁾		-	-	-	-	-	0	129	136	153	160	184	196
학대피해노인쉼터 ⁷⁾		-	-	-	-	-	-	-	-	-	18	19	19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현황」

- 주: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외('11.12.8.)
 2) 두 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병행하는 시설은 각 서비스마다 1개소로 집계함
 3)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신설('16.7.1.)
 4)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신설('19.12.12.)
 5)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신설('10.2.24.)
 6)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신설('13.12.15.)
 7)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신설('19.2.7.)

11. 주관적 건강평가¹⁾

(단위: %)

65세 이상	계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보통이다	나쁘다	매우 나쁘다
< 2016 >	100.0	3.1	19.2	34.2	35.5	7.9
남자	100.0	4.5	25.7	34.8	28.0	6.9
여자	100.0	2.1	14.5	33.8	41.0	8.6
65~69세	100.0	4.1	24.0	40.5	27.4	3.9
70~79세	100.0	2.6	18.1	32.8	38.1	8.4
80세 이상	100.0	2.4	12.9	25.6	44.6	14.5
< 2018 >	100.0	2.5	20.3	33.6	35.1	8.4
남자	100.0	2.9	26.0	35.8	28.0	7.3
여자	100.0	2.2	16.1	32.0	40.4	9.3
65~69세	100.0	3.2	28.0	40.6	23.6	4.6
70~79세	100.0	2.3	18.8	32.0	38.0	8.9
80세 이상	100.0	1.7	11.3	25.9	47.3	13.7
< 2020 >	100.0	3.0	21.3	37.3	33.2	5.2
남자	100.0	4.0	28.0	36.8	27.5	3.7
여자	100.0	2.3	16.2	37.6	37.6	6.3
65~69세	100.0	3.3	27.9	44.1	22.3	2.4
70~79세	100.0	3.4	21.5	37.1	33.7	4.4
80세 이상	100.0	1.9	11.0	27.7	48.3	11.0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주: 1)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좋은 편이다' 또는 '매우 좋다'는 응답자의 비중임

12. 건강검진 수검률¹⁾

(단위: %)

	65세이상			65~69세			70~79세			80세이상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2010	58.0	63.4	53.9	73.3	74.2	72.4	60.5	64.0	57.8	30.7	39.0	26.8
2011	61.8	67.0	57.8	77.2	78.3	76.0	65.0	67.8	62.9	35.4	44.0	31.4
2012	62.7	67.3	59.2	76.2	76.3	76.0	66.5	69.0	64.6	37.3	45.8	33.3
2013	61.9	66.6	58.3	76.5	76.7	76.3	66.0	68.3	64.2	37.3	45.3	33.5
2014	64.6	68.8	61.3	78.3	78.4	78.1	68.7	70.5	67.3	40.8	48.4	37.1
2015	66.7	71.3	63.1	80.3	80.6	80.0	70.9	73.1	69.1	42.7	50.9	38.6
2016	68.1	72.3	64.7	81.8	81.8	81.8	72.6	74.2	71.2	44.5	52.7	40.2
2017	68.9	73.2	65.4	83.0	83.1	82.9	73.6	75.3	72.1	45.5	53.7	41.0
2018	68.8	72.4	65.8	80.2	79.6	80.8	72.4	74.1	71.0	43.5	52.0	38.9
2019	69.9	73.4	67.1	81.2	80.6	81.8	74.4	75.6	73.4	45.8	54.1	41.1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

주: 1) 건강검진수검률 = (1차검진 수검인원 ÷ 1차검진 대상인원) × 100

13. 장기요양자인정자 비중¹⁾²⁾³⁾

(단위: %)

	65세이상			65~69세			70~79세			80세이상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2013	5.7	3.5	7.3	1.3	1.4	1.3	4.4	3.3	5.2	16.7	10.4	19.4
2014	6.2	3.8	7.9	1.3	1.3	1.3	4.7	3.5	5.6	17.8	11.0	20.8
2015	6.6	4.0	8.5	1.3	1.3	1.3	5.0	3.7	5.9	18.7	11.5	21.8
2016	7.1	4.3	9.2	1.4	1.4	1.4	5.1	3.8	6.2	20.0	12.2	23.5
2017	7.6	4.6	9.9	1.4	1.5	1.4	5.3	3.9	6.4	21.6	13.2	25.5
2018	8.4	5.1	10.9	1.5	1.6	1.5	5.7	4.3	6.9	23.6	14.6	27.9
2019	9.2	5.6	12.0	1.7	1.7	1.6	6.3	4.7	7.7	25.4	15.8	30.1
2020	9.7	5.8	12.6	1.7	1.8	1.6	6.7	4.9	8.2	26.8	16.7	31.9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주: 1) 장기요양인정자 비중 =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자 수 ÷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인구) × 100

2) 장기요양인정자는 장기요양등급 판정 대상자 중 1~5등급 판정자와 인지지원등급 판정자임

3) 인지지원등급은 2018년에 신설됨

14. 자산 소유액 및 구성¹⁾

(단위: 만 원)

65세 이상	순자산 ²⁾	자산	금융자산			실물자산			부채	금융부채	임대보증금
			금융자산	저축액	현거주지 전월세 보증금	실물자산	부동산	기타 실물자산			
2013	25,769	28,951	4,337	3,519	818	24,614	23,812	803	3,182	1,659	1,523
2014	26,365	29,720	4,422	3,664	758	25,298	24,175	1,123	3,355	1,705	1,650
2015	27,961	31,732	4,864	4,030	833	26,868	25,959	909	3,771	1,990	1,781
2016	29,636	33,627	5,176	4,335	841	28,451	27,441	1,010	3,991	2,064	1,928
2017	30,767	34,946	5,671	4,766	905	29,274	28,241	1,034	4,179	2,236	1,943
2018	33,676	37,787	6,207	5,318	889	31,580	30,236	1,344	4,111	2,232	1,879
2019	33,571	37,830	6,191	5,250	941	31,638	30,384	1,255	4,259	2,312	1,947
2020	34,954	39,426	6,688	5,618	1,070	32,738	31,632	1,106	4,472	2,388	2,084

자료: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주: 1) 조사연도 3월 31일 기준

2) 순자산 = 자산 - 부채

15. 은퇴연령층 빈곤율

(단위: %, 배)

66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 ¹⁾		지니계수 ²⁾		소득 5분위 배율 ³⁾	
	시장소득	처분가능소득 ⁴⁾	시장소득	처분가능소득 ⁴⁾	시장소득	처분가능소득 ⁴⁾
2012	56.7	47.0	0.556	0.458	40.26	11.48
2013	56.9	47.7	0.555	0.453	39.43	11.23
2014	57.3	46.0	0.567	0.450	47.99	10.73
2015	57.8	44.3	0.564	0.427	46.71	9.27
2016	58.7	45.0	0.568	0.425	49.47	9.05
2017	58.3	44.0	0.564	0.419	45.97	8.82
2018	59.9	43.4	0.560	0.406	41.99	7.94
2019	61.0	43.2	0.554	0.389	42.82	7.21

자료: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주: 1) 중위소득 50%(빈곤선) 이하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2)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함

3) 소득 상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을 소득 하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

4)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 처분가능소득(시장소득 + 공적 이전소득* - 공적 이전지출**)을 균등화한 소득

* 공적 이전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등

** 공적 이전지출: 세금, 공적연금 기여금·사회보험료 등

16-1. 고용률

(단위: 천 명, %)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경제활동인구			고용률 ¹⁾	실업률 ²⁾
			취업자	실업자		
2006	4,529	1,381	1,371	10	30.3	0.7
2007	4,759	1,491	1,482	10	31.1	0.7
2008	4,983	1,535	1,523	12	30.6	0.8
2009	5,177	1,571	1,553	18	30.0	1.2
2010	5,361	1,590	1,553	38	29.0	2.4
2011	5,527	1,642	1,606	36	29.1	2.2
2012	5,766	1,770	1,733	37	30.1	2.1
2013	6,022	1,879	1,851	28	30.7	1.5
2014	6,277	1,995	1,954	41	31.1	2.1
2015	6,534	2,034	1,985	48	30.4	2.4
2016	6,767	2,116	2,068	49	30.6	2.3
2017	7,071	2,228	2,166	62	30.6	2.8
2018	7,386	2,381	2,311	70	31.3	2.9
2019	7,713	2,622	2,538	85	32.9	3.2
2020	8,146	2,879	2,774	105	34.1	3.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1) 고용률 = 고령자(65세 이상) 취업자 수 ÷ 고령자(65세 이상) 인구 × 100

2) 실업률 = 고령자(65세 이상) 실업자 수 ÷ 고령자(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 100

16-2. 산업별¹⁾ 취업자 분포

(단위: 천 명, %)

65세 이상	취업자	소계	농림어업	광·제조업	제조업	사회 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 숙박업	사업·개인· 공공 서비스 및 기타	전기·운수· 통신· 금융업
2014	1,954	100.0	33.6	5.1	5.1	61.3	3.8	17.5	33.1	6.9
2015	1,985	100.0	30.5	5.5	5.5	64.0	3.5	17.8	35.5	7.1
2016	2,068	100.0	28.4	6.2	6.2	65.4	3.3	16.6	38.4	7.1
2017	2,166	100.0	27.4	6.8	6.6	65.8	3.3	16.1	39.7	6.7
2018	2,311	100.0	27.4	6.7	6.6	65.9	3.6	15.4	39.9	7.1
2019	2,538	100.0	25.6	6.4	6.3	68.0	3.7	14.6	42.8	7.0
2020	2,774	100.0	25.1	6.1	6.0	68.9	3.9	14.1	43.2	7.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1)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2017년) 기준임

16-3. 직업별¹⁾ 취업자 분포

(단위: 천 명, %)

65세 이상	취업자	소계	관리자· 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기계 조작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2014	1,953.7	100.0	4.8	2.6	15.2	31.7	11.3	34.4
2015	1,985	100.0	4.9	2.5	16.0	28.7	12.4	35.5
2016	2,068	100.0	4.5	2.6	16.8	26.8	12.8	36.5
2017	2,166	100.0	4.8	2.5	17.0	25.9	12.7	37.0
2018	2,311	100.0	5.1	3.0	17.0	26.0	13.2	35.7
2019	2,538	100.0	5.5	3.0	17.7	24.6	13.5	35.8
2020	2,774	100.0	5.3	3.4	17.5	24.2	13.5	36.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1) 한국표준직업분류 7차 개정(2018년) 기준임

17. 공적연금 수급률

(단위: %, 명)

65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률 ¹⁾	공적연금 수급자 수 ²⁾	국민연금	구성비	공무원 연금	구성비	사학연금	구성비	군인연금	구성비
2014	41.1	2,580,260	2,273,816	88.1	222,325	8.6	34,894	1.4	49,225	1.9
2015	42.8	2,802,065	2,473,690	88.3	240,041	8.6	37,737	1.3	50,597	1.8
2016	44.6	3,015,710	2,664,358	88.3	256,695	8.5	41,736	1.4	52,921	1.8
2017	46.9	3,313,618	2,936,683	88.6	279,524	8.4	42,508	1.3	54,903	1.7
2018	48.6	3,584,900	3,180,045	88.7	300,037	8.4	47,084	1.3	57,734	1.6
2019	50.9	3,914,457	3,478,558	88.9	323,430	8.3	52,326	1.3	60,143	1.5
2020	53.1	4,315,019	3,842,189	89.0	351,922	8.2	58,749	1.4	62,159	1.4
남자	72.6	2,550,846	2,212,516	86.7	252,006	9.9	43,786	1.7	42,538	1.7
여자	38.2	1,764,173	1,629,673	92.4	99,916	5.7	14,963	0.8	19,621	1.1
65~69세	61.5	1,636,608	1,475,061	90.1	122,097	7.5	23,846	1.5	15,604	1.0
70~74세	61.8	1,229,798	1,112,513	90.5	91,567	7.4	14,619	1.2	11,099	0.9
75~79세	55.1	881,907	794,671	90.1	65,338	7.4	10,375	1.2	11,523	1.3
80세 이상	30.2	566,706	459,944	81.2	72,920	12.9	9,909	1.7	23,933	4.2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통계집」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 국방부, 「군인연금통계연보」

주: 1) 공적연금 수급률 = 공적연금 수급자 수(65세 이상) ÷ 고령 인구(65세 이상) × 100. 고령 인구는 2017년 기준 추계인구

2) 각 연금별 노령(퇴직, 퇴역)연금 및 장애(장해, 상이)연금, 유족(퇴직 유족)연금 수급자의 합계임

18. 취업 의사 및 취업을 원하는 이유

(단위: 천명, %)

55~79세	계	장래 근로 원함	소계	일하는 즐거움	생활비 보탬	사회가 필요로 함	건강 유지	무료 해서	기타
< 2015 > (구성비)	11,807 (100.0)	7,231 (61.2)	7,231 (100.0)	2,597 (35.9)	4,128 (57.1)	127 (1.8)	115 (1.6)	258 (3.6)	6 (0.1)
남 자	5,565 (100.0)	4,146 (74.5)	4,146 (100.0)	1,636 (39.5)	2,255 (54.4)	93 (2.2)	65 (1.6)	96 (2.3)	2 0.0
여 자	6,242 (100.0)	3,085 (49.4)	3,085 (100.0)	961 (31.1)	1,873 (60.7)	34 (1.1)	50 (1.6)	162 (5.3)	4 (0.1)
< 2016 > (구성비)	12,438 (100.0)	7,649 (61.5)	7,649 (100.0)	2,661 (34.8)	4,444 (58.1)	166 (2.2)	118 (1.5)	255 (3.3)	4 0.0
남 자	5,864 (100.0)	4,359 (74.3)	4,359 (100.0)	1,643 (37.7)	2,426 (55.7)	124 (2.9)	68 (1.6)	97 (2.2)	0 0.0
여 자	6,574 (100.0)	3,290 (50.0)	3,290 (100.0)	1,018 (30.9)	2,018 (61.3)	42 (1.3)	50 (1.5)	158 (4.8)	3 (0.1)
< 2017 > (구성비)	12,929 (100.0)	8,098 (62.6)	8,098 (100.0)	2,783 (34.4)	4,722 (58.3)	188 (2.3)	130 (1.6)	269 (3.3)	5 (0.1)
남 자	6,122 (100.0)	4,594 (75.0)	4,594 (100.0)	1,699 (37.0)	2,566 (55.9)	144 (3.1)	75 (1.6)	107 (2.3)	2 (0.1)
여 자	6,807 (100.0)	3,504 (51.5)	3,504 (100.0)	1,084 (30.9)	2,156 (61.5)	45 (1.3)	54 (1.5)	162 (4.6)	3 (0.1)
< 2018 > (구성비)	13,441 (100.0)	8,613 (64.1)	8,613 (100.0)	2,923 (33.9)	5,085 (59.0)	191 (2.2)	126 (1.5)	284 (3.3)	3 0.0
남 자	6,395 (100.0)	4,836 (75.6)	4,836 (100.0)	1,764 (36.5)	2,744 (56.7)	146 (3.0)	62 (1.3)	120 (2.5)	1 0.0
여 자	7,046 (100.0)	3,776 (53.6)	3,776 (100.0)	1,159 (30.7)	2,341 (62.0)	45 (1.2)	64 (1.7)	164 (4.4)	2 (0.1)
< 2019 > (구성비)	13,843 (100.0)	8,979 (64.9)	8,979 (100.0)	2,949 (32.8)	5,403 (60.2)	178 (2.0)	157 (1.7)	289 (3.2)	4 (0.0)
남 자	6,587 (100.0)	4,975 (75.5)	4,975 (100.0)	1,763 (35.4)	2,864 (57.6)	138 (2.8)	86 (1.7)	122 (2.5)	2 (0.0)
여 자	7,256 (100.0)	4,005 (55.2)	4,005 (100.0)	1,187 (29.6)	2,538 (63.4)	40 (1.0)	71 (1.8)	167 (4.2)	2 (0.0)
< 2020 > (구성비)	14,271 (100.0)	9,620 (67.4)	9,620 (100.0)	3,254 (33.8)	5,658 (58.8)	225 (2.3)	164 (1.7)	316 (3.3)	4 (0.0)
남 자	6,788 (100.0)	5,261 (77.5)	5,261 (100.0)	1,910 (36.3)	2,951 (56.1)	177 (3.4)	90 (1.7)	131 (2.5)	2 (0.0)
여 자	7,484 (100.0)	4,359 (58.2)	4,359 (100.0)	1,344 (30.8)	2,707 (62.1)	47 (1.1)	75 (1.7)	185 (4.2)	2 (0.0)
< 2021 > (구성비)	14,766 (100.0)	10,059 (68.1)	10,059 (100.0)	3,336 (33.2)	5,909 (58.7)	228 (2.3)	202 (2.0)	384 (3.8)	1 (0.0)
남 자	7,060 (100.0)	5,464 (77.4)	5,464 (100.0)	1,924 (35.2)	3,088 (56.5)	175 (3.2)	109 (2.0)	168 (3.1)	1 (0.0)
여 자	7,706 (100.0)	4,595 (59.6)	4,595 (100.0)	1,412 (30.7)	2,820 (61.4)	53 (1.1)	93 (2.0)	216 (4.7)	1 (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각년도 5월

19. 평생교육 참여율¹⁾

(단위: %)

65~79세	참여율 ²⁾	형식교육 ³⁾	비형식교육 ⁴⁾	직업관련 목적 ⁵⁾
2018	32.7	0.1	32.6	5.5
2019	32.5	0.1	32.4	4.9
2020	29.5	0.1	29.4	6.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주: 1) 지난 1년간, 25~79세 한국 성인 중 형식교육 또는 비형식교육에 참여한 한국 성인의 비중

2)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 동시 학습 인원 포함

3) 초, 중, 고등학교나 대학과 같이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졸업장이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

4) 학교 교육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구조화된 학습활동

5) 「취업, 이직, 창업에 도움」, 「일하는데 필요한 기능 습득」, 「성과급·연봉 등 소득 증대」, 「고용안정」 등 직업과 관련된 목적을 가진 비형식교육 참여자에 대한 현황임

20. 노인차별(2020)¹⁾²⁾

(단위: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이주민	전과자	성소수자	비정규직
2020	13.8	4.8	7.7	21.9	2.5	6.6	6.0	3.6	5.8
남자	8.9	4.8	7.7	22.5	2.1	6.7	5.9	3.6	6.8
여자	18.6	4.8	7.7	21.3	3.0	6.4	6.0	3.7	4.8
29세 이하	14.5	4.7	3.5	23.8	1.7	6.3	4.4	6.4	5.8
30대	12.8	6.2	3.4	28.4	2.0	5.8	4.0	4.4	5.0
40대	14.7	5.5	4.0	23.2	2.4	7.5	5.5	4.0	6.2
50대	15.4	4.8	6.2	17.8	3.3	7.9	7.4	3.3	6.7
60세 이상	12.2	3.6	16.5	18.8	2.9	5.7	7.4	1.3	5.4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실태조사」

주: 1)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함

2) 각 집단 중 인권침해 또는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이라고 1순위로 응답한 비중임

21. 세대갈등¹⁾²⁾

(단위: 점, %)

	평균 ³⁾	전혀 심하지 않다	별로 심하지 않다	약간 심하다	매우 심하다
2014	2.7	2.3	35.4	47.9	14.4
2015	2.8	2.8	32.1	49.9	15.2
2016	2.8	2.7	33.4	49.3	14.5
2017	2.7	2.7	35.0	48.6	13.7
2018	2.8	3.3	32.2	49.7	14.7
2019	2.8	2.5	33.5	49.7	14.4
2020	2.7	2.9	36.2	49.8	11.1
19~29세	2.7	2.1	35.8	49.1	13.0
30~39세	2.7	2.7	37.3	47.7	12.4
40~49세	2.7	2.1	37.4	50.5	10.0
50~59세	2.7	4.3	34.3	49.8	11.6
60세 이상	2.7	3.2	36.2	50.8	9.8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주: 1) 노인층과 젊은층 간의 갈등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자의 비율임

2)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2020년부터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3) 4점 척도(1점: 전혀 심하지 않다 ~ 4점: 매우 심하다)에 대한 평균값임

22. 가족관계 만족도

(단위: %)

65세 이상	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 배우자와의 관계 >						
< 2018 >	100.0	25.3	35.5	32.2	5.6	1.4
남자	100.0	30.2	38.1	27.7	3.4	0.6
여자	100.0	18.7	32.0	38.3	8.6	2.4
< 2020 >	100.0	28.8	33.1	31.3	5.0	1.8
남자	100.0	34.7	34.1	27.4	3.0	0.9
여자	100.0	20.8	31.7	36.7	7.7	3.1
65~69세	100.0	30.7	31.6	32.1	3.7	1.9
70~79세	100.0	26.9	34.3	30.9	6.0	1.9
80세 이상	100.0	29.9	32.9	30.9	5.3	1.0
< 자녀와의 관계 >						
< 2018 >	100.0	27.6	40.5	26.3	4.4	1.2
남자	100.0	28.2	39.5	26.1	5.0	1.3
여자	100.0	27.2	41.2	26.4	3.9	1.2
< 2020 >	100.0	32.9	37.5	24.7	3.6	1.3
남자	100.0	33.3	36.5	25.1	3.7	1.4
여자	100.0	32.6	38.2	24.4	3.6	1.2
65~69세	100.0	33.2	36.4	26.1	3.2	1.1
70~79세	100.0	32.6	38.0	24.4	3.6	1.5
80세 이상	100.0	33.2	37.9	23.5	4.3	1.1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3. 주관적 노인연령(2020)

(단위: %)

	69세이하	70세이상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주관적 노인연령(세)
전체	25.9	74.1	52.7	14.9	6.5	70.5
남 자	23.2	76.8	52.5	17.3	7.0	70.8
여 자	28.0	72.0	52.8	13.0	6.2	70.2
65~69세	24.0	76.0	52.3	16.1	7.6	70.8
70~79세	27.1	72.9	52.6	14.8	5.5	70.3
80세이상	26.4	73.6	53.4	13.1	7.1	70.3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주: 1)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4. 연명의료 반대율(2020)

(단위: %)

	전체	성별		연령대별				
		남자	여자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이상
2020	85.6	85.6	85.7	84.5	85.5	85.7	87.3	89.1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주: 1)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5.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중

(단위: %)

65세 이상 ¹⁾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²⁾	면적기준 미달가구 ³⁾	시설기준 미달가구 ⁴⁾	침실기준 미달가구 ⁵⁾
2018	4.1	1.4	3.4	0.1
수도권 ⁶⁾	3.6	2.3	2.3	0.1
비수도권	4.4	0.8	4.1	0.0
2019	3.9	1.5	3.1	0.0
수도권 ⁶⁾	3.8	2.5	2.5	0.0
비수도권	4.0	0.8	3.5	0.0
2020	3.4	1.6	2.8	0.0
수도권 ⁶⁾	3.0	2.2	2.0	-
비수도권	3.8	1.2	3.4	0.0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주: 1)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임

2)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490호('11.5.27)에 따른 기준임

3) 가구원 수별 주거면적이 1인-14㎡, 2인-26㎡, 3인-36㎡, 4인-43㎡, 5인-46㎡, 6인-55㎡ 미만인 가구

4)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 시설 중 1개라도 없는 경우

5) 가구원 수별 방수가 1인-1개, 2인-1개, 3인-2개, 4인-3개, 5인-3개, 6인-4개 미만인 가구

6) 서울, 인천, 경기

26. 주거만족도

(단위: 점)

65세 이상 ¹⁾	주택 만족도 ²⁾	주거 환경 만족도 ³⁾	편의 시설	의료· 복지 시설	공공 시설	문화 시설	공원· 녹지	대중 교통	주차 시설	보행 안전	교육 환경	치안 문제	소음 문제	주변 청결	대기 오염	지역 유대
2018	2.89	2.89	2.78	2.74	2.78	2.59	2.81	2.81	2.76	2.95	2.82	2.95	2.86	2.98	2.98	3.09
수도권 ⁴⁾	2.92	2.91	2.91	2.88	2.91	2.68	2.89	2.94	2.71	2.96	2.94	2.96	2.80	2.96	2.91	3.05
비수도권	2.87	2.87	2.69	2.65	2.70	2.53	2.76	2.73	2.79	2.94	2.74	2.95	2.91	3.00	3.04	3.12
2019	2.92	2.87	2.75	2.72	2.79	2.55	2.89	2.85	2.82	2.98	2.83	2.99	2.92	3.04	3.03	3.13
수도권 ⁴⁾	2.95	2.93	2.87	2.85	2.89	2.67	2.95	2.98	2.81	3.00	2.93	3.00	2.89	3.01	2.96	3.07
비수도권	2.91	2.82	2.67	2.64	2.72	2.47	2.85	2.76	2.83	2.97	2.76	2.98	2.93	3.05	3.08	3.18
2020	2.92	2.93	2.78	2.75	2.82	2.51	2.94	2.89	2.83	3.02	2.85	3.02	2.94	3.05	3.08	3.14
수도권 ⁴⁾	2.95	2.97	2.92	2.89	2.93	2.60	2.96	3.05	2.80	3.03	2.94	3.03	2.88	3.03	2.98	3.07
비수도권	2.91	2.90	2.69	2.65	2.74	2.44	2.92	2.78	2.85	3.01	2.78	3.02	2.97	3.07	3.15	3.18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주: 1)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임

2)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로 4점 척도(1점: 매우 불만족 ~ 4점: 매우 만족)에 대한 평균값임

3)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로 4점 척도(1점: 매우 불만족 ~ 4점: 매우 만족)에 대한 평균값임

4) 서울, 인천, 경기

27. 보행안전성

(단위: 명, 명/10만 명)

65세 이상	사망자 수	사망률 ¹⁾	부상자 수	부상률 ²⁾
2006	961	21.2	6,169	136.3
2007	985	20.7	6,541	137.4
2008	903	18.1	7,181	143.9
2009	952	18.4	7,832	151.3
2010	966	18.0	7,924	147.7
2011	883	16.0	8,131	147.4
2012	959	16.6	8,651	150.0
2013	951	15.8	9,413	156.3
2014	919	14.6	10,031	159.8
2015	909	13.9	10,772	164.7
2016	866	12.8	10,693	158.2
2017	906	12.8	11,224	158.8
2018	842	11.4	11,124	150.9
2019	743	9.7	11,653	151.6
2020	628	7.7	9,233	113.6

자료: 경찰청,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주: 1) 사망률 = 보행교통사고 사망자 수 ÷ 고령 인구 × 100,000. 고령 인구는 2017년 기준 추계인구

2) 부상률 = 보행교통사고 부상자 수 ÷ 고령 인구 × 100,000. 고령 인구는 2017년 기준 추계인구

28. 고령자 학대피해¹⁾²⁾ 경험률

(단위: 명/10만 명)

65세 이상	학대피해 경험률 ³⁾	성별 ⁴⁾		연령별 ⁵⁾			
		남자	여자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2008	44.5	34.4	51.4	16.1	35.8	58.1	111.2
2009	48.3	35.6	57.1	17.4	38.5	65.4	113.8
2010	54.0	42.1	62.2	20.9	44.2	64.4	126.3
2011	58.4	43.4	68.8	24.4	47.4	73.0	123.6
2012	56.0	41.1	66.4	23.6	43.4	64.7	124.1
2013	55.1	36.6	68.3	24.1	41.5	61.3	122.3
2014	53.1	37.5	64.3	22.5	37.1	65.2	114.1
2015	55.2	37.0	68.4	24.9	43.3	64.1	111.1
2016	60.1	39.1	75.5	26.7	49.3	69.8	115.9
2017	63.4	37.4	82.5	32.4	55.2	71.7	111.0
2018	70.4	43.0	90.8	34.7	66.4	79.1	117.6
2019	68.2	38.5	90.6	37.5	63.0	72.9	112.5
2020	77.0	44.1	102.1	46.6	69.6	83.6	122.5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학대현황」

주: 1)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로 구분

2)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사례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경우를 의미함

3) 학대피해 경험률 = 학대피해노인 수 ÷ 고령 인구 × 100,000. 고령 인구는 2017년 기준 추계인구

4) 성별 학대피해 경험률 = 성별 학대피해노인 수 ÷ 성별 고령 인구 × 100,000. 성별 고령 인구는 2017년 기준 추계인구

5) 연령대별 학대피해 경험률 = 연령대별 학대피해노인 수 ÷ 연령대별 고령 인구 × 100,000. 연령대별 고령 인구는 2017년 기준 추계인구

29-1. 운전자 비율

(단위: %, 세)

	현재하고 있음	전에는 했으나 현재는 하고 있지 않음		평생 한 적 없음
			그만둔 평균 나이	
2011	12.2	8.4	57.7	79.4
2014	16.1	8.9	59.7	75.0
2017	18.8	10.5	62.1	70.7
2020	21.9	17.8	65.8	60.4
남자	41.5	33.0	66.7	25.5
여자	7.1	6.3	62.2	86.7
65~69세	39.2	11.5	61.2	49.2
70~74세	23.5	20.2	65.5	56.3
75~79세	11.9	24.1	67.2	64.0
80~84세	4.2	20.2	69.3	75.6
85세이상	1.7	13.2	67.0	85.1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주: 1)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9-2. 고령 운전자 사고 비율(2020)¹⁾

(단위: 건, 명, %)

	사고건수	사망자수	치사율	부상자수
합계	31,072	720	2.3	44,269
65~69세	14,916	256	1.7	21,669
70~74세	8,911	200	2.2	12,747
75~79세	4,894	141	2.9	6,810
80~84세	1,830	92	5.0	2,393
85세 이상	521	31	6.0	650

자료: 경찰청,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주: 1) 가해자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 사고로 사망자와 부상자는 해당사고에서 발생한 모든 사망자와 부상자임